

이슬람의 교리

1. 인간의 육체적, 도덕적, 영적상태
2. 죽음 뒤의 세계, 즉 내세란 무엇인가?
3. 인간 존재의 목적과 그 목적 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4. 현세와 내세에서의 연간행동이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5. 신학의 근거는 무엇인가?

Korean Translation Rendered By Miss -Ri- Sook

ISLAM INTERNATIONAL PUBLICATIONS
VAKALAT ISHAT, 16 GRESSEN HALL ROAD, LONDON SW 18 5QL U.K

THE PHILOSOPHY OF THE TEACHINGS OF ISLAM

(KOREAN VERSION)

©ISLAM INTERNATIONAL PUBLICATIONS

VAKALAT ISHAT, 16 GRESSEN HALL ROAD, LONDON SW 18 5QL U.K

Korean Translation Rendered By Miss -Ri- Sook

ISLAM INTERNATIONAL PUBLICATIONS



ハズラト ミルザー グラーム アハマド
アハマデメア運動の創立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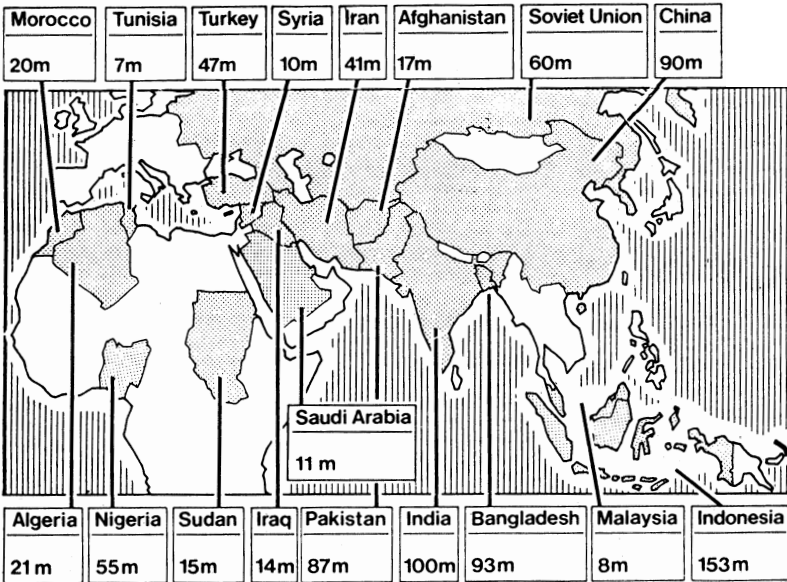
*Hazrat Mirza Chulam Ahmad the Promised Messiah and Mahdi
the Holy Founder of the Ahmadiyya Movement in Islam
(Peace be upon him)*

이슬람 교리

이슬람 아하마디야 운동의 선구자
하즈라트 미르자 구울람 아흐마드
카디안

MAP

The world's Muslims



이슬람이란?

이슬람은 선지자 모하메드에 의해 설교되어지고 실천되어진 종교이다 (알라신의 평화와 축복이 그 분에게 임하신다).

이슬람(Islam)은 아랍어로 '평화'를 의미하며 또 '순종'을 의미한다. 모슬림(Muslim)은 그러므로 모하메드의 생애를 통해 평화를 구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는 성스러운 모슬림의 성전인 코란 안에 지시되어진대로 알라신의 의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다. 모든 성전의 글들은 이슬람의 성스러운 선지자에 의해 나타내여졌다. 모슬림들은 알라신의 모든 선지자들을 믿지만 모하메드는 모든 선지자들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며 인간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여겨진다.

〈이슬람의 5개의 기둥〉

이슬람 예배는 이슬람의 5개의 기둥으로 알려진 5가지의 모습이 있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이

- ① 신앙고백-알라신외에는 예배할 이가 없다. 모하메드는 알라신의 사도이다.
- ② 사로트(Salat)-정해진 시간에 매일 5번을 신자가 기도드리는 것이다.
- ③ 자카트(Zakat)-가난한 사람들의 이익이나 그들을 위한 어떤 다른 고귀한 목적을 위해 자기자신의 일부를 기부하는 것이다.
- ④ 단식-라마단(Ramadhan)의 달(月) 기간을 말한다.
- ⑤ 해즈(Haj)-육체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가능하다면 또, 여행이 목적이라면 적어도 일생에 한번 아랍의 카바(Ka'aba)의 순례하는 것을 말한다.

세계적인 Ahmadiyya Muslim회 회장 Hadhrat Mirza Tahir Ahmad의 메세지

세계적인 Ahmadiyya Muslim회는 1896년 12월 26부터 29일까지 Lahore에서 있었던 종교대회에서 실질적으로 발표된 이 글의 출판10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사실 종교대회 이전에 벌써 출판된 이 책은 신의 은총으로 쓰여졌으며 하느님은 이 책의 독보적인 우수성을 계시를 통해 보장하셨습니다. 이 책에 대한 전단과 포스터 등이 Lahore의 많은 공공 장소들에서 전시되었습니다.

우리 신자들로서는 알맹이 없는 전시나 열광보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 출간 10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이 책을 세계 주요 언어로 번역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책에 깃든 축복이 전 세계에 공유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도움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이 책을 52개국 언어로 번역하고 출판하였습니다. 나머지 다른 언어로의 번역작업도 지금 진행 중이며 1996년 말까지는 완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숭고한 일을 실현시키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까지 않고 헌신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축복이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Mirza Tahir Ahmad.

1996년 1월

서 문

Swami Sadhu Shugan Chandra는 Kaaisth Hindu caste를 개혁 하기 위해 3, 4년을 보냈습니다. 1892년 그는 마침내 사람들이 하나로 뭉치기 전에는 이런 일이 아무 소용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교대회를 제안했고 1982년 Ajmer에서 첫번째 종교대회가 열렸습니다. 1896년에는 Lahore를 두 번째 종교대회의 장소로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Swami Sahib는 해외 담당위원회를 구성해서 Master Durgah Parshad를 위원장으로, Lala Dhanpat Roy, BA LLB를 초무로 임명했습니다. 날짜는 1896년 12월 26일에서 28일까지로 결정되었으며 다음 6명이 중재자로 선임되었습니다.

1. Roy Bahadur Babu Partol Chand Sahib, 편집의 대법원 판사
2. Khan Bahadur Sheikh Khuda Baksh Sahib, Lahore 지방 판사
3. Roy Bahadur Pandir Radhma Kishan Sahib COle, 전직 주지이자 현 Lahore대법원 변호사
4. hadhrat Maulvi Hakeem Nur-ud-Din Sahib, 왕실담당 의사
5. Roy Bhavani Das Sahiv,MA, Jhelum의 Extra Settlement 장교
6. Sardar Jawahar Singh Sahiv, Lahore의 Khalsa 위원회 총무

이 위원회는 그들이 가진 신앙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해 학식있는 무스림, 기독교, 아리아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Lahore의 타운홀에서 개최된 이 종교대집회의 목적은 여러 문화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들 종교의 우수성과 특성을 밝히고 사람들의 가슴에 사랑의 불을 지피며,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논쟁과 증명을 통해 종교에 더욱 친숙하

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모든 종교의 명망있는 신학자들은 이 자리에서 자신들의 종교에서 말하는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청중들은 이 각각의 연설을 통해 타종교에 접근해서 그 안에서 밝혀진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있어온 여러 종교들 간의 분쟁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신앙을 찾고 싶은 열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명망있는 설교자들과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명시된 질문에 대해 자신들의 종교가 가진 아름다움을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 대회를 통해 진정한 하느님의 종교가 명확히 드러날 것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개최될 이 대회에서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설교자들은 그들 신앙의 진실성에 대해 명확히 해줄 의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대회는 진리를 명백히 하기 위한 것이며 이것은 명망있는 신학자들에게 이 목적을 이루라고 주신 신의 기회인 것입니다. 이런 기회들은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불치병을 앓고 있는 것을 보면 서 그가 확실히 그 병을 치료할 방법을 갖고 있고 또한 그가 인간에 대한 연민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가 치료를 원하는 그 환자로 부터 등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어떤 종교가 진리로 충만된 종교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차마 저의 이런 열망을 표현할 말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Swami Sahib는 썼습니다. 각 종교의 대표들은 Swami “Sahib의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대종교 집회는 1896년 크리스마스 연휴를 기해 개최되게 된 것입니다. 각 연설자들은 위원회에서 만든 다섯개의 질문에 대답해야 하고 가능한 한 그들 종교서에 나온대로 대답해야 한다고 위원회는 명시했습니다.

위원회가 제시한 다섯개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간의 육체적, 도덕적, 영적상태
2. 죽음 뒤의 세계, 즉 내세란 무엇인가?

3. 인간 존재의 목적과 그 목적 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4. 현세와 내세에서의 연가행동이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5. 신학의 근거는 무엇인가?

종교대집회는 12월 26일부터 29일까지 열렸습니다. 이 집회에는 Sannatan Dharm, Hinduism, Arya Samaj, Free Thinker, Brahmo Samaj, Theosophical Society, religion of Harmony, Christianity, Islam and Sikhism의 대표들이 참가했습니다. 모든 대표들이 연설했지만 오직 한 강의만이 이 다섯개의 질문에 진실적이고 완전한 대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Maulvi Abdul Karim Sialkoti의 유창한 강의는 말로 표현 할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종교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감사와 칭찬을 보냈습니다. 모두가 그의 말에 귀를 몰두하고 기뻐했습니다. 모두가 그의 말에 귀를 몰두하고 기뻐했습니다. 그의 메세지 전달력은 대단히 흥미롭고 호소력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반대자들이 그를 전적으로 칭찬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기독교 신문임에도 불구하고 Lahore에서 발행되는 the Civil and Military gazette지는 이 연설이야말로 가장 언급할 만한 가치와 칭찬이 높이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연설은 Ahmadiyya Muslim 회의 창시자인 Mirza Ghulam Ahmad Qadian이 쓴 것이었습니다. 이 연설은 정해진 두 시간 안에 끝낼 수 없었기 때문에 대회가 하루 더 연장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편집의 신문 과측자는 연일 이 연설에 대해 박수를 보냈다. Paisa Akhbar, Chaudhvin Sadee, Sadiq-ul-Akhbaar, Mukhbir i Dakkan 그리고 General-o-Gohari Asifi of Calcutta 등 모든 신문들은 한결같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비무슬림, 비인도인들마저도 이 연설이 이 대회 중 가장 우수한 것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회 총무인 편집의 대법원 변호사 Dhanpat Roy, BA, LLB는 ‘대종교 집회 보고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Pandir Gordhan Das Sahib의 연설후 30분간의 휴식이 있었다. 다음 연설자는 저명한 이슬람 옹호자의 것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리를 뜨지 않았다. 1시 반이 되기도 전에 커다란 이스라미아 대학 빌딩이 매워지기 시작했다. 모인 숫자는 대략 7, 8천 명이었다. 학식있고 저명한 다양한 종교 인사들이 참석했다. 수 많은 책상과 의자들이 제공되었지만 수백명의 참석자들은 자리가 모자라서 서있을 수 밖에 없었다. 많은 고위 성직자와 편집의 지도자들, 학자, 변호사, 교수, 그외 조교, 박사들이 참석했다. 한마디로 다양한 분야의 지도층 인사들이 참여했다고 할 수 있었다. 그들은 서너 시간을 서서 대단한 인내심과 집중력을 갖고 연설을 들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종교적 주장에 관심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 연설의 저자는 직접 나타나지 않고 그의 제자중 한명이 등장했다. Maulvi Abdul-Karim Sialkoti가 이 집회에서 대신 이 글을 읽도록 된 사람이었다. 위원회는 이 연설에 두 시간을 배당했지만 시간 안에 끝나지 않았다. 청중들의 지대한 관심을 보면서 위원회 중재자들은 결론을 발표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이것은 참석자들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었다. 다음 연설자인 Maulvi Abu Yusuf Mubarak Ali도 자기 시간을 보류하는 것에 찬성했기 때문에 Mirza Sahiv의 글은 계속되었다. 청중들과 중재자들은 이 결정에 감사했고 집회는 4시 40분에 끝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연설은 한 시간을 더 연장해서 5시 30분에 결국 끝났다.

연설은 장장 4시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처음부터 끝까지 흥미진진하고 인상적인 내용으로 일관되었다.”

대회가 있기 며칠 전인 1896년 12월 21일, 신의 예언적 계시를 받은 Ahmadiyya운동의 창시자는 그의 연설이 가장 영향력있는 것이 될 진실을 향한 구도자를 위한 소식이라고 장담했습니다. 다음은 그의 연설

을 번역한 것입니다.

1896년 12월 26일, 27일 그리고 28일에 라호르의 타운홀에서 개최되는 대중교 집회에서, 성스러운 코란의 훌륭함과 기적에 대하여 미천한 본인이 쓴 글이 읽혀질 것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인간의 노력의 소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써 씌어진 하나님에 대한 증거중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이 글은 성스러운 코란의 아름다움과 진리를 설파하고 마치 정오의 태양처럼 분명하게, 코란이 하나님의 말씀안의 진리이며 모든 것의 창조주인 하느님에 의해 계시되어진 책이라는 것을 밝힐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대집회를 위해 설정한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한 제 설명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분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새롭게 할 것이며, 자신 속에서 빛나는 개로운 빛을 감지하게 될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성스러우신 말씀에 대한 깊이있는 설명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의 이 글이 인간의 취약함을 벗어난 글로써 허황된 자만이 나 헛된 주장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말하고 싶습니다.

본인은 이글을 발표하는데 있어서 본인의 형제들의 공감으로 하여 감동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성스러운 코란의 아름다움을 증거하여야 할 것이며, 어둠을 가까이 하고 빛을 멀리하면서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이글이 모든 다른 글들에 우선하여 선언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본인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이 글은 대 집회에 참석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하는 모든 다른 무리들에게 부끄러움을 줄 만큼 진리와 지혜와 그리고 지식의 빛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나 아리아교인이나 또는 사나탄다암 또는 어떤 다른 것을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 자신의 경전으로부터 이러한 말씀에 비길 수 있는 것을 아무것도 찾지 못할 것이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스러운 성전의 영광이 그날에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한 손이 본인의 집 위에 놓여졌고 그 손길에 의해 찬란한 빛이 그 집으로부터 나와 사방으로 빛을 발하였습니다. 그것은 또한 본인의 손을 비추었습니다. 그 때 누군가 본인의 곁에 서서 커다란 음성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알라우 아크바르, 카리밧 카이바르(하나님은 위대하시며 카이바르는 쇠락했노라). 그 참된 해석은, 나의 집으로 하여, 성스러운 코란의 천상의 진리의 빛이 강림하는 나의 가슴을 의미하여, 카이바르로하여, 우상숭배와 거짓으로 고통받으며, 그 속에서 인간이 일으키워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또는 그 속에서 천상의 근본이 그 완전한 자리로부터 내동댕이 쳐진 모든 왜곡된 종교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글을 널리 알림으로 해서 거짓 종교의 허구를 드러내고 코란의 진리와 그 클라이 막스에 이를때까지 이 세상 끝까지 점차적으로 퍼져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본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네가 서 있는 곳에 서 계시노라.” 이는 신의 후원에 대한 확신을 말해주는 비유입니다. 본인은 더 이상 계속 써 내려가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본인은 비록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모든 사람들이 라호르의 대집회에 참석하여 이 진리들을 경청하기를 촉구합니다. 만약 그리한다면 그들의 이성과 신앙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 이상의 열매를 얻을 것입니다. 인도를 따르는 자에게 평안이 함께 하소서.

Ghulam Ahmad
Qadian, 1896년 12월 21일

당시 발행된 몇 신문의 기사를 인용하는 것이 적절할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 제시합니다.

Civil and Military Gazette, Lahore

종교대집회 참석자들은 Mirza Ghulam Ahmad of Qadian의 강의에 지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그의 글은 이슬람에 대한 완전결한 변호였다. 각 종파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이 멀리에서 이 연설을 듣고자 왔다. Mirza Sahib는 직접 참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신 그의 유능한 제자인 Maulvi Abdul Karim Sialkiti가 그의 글을 읽었다. 12월27일 그는 세시간 동안 연설했고 관중들은 매우 주의 깊게 들었다. 그러나 세시간에 그는 다섯개 질문 중 하나만 대답했기 때문에 Maulvi Abdul Karim은 시간을 더 요청했고 조직위원회 측은 대회를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다. (요약)

Chaudhvin Sadee. Rawalpindi

1897년 2월 1일

지금까지 대회 중 가장 훌륭했던 강의는 Miraz Ghulam Ahmad 가 쓰고 유명한 웅변가인 Maulvi Abdul Karim Sialkoti가 멋지게 읽은 것이다. 강의는 12월 27일 4시간, 29일 2시간으로 전 6시간동안 진행되었고 거의 100장에 달하는 양이었다. 청중들은 완전히 강의에 사로잡혀서 매 문장마다 박수를 보냈다. 몇 번이나 관중들이 다시 읽어주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멋진 강의는 처음이었다. 사실 다른 종교 대표자들은 위원회가 제기한 질문들에 적절히 대답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발표자들은 4가지 정도의 질문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고 나머지 한개의 질문은 그냥 지나쳐버렸다. 대다수 발표자들이 말은 많이 했지만 내용은 별로 없는 발표로 일관했다. Mirza Sahib의 논문만이 예외로써 각각의 질문에 자세하고 깊이있는 대답을 했다. 청중들은 대단한 관심을 보였고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경청하면서 가장 우수하고 뛰어난 강의라고 평가했다.

우리는 Mirza의 추종자도 아니고 그의 연관된 사람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정하지 않을 수 없다. 주어진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할 때 Mirza Sahib는 전적으로 코란에 의존하였다. 그는 자신의 글에서 이슬람의 교리들을 논리적이고 설득력있는 문장으로 멋지게 설명했다. 논리적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그의 문장 스타일에서 우리는 그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는 코란의 철학을 설명한 것은 물론 코란의 언어가 가진 철학과 언어학까지도 설명했었다. 한마디로 그의 글은 지식, 지혜, 진리, 그리고 신비로 가득찬 완전하고 깊이있는 것이었다. 신성 철학이 넘 극명하게 설명되어서 청중들은 혼란스러움에서 탈피한 것 같았다. 가장 많은 청중이 그의 강의를 위해 자리를 매웠다.

Mirza Sahib의 강의를 다른 발표자들의 강의와 다른 점은 청중들이 다른 강의에서 지루함을 느끼고 자리를 떠던 반면 이 강의에는 대거 몰렸다는 것이다. Maulvi Muhammad Hussain Batalvi의 강의는 정말 형편 없는 것이었다. 특이한 것이라고 없는 진부한 회교주의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두번째 강의 중 자리를 떴고 연설을 마무리 하는 데 필요한 몇 분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요약)

General-o-Gohar Asifi, 캘커타

1897년 1월 24일

(이 글은 “종교 대집회”와 “이슬람의 승리”라는 제목하에 게재된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 대회를 논하기 전에 우리는 지난 호에 이미 이슬람을 대표해 신학자가 발표한 가장 강력한 메시지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공정하고 개방된 판단으로 우리의 한 유능한 통신원이 Mirza Ghulam Ahmad of Qadian을 이슬람의 우 승자로 지명했고

다른 통신원도 같은 의견을 보내왔다. Maulvi Fakhruddin Sahib Fakhr 은 Mirza Ghulam Ahmad of Qadian을 이슬람의 우승자로 지명했고 다른 통신원도 같은 의견을 보내왔다. Maulvi Fakhruddin Sahib Fakhr은 Mirza Ghulam Ahmad of Qadian을 선두로 뽑았고 Sir Syed Ahmad Sahib of Aligarh를 그 다음으로 뽑았다. 그가 거명한 다른 이슬람의 우승자 후보로는 Maulvi Abu Saeed Muhammad Hussain Sahib Azeemabadi를 들 수 있다. Ysgdrirt-i-Haqqani의 저자인 Maulvi Abdul Haq Sahib Delhvi도 거론되었다.(요약)

(Swami Shugan Chandra의 종교대집회의 초대장 발췌본이 간행 된 후 이 신문은 이렇게 썼다.)

종교대집회를 알리는 팜플렛을 읽고 학자들은 거룩한 이슬람교를 옹호하고자 하는 자긍심이 일깨워졌을까? 얼마만큼 그들은 이 집회의 목적을 받아들이고, 얼마나 논리적인 이론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신의 위대성에 대해 감화시킬 수 있을까?

믿을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대회 조직위원회 측은 Mirza Ghulam Ahmad Sahib와 Sir Syed Ahmad Sahib에게 초대장을 보냈다고 한다. 건강약화로 Hadhrat Mirza Sahib는 불참할 수 밖에 없었지만 그는 수제자인 Maulvi Abdul Karim Sialkoti로 하여금 대신 그의 글을 읽도록 했다. 그러나 Sir Syed는 참석은 커녕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노령이거나 다른 약속이 있어서도 아니었다. 사실 그는 이런 종교 집회를 무가치하다고 여기고 있다. 초대장에 대한 응답(차후 발간예정임)에서 그는 “본인은 설교자나 개혁자 혹은 maulvi가 아니다. 이 종교집회는 설교자들과 개혁자를 위한 것이다.”라고 썼다.

Maulvi Syed Muhammad Ali Sahib Kanpuri, Maulvi Abdul Haq Sahib

Delhvi 그리고 Maulvi Ahmad Hussain Sahib Azeemabadi등은 이 종교 대집회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이나라의 대다수 종교학자들은 어떤 발표 자료 준비도 꺼려했다. 확실한 한 두명만이 이 도전에 응했지만 별다른 것은 없었다. 다음 보도에서 증명되겠지만 그들은 아무 관련없는 내용만 얘기하거나 몇 가지 내용없는 말만 했을 뿐이다. 종교 대집회 과정에서 Hadhrat Mirza Ghulam Ahmad of Qadin만이 유일하게 이슬람의 주장을 진실로 옹호했음이 드러났으며, 그는 신자들이 그를 이슬람의 대표로 인정하는 것을 감사히 받아들였음을 증명해주었다. 그의 대표성을 Peshawar, Rawalpindi, Jhelum, Shahpur, Bhera, Khushab, Sialkot, Jammu, Wazeerabad, Lahore(라호스), Amritsar, Gurdaspur, Ludhiyana, Shimla, Dehli(델리), Amritsar, Gurdaspur, Ludhiyana, Shimla, Dehli(델리), Ambala, Riasat Patiala, Dera Doon, Ilahabad, Madras(마드라스), Bombay(봄베이), Hyderabad-Dakkan와 Bangalore등 인도 각 지역에 산재한 이슬람 여러 단체들의 지지를 받았다.

Mirza Sahib의 논문이 발표되지 않았다면 무슬림은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불명예를 면치 못했을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었다. 신의 전능하신 힘이 아니었다면 이슬람이란 종교는 널리 퍼지지 못했을 일이었다. Mirza Sahib의 글 때문에 이슬람의 영광은 이루어진 것이다. 친구나 적이나 모두 그의 논문의 우수성을 인정했다. 발표가 끝났을 때는 이슬람의 대립자들조차 이 발표로 인해 이슬람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고 결국 이슬람은 성공에 이른 것이다. Mirza Sahib을 선택한 것은 가장 올바른 일이었으며 이 선택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없을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이슬람의 영광과 위대성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해 주었다.

이 종교집회는 두번째에 불과했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모임이나

■
 집회를 능가하는 높은 지적내용과 모임의 규모로 이루어졌다. 인도의 모든 도시에서 위대한 지도자들이 참석했으며, 또한 마드라스 시도 참가했다는 것은 자랑할 만한 일이다. 조직위원회가 예고했던 사흘보다 하루가 더 연장된 나흘동안 집회를 했다는 것도 흥미있는 일이다. 조직위원회 측은 개최지 라호르에서 가장 큰 공공장소인 이슬라미아 대학을 집회장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정소도 참석자들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모자랄 정도였다. 이 집회의 대단한 성공은 앞서가는 편집 시민이 참석 뿐 아니라 알라하바드의 대법원, 고등법원 판사들, Babu Partol Chand Sahib와 Mr. Bannerji가 참가한 것만 봐도 알수 있다. (신문 기사 요약 끝)

Hadhrat Mirza Ghulam Ahmad Sahib의 논문은 “종교 대집회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라호르와 아마디아 무슬림 단체들은 이 글을 “Islami Usool Ki 철학”이란 제목의 책으로 발행했으며 “The Philosophy of the Teachings of Islam (이슬람 교리의 철학)”이란 영어 제목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재판이 거듭되면서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스페인어, 아랍어, 독일어등 여러 언어로 번역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철학자들과 외국신문들이 호평을 보냈고 서구 지성들이 높이 칭찬했습니다. 예를 들면 :

1. 브리스틀 타임즈와 미러지(The Bristol Times and Mirror)sns : “유럽과 미국에 이런식으로 설명해준 사람이라면 확실히 보통 사람은 아니다.” (요약)
2. 스피리추얼 저널, 보스톤(Spritual Journal, Boston) : “이 책은 모든 인류를 위한 희소식이다.” (요약)
3. Theosophical Booknotes : “이 책은 모하메드 종교의 가장 친밀감을 주는 생생한 묘사이다.”
4. 인도 리뷰지(Indian Review) : “이 책은 명쾌한 사고와 완벽한 지혜를

보여줌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칭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요약)

5. 무슬림 리뷰지(Muslim Review) : “누구라도 이 책을 읽는 사람은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기쁨을 느끼게 하는 수많은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요약)

이 글의 송고미는 내용 중 어떤 종교도 공격하지 않으면서 단지 이슬람의 아름다움과 장점만을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섯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코란 (회교의 경전)에 참고해서 이슬람의 완전성과 다른 종교들 보다,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대답을 했습니다.

Jalal-ud-Din Shams.

● 구도자를 위한 소식

말씀 중에서 스와미 슈간 찬드라 사히브님께서는 알라신의 이름으로 회교도들과 기독교도 그리고 아리아 교도들의 목자들을 초대하시어 제 각기 신앙의 우수성을 그 분께서 제의하신 대 집회에서 설정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알라신의 이름에 영광을 더하고자, 그분의 요구하심에 부응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또한 알라신께서 그렇게 의도하신다면, 저희의 글이 그 대 집회에서 읽히어 질 것이라는 것을 스와미 사히브님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슬람이란, 진정한 알라신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행하도록 부름을 받았을 때 완전한 복종을 하도록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이제 우리는 얼마만큼 그의 형제 아리아 교도들과 페르미슈(permeshwar)의 명예나 예수를 위한 기독교 목자들이 관련이 있고 또한 영광스럽고 거룩한 그 분의 이름으로 개척되어지는 대회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1896년 12월 26일, 27일 그리고 28일에 라호르의 타운홀에서 개최되는 대 종교 집회에서, 성스러운 코란의 훌륭한 기적에 대하여 미친한 본인이 작성한 글이 읽혀 질 것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인간의 노력의 소산이 아니며, 알라신의 특별하신 은혜로써 쓰여진 알라신의 증거 중에 증적인 것입니다. 이 글은 성스러운 코란의 아름다움과 진리를 전하며 마치 정오의 태양처럼 분명하게, 성스러운 코란의 진리이신 알라신의 말씀 바로 그 가운데 있으며, 모든 창조의 주님에 의해 계시되어진 책이라는 것을 증거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글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이들은 대 집회를 위해 설정된 대 주제에 대하여 본인이 설명 드리는 범위까지 자신들의 신앙을 새롭게 이룰 것이며, 자신속에서 빛나는 새로운 빛을 알게 될 것이며 그리고 알라신의 성스러운 말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게 될 것입니다. 본인은 이 글을 인간의 나약함이나, 어리석은 자만 그리고 헛된 주장으로 발표하는 것은 아닙니

다.

본인은 이 글을 발표하는데 있어서 본인의 형제들의 공감으로 하여 감동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성스러운 코란의 아름다움을 증거하여야 할 것이며, 어둠을 가까이 하고 빛을 멀리하면서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전지하신 알라신께서는 본인의 이 글이 모든 다른 글들에 우선하여 선언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본인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이 글은 대 집회에 참석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하는 모든 다른 무리들에게 부끄러움을 줄 만큼 진리와 지혜와 그리고 지식의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나 아라야교인이나 또는 사나탄다암 또는 어떤 다른 것을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 자신의 경전으로부터 이러한 말씀에 비길 수 있는 것을 아무 것도 찾지 못할 것이며 그것은 전능하신 알라신께서 당신의 성스러운 성전의 영광이 그 날에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한 손이 본인의 집 위에 놓여졌고 그 손길에 의해 찬란한 빛이 그 집으로부터 나와 사방으로 빛을 발하였습니다. 그것은 또한 본인의 손을 비추었습니다. 그 때 누군가 본인의 곁에 서서 커다란 음성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알라우 아크바르, 카리밧 카이바르(알라신은 위대하시며 카이바르는 멸하였노라)” 그 참된 해석은, 나의 집으로 하여, 성스러운 코란의 천상의 진리의 빛이 강림하는 나의 가슴을 의미하며, 카이바르로 하여 우상 숭배와 거짓으로 고통 받으며 그 속에서 인간이 일으키워져 알라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또는 그 속에서 알라신의 근본이 그 완전한 자리로부터 내동댕이 쳐진 모든 왜곡된 종교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글을 널리 알림으로써 해서 거짓 종교의 허구를 노출시키고 코란의 진리와 그 클라이 막스에 이를 때까지 이 세상 끝까지 점차적으로 퍼져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본인에게 말씀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통찰로부터, 본인의 마음은 계시를 받아 들이는 쪽으로 움직였으며 그리고 본인은, “알라신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알라신께서 네가 서 있는 곳에 서 계시노라”라고 하는 계시(아

랍어)를 받아 들였습니다. 이는 알라신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전달하는 비유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본인은 더 이상 계속 써 내려 가야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본인은 비록 약간의 불편이 있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라호르의 대 집회에 참석하여 이 진리들을 경청하기를 거듭 간청합니다. 만약 그들이 그리한다면 그들의 이성과 그들의 신앙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 이상의 열매를 얻을 것입니다. 인도를 따르는 자에게 평안이 함께 하소서.

구울람 아하마드

1896년 12월 21일

카디안에서

은혜로우시며 항상 자비로우신 알라신의 이름으로 저희가 당신을 찬양하오며 당신의 고결한 사도 위에 당신의 축복을 내리소서.

● 이 슬 램(ISLAM)

주장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는 제시되어진 책으로부터 설정되어져야 합니다.

대 집회에 초청되어진 자들은 주어진 질문들을 참고로 하여 제각기 믿음의 은혜들을 전파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대 집회의 목적에서 제가 오늘 이슬람의 장점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순조로운 설명을 하기에 앞서, 제가 하는 말은 모두 전능하신 알라신의 말씀이신 성스러운 코란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 자신에게 필수적으로 하였음을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구든지 한 성전을 따르고 또 그것이 제시된 거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성전을 기초로 하여 이야기를 하여야 하며 또한 자신의 신앙을 설명함에 있어서 마치 자신이 새로운 책을

만들어 내듯이 그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스러운 코란의 은혜를 조리 있게 나타내고 또 그 훌륭함을 드러내는 것이 저의 목적이듯이, 어떤 것이든지 코란에 말씀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말하지 아니하며, 그 말씀들에 근거하여 그리고 그 의미와 또 그 의미로부터 추론 되어진 것에 따라서 모든 것을 설명하여 대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들의 교리들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의무인 것입니다. 계시된 어떤 책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제각기 계시 받은 책 속의 의미로 국한시키려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저는, 모든 진실한 전설 (traditions : 성전 밖(經外)의 이야기들)들이 다만 모든 다른 책들을 포괄하는 완전한 성전인 성스러운 코란의 설명에 불과한 만큼 신성하신 선지자의 전설을 조금도 언급하지 않고자 합니다. 간단히 말하여, 오늘은 신성한 코란의 영광을 명시하는 날이며 저는 전능하신 알라신께 제가 이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첫번째 질문

인간의 육체적 도덕적 그리고 영적 상태

이 책의 앞장 몇 페이지에서, 언뜻 보기에 관련이 없을 듯 보이는 어떤 초보적인 문제들을 언급한 바 있으며, 그러나 위에 설정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대로 인식시키기 위하여 그 문제들의 관념을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인간 행동의 세가지 유형

첫번째 문제는 인간의 본능적, 도덕적 그리고 영적 상태에 관련하고 있다. 성전 코란은 이 세가지 상태에 대하여 세 가지의 별개의 근원을 제사하였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러한 세가지의 상태들이 제각기 흘러 나오는 세 곳의 샘을 지적하였다는 말이다.

첫번째 근원, 악에 자극하는 자아

모든 본능적인 상태에서 근원이 되는 첫번째 샘은 성전 코란에서 '나프세암마라(Nafse Ammarah)' 라고 표시되었으며 그 의미는 '악으로 향하는 자아' 라는 뜻이다.

ARABIC EXPRESSION

이 말씀은, 인간을 악한 쪽으로 기울게 하고 완전케 이르지 못하게 하며 또 도덕적 상태를 반대하며 인간으로 하여금 바람직하지 않은 사악한 길로 향하도록 이끄는 것이 인간 자아의 특성으로 나타난다는 의

미이다. 따라서 악으로 향한 성향과 부절제성이 인간이 도덕적 상태로 들어 가기전에 인간의 심성을 지배하는 인간의 상태인 것이다. 인간이 이성과 지식에 의해 인도되어지지 아니하고 다만 마치 동물과 같이 먹고 마시고 잠자고 깨어나고 성내고 그리고 도발함에 있어서 자신의 본능적 성향을 따르는 만큼 이것이 인간의 본능적인 상태인 것이다. 인간이 이성과 지식에 의해 유도 되어지고 자신의 본능적인 상태를 통제하고 적합한 방법으로 절제할 때 그리고 나서 세 단계(육체적, 도덕적, 그리고 영적)들이 본능적 상태들로서 평가되어 질 때에 그 연결 고리를 남기기를 그만 두므로 비로서 도덕적 상태라 불리워 진다.

두번째 근원 : 책망하는 자아

인간의 도덕적 상태의 근원은 성전 코란에서 '나프세 라우와마(Nafse Lawwama)'라고 아래와 같이 표시되어 있다.

ARABIC EXPRESSION

책망하는 자를 증거하도록 내가 부르노라(75 : 3). 이 말씀을 말하자면, 모든 사악함과 부절제성에 대해 그 자신을 책망하는 자아를 증거하도록 내가 부른다는 말이다. 이 책망하는 도덕적 상태가 발생되어 나오는 인간 생태의 두번째 근원인 것이다. 이 단계에서 인간은 동물과 같지 않게 된다. 증거하도록 자아를 부르는 것은, 마치 악으로 향하기 쉬운 자아의 상태를 넘어 책망하는 자아의 상태에 도달함으로써, 하늘의 기준으로 볼 때 명예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처럼, 자아로 하여금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자아는 그것이 사악함에 대하여 인간을 책망하고 그리고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를 따르고 동물과 같이 억제되지 않은 존재를 영위해 가는 인간의 성향에 화합하지 아니하므로 그렇게 불리 운다. 그 자아는, 인간이 선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선한 도덕을 실행하고 어떠한 부류의 부절제도 인간생활의 어떠한 경우에서라

도 보이지 아니하여야 하며 본능적인 감성과 욕구가 이성에 의해 절제되어야 함을 바라고 있다. 그 자아는 모든 사악한 움직임들을 훈계하므로 책망자아라 불리 운다. 비록 악함에 대하여 자신을 훈계하지만, 아직도 그러한 자아는 덕을 실행함에 있어서 완전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간간히 그러한 자아가 비천한 곳으로 떨어질때 본능적인 감성에 의해 지배되기도 한다. 그것은 마치 넘어져 당굴기를 싫어 하지만 튼튼하지 못함으로 하여 그렇게 하게 되고 자신의 허약함을 자책하는 약한 어린애와도 같은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그 자신에 있어서 높은 도덕적 성질을 찾아 내고자 구하며 불복종을 두려워 하지만 완전한 성취를 얻을 수 없을 때 이것이 인간의 도덕적 상태인 것이다.

세번째 근원 : 휴식하는 영혼

인간의 영적 상태의 초기로서 묘사되어야 하는 세번째 근원은 성전 코란에서 '나프세 무트마이나아(Nafse Mutmainah)'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그것은 휴식하는 영혼이라는 말로서 아래와 같이 써여 있다.

ARABIC EXPRESSION

오, 알라신에게서 위안을 찾은 휴식하는 영혼아! 네 주님께로 돌아가라. 네가 그분과 함께 기쁠 것이며, 그분께서 너를 반기시리라. 이제 내 선택된 종들과 함께 나의 낙원으로 들라(89 : 28~31).

이것은 모든 나약함으로부터 벗어나는 인간의 영혼이 영적인 힘으로 채워지고 그것의 존재에 필수적인 구원을 도와주시는 전능하신 알라신과 어떤 관계를 설정하는 단계이다. 높은 곳으로부터 그 자체의 많은 양으로 인해 아무런 장애물도 없이 거대한 힘으로 내쳐 흐르는 물처럼, 꼭 같은 방법으로 휴식하는 영혼은 알라신에게로 흘러 든다. 그것은 알라신에게서 위안을 찾고 자신의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영혼에게 하늘의 지시에 의해 예시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 영혼은 현세에게서 커다란 변

화를 체험하고 그리고 아직도 이 세상에 있을 때 어떤 낙원을 부여 받게 된다. 이 말씀이 자신의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그러한 영혼에 대한 지시 속에서 제시하듯이, 그 영혼은 자신의 주님에 의해 살찌워지며 알라신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자신의 양식이 되며 그 영혼은 이생명의 샘을 마시고 그리하여 죽음으로부터 구원 되어진다.

이것은 성전코란에서 아래와 같이 씌어져 나타나 있는 것이다.

ARABIC EXPRESSION

현세의 욕망으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깨끗이 하는 자는 구원되며 멸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현세의 욕망으로 가득 찬 자는 생명을 구원 받지 못하리라(91 : 10~11).

단적으로 말해서, 이 세가지 상태들은 인간의 본능, 도덕 그리고 영적 상태라고 불리울 수 있다. 본능적 상태는 인간으로 하여금 그들이 일으키워질때 매우 위험한 상태에 처하도록 이끌며 때로는 도덕적 그리고 영적 성향을 파괴하기 때문에 이 상태는 알라신의 성스러우신 책에서 악에 자극하는 자아로서 묘사 되어 있다. 인간의 본능적인 상태에 대한 성전코란의 자세는 무엇이며 그것에 대해 어떤 길을 제시하고 있으며 어떻게 그것을 통제하려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겠다. 그 대답은 성전코란에 따르면, 인간의 본능적 상태는 자신의 도덕적 그리고 영적 상태와 매우 튼튼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그런만큼 심지어 먹고, 마시고 하는 인간의 방법까지도 자신의 도덕적 그리고 영적 상태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만약 인간의 본능적 심성이 하늘의 법도의 규제를 받는다면 그것은, 마치 무엇이건 소금덩어리 산에 떨어지는 것은 소금이 된다고 하였듯이, 자신의 도덕적 상태로 되어지며 자신의 영성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전코란이 육체적 청결성과 자세 그리고 모든 예배와 내적인 순결성 그리고 영적인 고결성에 관계하는 규약을 강조하는 이유인 것이다. 이러한 반응으로써 육체적 상태가 영혼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수 있다. 예를 들어 눈에

눈물이 가득할 때, 비록 그 눈물이 인위적으로 유출되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즉시 영향을 받아 슬픔을 느끼게 된다.

이와 꼭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웃기 시작할 때, 그 웃음이 인위적으로 유출된 것이라 할지라도 마음은 활기를 느끼기 시작한다. 한편 기도를 행함에 있어서의 육체적인 상태들이 영적인 겸손을 유출해 내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역으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깨끗이 하고 목을 세우고 가슴을 앞으로 내밀 때 이 자세는 오만과 헛된 영예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이다. 이러한 예들은 육체적 상태들이 영적인 상태에 확실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경험에서 보면 또한 다른 종류의 음식은 지성과 심성을 다른 방법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자세히 관찰해 보면 육식을 삼가는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용감성이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은 용기를 잃게 되고 그리고 천부적인 바람직한 성향을 잃어 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초식동물이 육식동물과 같은 정도의 용맹성을 갖지 못하는 천부적인 자연의 법칙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난다. 이와같은 원리는 조류에도 적용된다. 그러므로, 도덕이란 음식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역으로 볼 때, 육류를 주로 취하고 채식을 거의하지 않은 자들은 온화하고 겸허한 성향이 적다. 그 중간 정도를 취하는 자들은 양쪽의 도덕적 성질을 모두 갖게 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성전코란에서 전능하신 알라신께서 말씀하신 이유인 것이다.

ARABIC EXPRESSION

먹고 마시되 중용을 잃지 말라(7 : 32) ; 이는 즉, 고기와 다른 음식을 먹되, 너의 도덕적 성향이 약한 영향을 받고 너의 건강에 해로울 만큼 어떤 것이든 과도하게 먹지 말라는 것이다. 영혼이 육체적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듯이, 꼭 같은 방법으로 간혹 영혼이 육체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사람이 슬픔을 경험할 때 그의 눈은 눈물로 젖게 된다. 그리고 사람이 행복할 때는 웃는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잠자는 것, 깨어나는

것, 움직여 다니는 것, 쉬는 것, 그리고 목욕하는 것 등과 같이 우리의 모든 본능적 행위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육체적 구조는 우리의 전반적인 인간성에 본질적으로 관계 되어 있다. 만약 두뇌의 특정 부분이 손상 되었을 경우, 의식을 잃게 된다. 유독한 공기는 육체에 영향을 주게되고 그 결과로 정신과 도덕적인 충격이 관련되어 있는 전반적인 내면의 시스템이 손상되고 이 불행한 피해자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사망하게 된다. 이러한 육체적인 상처는 영혼과 육체사이에서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신비스러운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육신의 모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영혼이란, 외부로부터 잉태된 여인의 자궁 속으로 들어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태아의 발전과 함께 빛나기 시작하는 정자 속에서 상속되어지는 빛인 것이다. 전능하신 알라신의 말씀은 성전 코란에서 말씀 되었듯이, 영혼이란 정자로부터 자궁 속에 잉태 되어진 형체로부터 형성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다.

ARABIC EXPRESSION

그리하여 내가 그것을 하나의 새로운 창조물로 발전케 하나니, 창조주 알라신의 축복이시다(23 : 15). 이것은 자궁 속에 만들어진 육체 위에 한 새로운 창조를 알라신께서 부여 하시어 새로운 피조물이 영혼이라 불리 운다는 의미이다. 실로 지대한 축복이 창조주로서 유일하신 알라신께 있는 것이다.

새로운 창조는 육체로부터 계시된다는 주장은 영혼의 실재를 나타내 주며 영혼과 육체로부터 계시된다는 주장은 영혼의 실재를 나타내주며 영혼과 육체와의 강한 유대를 나타내는 하나의 신비로운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육체적인 행동과 말들이 알라신의 이름으로 계시되어 나타날 때 그러한 것들을 똑같은 원리에 따라 중요시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모든 진실된 마치 정자가 영혼에 의해 체

워진다. 그러한 행위들의 구조가 완전해 짐에 따라 채워지는 영혼은 빛 나기 시작하며 그러한 구조가 완전해 짐에 따라 그 속에 내재하는 영혼도 완전하게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즉, 행위의 구조가 완성됨에 따라 어떠한 것이 마치 번개처럼 나타난다. 이것이 코란에서 전능하신 알라신께서 말씀하신 단계인 것이다.

ARABIC EXPRESSION

내가 인간의 형상을 완전케 하고 인간의 영광스런 계시들을 분명케 하고 그리고 그 속에 나의 영혼을 불어 넣었나니, 너희 모두는 그리하여 엎드려 절하라(15 : 30). 이 말씀은 행동의 틀이 완전히 되었을 때 한 영혼이 그 속에서 빛을 발하며, 그 행동의 틀이 현세의 생명을 댓가로 완전케 된만큼 알라신께서 그 빛을 스스로 감당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리하여 처음에는 희미했던 알라신의 빛이 갑자기 앞으로 비추며, 이러한 알라신의 계시를 바라보며 모든 이들이 엎드려 그곳에 가까이 하고자 하게 되며 그 빛에 이끌려 지게 된다. 그 빛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엎드려 절하며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빛에 이끌려지지만, 어둠을 사랑하는 이블리스[IBLIS : 사탄(devil)]은 그렇지 않다.

영혼이 창조됨

영혼이 육체 내에서 발전하여 자궁에서 발전하는 가느다란 미세한 빛 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처음에는 숨겨져서 감지할 수 없지만 나중에는 분명하게 된다. 시작에서부터 그 본질은 정자 속에 존재한다. 그것은 알라신의 계획과 명령과 의지로 신비스러운 과정에 의해 정자와 관계하게 된다. 그것은 밝고 환한 정자의 상태이다. 마치 물질이 물질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것처럼, 영혼도 정자의 일부분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어떤 다른 곳으로부터 왔다거나 또는 어느 날 갑자기 지상으로 내려와서 정자의 핵심과 혼합되어 진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마치 불이 부싯돌에 잠재하는 것처럼 영혼도 정자속에 잠재할 따름이다. 알라신의 말씀

은 영혼이 각각의 성질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거나 대기로 부터 지상으로 떨어져 우연히 자궁 속으로 들어 간다는 것이 아니며, 그러한 말은 근거가 없다. 자연의 법칙은 그러한 것을 거부한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벌레들이 불순하고 썩은 음식을 오염시키며 치유되지 않은 상처 속에서 생성되는 것을 목격한다. 지저분한 천조각에는 수백 마리의 이가 기생하고 있으며 모든 종류의 벌레들이 인간의 뱃속에서 발생한다. 이 모든 것들이 외부로부터 온다거나 또는 하늘로부터 내려 온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사실 영혼이 육체 속에서 발전하는 것이며 그리하여 이것은 또한 영혼이 창조되어지는 것이며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영혼의 두번째 탄생

완전한 권능으로써 육체로 부터 창조하신 알라신의 계획은 영혼의 두번째 탄생을 육체 내에서 생겨 나야 한다고 하는 의미로 보인다. 영혼의 움직임은 육체의 움직임에 따른다. 육체가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리워 진다면 영혼이 자동적으로 거기에 따른다는 말이다. 따라서 그 자체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상태로 향하게 하는 것이 알라신의 책의 기능중에 하나인 것이다. 그러한 것이 성전코란에서 인간의 자연스런 상태를 개조시키는 것과 모든 사람의 행위 즉 그의 웃는 일, 우는, 먹는 일, 입는 일, 자는 일, 말하는 일, 정숙하게 하는 일, 결혼하는 일, 독신자로 남는 일, 견거나 서거나, 또 밖으론 청결한 일, 목욕하는 일, 병과 건강에 대비한 훈련을 감수하는 것 등등의 행위에 대한 방향 설정을 두는 이유가 된다. 그것은 인간의 육체적 상태가 정신적 상태에 깊이 영향을 준다는 것을 나타낸다. 시간이 충분치 못하므로 그러한 지시에 대한 내용은 다시 자세히 이야기하겠다.

인간의 점진적 발달

알라신의 성스러운 말씀을 곰곰히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상태를 변화시키는 규정을 정하여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마침내 가장 영적인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먼저 알라신은 인간에게 앉기, 서기, 먹기, 마시기, 이야기하기 등과 같은 사회적 행위에 대한 법칙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며 원시 상태에서 벗어나 동물과 구별되고 따라서 인간에게 사회적 문화라고 일컫는 도덕적 상태를 부여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나서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 관습을 조절하여 인간이 높은 도덕적 상태를 가지기를 원하신다. 이러한 방법들은 인간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같은 과정의 부분이다. 그 사이에는 단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전지하신 그 분은 그러한 도덕적 체계를 마련하여 인간이 낮은 도덕적 상태에서 높은 도덕적 상태로 상승할 수 있게끔 하셨다. 발달의 세번째 단계는 인간이 그의 참된 창조자의 사랑과 기쁨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다. 그의 모든 존재는 알라신께 바쳐진 것이어야 한다. 무슬림들에게 이러한 단계를 상기시키기 위해 그들의 종교를 이슬람(Islam)이라고 이름 붙여졌다. 이것은 자신을 완전히 신에게 바쳐 아무 것도 주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영광스러운 알라신이 말씀하셨다.

ARABIC EXPRESSION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완전히 알라신에게 의탁하여 알라신의 이름 아래 그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바쳐야 하며 동기뿐만 아니라 올바른 행위로 그의 참됨을 증거해야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스로 알라신께 완전히 복종하고 또 선을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의 주님으로부터 보상이 있을 것이며, 아무런 두려움도 슬픔도 갖지 아니 하리라(2 : 113).

그들에게 말하길, 나의 알라신을 위하심이라.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시며 내가 그의 말씀을 들었으며, 내가 제일 먼저 복종하는 자이니라(6 : 163~164) 이것이 나의 올바른 길이니 그것을 따르라. 그분의 길이 아닌 곳으로 어떠한 길도 따르지 말라(6 : 154).

그들에게 말하길, 내가 만일 알라신을 사랑하거든 나를 따라 나의 길을 함께 가서 알라신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너의 죄를 용서하시도록 하라. 알라신께서는 가장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니라(3 : 32).

본능적 상태와 도덕적 상태간의 구분과 생명 보존 원칙에 대한 토의

이제 인간의 세가지 단계를 기술하겠다. 그전에 '전능하신 알라신의 성스러운 말씀'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인간의 본능적 상태 즉 악을 유도하는 자아의 원천적 상태는 도덕적 상태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알라신의 성스러운 말씀'에서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능력과 욕망 그리고 주장을 본능적 상태로 구분해 놓고 있다. 이것들은 의식적으로 조절되고 통제되어 적당한 순간에 행위로 변하게 됨에 따라 도덕적 상태로 인도되어진다. 마찬가지로, 도덕적 상태는 영적인 상태와 완전히 구분되어지지 않는다. 도덕적 상태가 알라신에 대한 절대적 헌신과 자신의 완전한 정화(淨化)와 세상으로 부터의 떨어짐으로 발전할때, 알라신에게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헌신, 넘치는 평온과 만족의 모든것을 돌려 알라신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질때 그들은 영적 상태가 될것이다. 인간의 본능적 상태가 도덕적 상태로 바뀌어 지지 않는 한 인간은 다른 영물이나 고체물 속에서 보는 것 만큼 찬양할 가치도 없게 된다. 이런 식으로 도덕적인 상태를 단순히 가진다고 해서 사람에게 영적인 생명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알라신의 존재를 거부하는 사람도 훌륭한 도덕적 품성을 나타낼 수 있게 되어 겸손해지고 평화를 구하며 악을 버리고 악의 끈들에 참지 아니한다. 이러한 것들은 구원의 핵심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그러한 핵심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을 즐기지 못하는 가치 없는 사람에 의해서도 소유 될 수 있는 본능적 상태이다. 많은 동물들은 마치 신사와 같은 습성이 있어 평화로우며 그래서 책망에 대해 심하게 반응하지 않지만 그들을 인간이라고 부를 수는 없으며 더욱이 높은 지체를 가진 사람이라고 결코 이야기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잘못 인도

되어서 악에 의해 고통 받는 사람도 이러한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상처에 모여드는 병균을 죽이지 못하는 상태까지 자신의 자비를 발전 시킬 수 있으며 머리 속의 이나 복부와 혈관 그리고 머리 속의 병균을 살려 줄 만큼 사려 깊게 될 수도 있다. 꿀벌을 벌집에서부터 쫓아 내어야만 얻을 수 있는 벌꿀을 먹지 않을 정도로 인간의 자비가 발전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녹용도 불쌍한 동물을 살해하여 새끼를 고아로 만들어야 얻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믿는다. 진주나 실크도 벌레를 죽여 얻어지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고통 받는 인간이 거머리에 물려 피를 흘리면서도 불쌍한 거머리를 죽이는 대신 스스로 고통을 받길 원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 또한 자비심으로서 물속의 생명체를 살리기 위해서 물을 마실 수도 있다고 믿는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인정하지만, 이러한 본능적인 상태가 도덕적인 상태이거나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창조성을 방해하는 내부의 불순물을 씻어 내는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가 없다. 동물과 새들이 인간보다 더 많은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해서 인간보다 우월하고 높은 인간애를 가졌다고 받아 들일수 없다. 나는 자연의 법칙에 반대되며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높은 도덕적 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이러한 자세를 생각해 본다. 그것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축복을 거부하는 것이다. 모든 도덕적 상태를 제대로 제때에 사용하고 하나님의 길을 충분히 따르며 그분께로 완전히 의지함으로써 영생이 얻어지게 된다. 참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는 사람에게에는 그분의 존재는 필수적인 것이다.

하나님을 실제로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희생되는 한마리의 물고기와 같으며 그물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감화의 세가지 방법 :

가장 필요한 시기에서의 성스러운 선지자의 강림

내가 이야기 했듯이, 인간의 상태에는 흐르는 세가지 샘물이 있는데

그것은 악에 자극하는 자아, 책망하는 자아 그리고 안식하는 자이다. 또한 세가지 감화 방법이 있다. 첫째는 물지각한 원시인들에게 먹기, 마시기, 결혼 등에 속한 기본적 사회가치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별거벗어서도 안되며 개와 같이 썩은 고기를 먹어서도 안되며, 난폭한 짓을 해서도 안된다. 이것은 받아 들여져야만 하는 자연 상태의 변화에 대한 초보적 단계인데, 예를 들어 야만인들에게 기본적인 행동방법인 포트블레아(Port Blair : <Fr>외관적 자세)을 가르치는 것이다. 감화의 두번째 방법은 인간이 기본적 방법을 받아 들였을때, 더 높은 도덕적 상태를 가르쳐 그 능력을 제대로 제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감화의 세번째 방법은 높은 도덕적 상태를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와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 맛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주이시며, 주인이신 성스러운 선지자이시며 세상이 부패됐을 때 일으켜졌던 평화와 알라신의 축복이 그와 함께 하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였다.

ARABIC EXPRESSION

부패가 땅과 바다에 그어져 있다(30 : 42). 이것은 계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물론 그 책을 받아 들인 사람이 모두 부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전 코란의 목적은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ARABIC EXPRESSION

알라신은 죽음 후에 지상에 부활할 것이다(57 : 18). 그대에 아라비아 사람들은 야만적인 생활에 몰두했다. 사회적인 형태는 없어지게 되고 죄와 악행을 자랑하였다. 한 사람이 수없이 많은 여자와 결혼하게 되고 그들은 모두 법에 어긋나는 일에 탐닉하게 되었다. 그들은 어머니와 결혼하는 것을 적법한 것이라 여겼는데 여기에 대해 알라신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ARABIC EXPRESSION

너의 어머니는 네게 합당치 아니하노라(4:24). 그들은 썩은 고기를 먹고 그들 중 몇몇은 식인종이 되기도 했다. 그들은 죄책감이 없었기에 죄를 몰랐다. 그들중 대부분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지 않았다. 그들중 대부분은 알라신의 존재를 부인했다. 그들 손으로 여자아기를 죽이며 고아를 죽이고 그들의 물건을 탐했다.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이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예절도 없고 수치도 모르며 자존심도 없었다. 술마시기를 좋아했다. 그들 중 무차별하게 간음에 열중하는 자는 종족의 우두머리가 됐다. 그들은 너무나 무식하여 그들의 이웃이 무식한 사람이라고 불렀다. 그때에는 그러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알라신의 평화와 축복을 받은 성스러운 예언자가 메카(알라신의 성지)에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했던 세 가지 유형의 감화를 요구하는 때였다. 그것은 성전코란이 다른 성전보다 더욱 완벽하고 그 세가지 유형의 감화를 잘 실행해 나갈 수 있게 하는 만큼 우리로 하여금 더욱 완벽해지게 하는 이유가 된다. 성전코란의 목적은 원시 상태에서 인간상태로 이끌어 인간들로 하여금 도덕적 품성을 갖게 해서 알라신의 인간이 되는 수준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성전코란은 그러한 세가지 계획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성전코란의 가르침이 가지는 진정한 목적은 세가지 상태의 감화이다. 즉 규제에 의하여 본능적 상태는 도덕적 상태가 된다.

내가 방금 이야기한 세 단계의 감화를 자세하게 설명하기 전에 강제로 부과되는 성전코란의 가르침은 없다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성전코란의 모든 목적은 세가지의 감화이며 그 가르침은 그러한 목적을 위한 것이다. 다른 모든 방침들은 그러한 변화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다. 환자를 평상시와 같이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의사가 수술을 하거나 고약을 바르는 것처럼 성전코란의 가르침도 인류에 대한 동정심으로부터 그러한 수단에 의지하고 있다. 그안의 모든 관념과 충고 및 가르침의 목적은 인간을 원시적인 본능적인 상태로 승화시켜 무한한 영생의

바다로 이끄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본능적 상태는 도덕적인 상태로부
 터 별개가 아니라고 이야기 한 바있다. 그러한 상태가 적절하게 조정되
 어 적절히 사용된다면 이성의 가르침속에 도덕적 특성을 가질수 있다.
 그러한 상태가 이성과 이해에 의해 조절되기 전에는 도덕적 특성을 지
 니지는 못하지만 아마도 정말로 많이 도덕적 성질을 닮은 것이 본능적
 인 충동일 것이다. 예를 들어, 개나 양이 주인에 대해 애정이나 순종을
 표현한다 하더라도 도덕적이라거나 훌륭한 예절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여우나 호랑이가 난폭하다는 이유만으로 예절이
 형편없다고는 이야기 할 수 없다. 도덕적인 상태는 시간과 경우에 대한
 사색과 고려가 먼저 있는 후 나타나게 된다. 이성과 사색을 하지 못하
 는 사람은 마음과 지성이 이성에 의해 지배 받지 못하는 아기 혹은 이
 성과 통찰력을 잃은 정신병자와 같게 된다. 아기와 정신병자는 때때로
 도덕적 행위를 닮은 방식으로 행동하지만 그러한 행위가 훌륭한 감성과
 적절함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상황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될 수는 있다. 인간의 자
 식들은 태어나자 마자 어머니의 가슴을 찾으며 병아리는 부화되자마자
 옥수수 콩을 चु읍는다. 마찬가지로 거머리 새끼는 거머리처럼 행동하고
 뱀새끼는 뱀처럼, 호랑이 새끼는 호라이처럼 행동한다. 인간의 자식들은
 태어나자 마자 인간의 반응을 나타내기 시작하며 그러한 반응은 성장할
 수록 현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울음 소리는 더욱 커지고 미소는 웃음
 으로 바뀐다. 그리고 시선은 더욱 집중된다. 1년이나 18개월쯤되어서는
 또 다른 본능적인 특징을 발전시켜 행동을 통하여 기쁨과 불만을 나타
 내기 시작한다. 그리고 누구를 때리기도 하며 누구에게 무언가를 주기도
 한다. 이러한 모든 동작은 자연스러운 충동이다. 이와같이 인간의 감
 성이 적은 원시인들은 말과 행동과 자연스러운 충동을 나타내며 자연스
 러운 감정에 의해 지배되며, 내부의 역량을 과시함으로써 어떠한 것도 발
 전하지 못한다. 외부의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서 본능적인 충동을 사용
 함으로써 내부로부터 솟아 오르는 것은 모두 다 분명하게 나타나다. 의

부의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본능적인 충동은 모두가 나쁜 것이 아니며 몇몇 충동은 훌륭한 도덕성과 유사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충동은 대개 이성적인 사고와 사려의 결과에 의한 것이 아니며 본능적인 충동을 다스렸다고 생각될지라도 그것은 이성적인 사고와 사려의 결과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된 도덕

간략하게 이야기 한다면, 우리는 참된 도덕을 동물이나 아기 혹은 미친 사람 그리고 다소 동물과 같은 사람들과 같이 본능적인 충동에 굴복하는 사람에게 참된 도덕이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없다. 참된 도덕의 시간은 좇던 나쁘던 인간의 이성이 성숙해져서 선악을 구별하고 정도를 구분하며 선행을 할 기회를 잃은 것에 대해 아쉬워 할 줄 알고 나쁜짓을 했을때 슬퍼할 줄 아는 때이다. 이것이 바로 성전코란에 의해 규정된 두번째 단계의 삶이다. 하지만 단순한 충고는 원시인을 질책하는 단계로 이끌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아무런 목적없이 자기가 태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은 정도까지 알라신의 존재를 자각해야만 되며 그리하여 신성을 이해하여 자신의 참된 도덕적 품성을 자극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알라신이 신성을이해할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모든 행위와 도덕이 이 세상에서 영적인 안식 또는 고통을 주게 된다는 것을 인간에게 확신시켜 준 이유가 된다. 또한 그것은 나중에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줄여 말해서 회개의 단계에서는 인간은 풍부한 이성과 이해와 양심을 부여받게 되어 자신이 행한 잘못을 뉘우치고 좋은 일을 하고 싶어 하게 된다. 이러한 것이 인간이 높은 품성을 얻게 되는 단계이다.

창조(Khalq)와 도덕(Khulq)의 차이

창조(Khalq)는 육체적 탄생을 도덕(Khulq)은 내부적 탄생을 의미한다.

내부적 탄생은 도덕적 발전을 통해 완성되며 단지 본능적인 충동에 의해 완성되지 않게 때문에 도덕(Khulq)은 도덕적 품성만을 의미하며, 본능적인 충동을 의미하지 않는다. 도덕은 단지 온순, 예절, 겸손을 의미한다는 일반적인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할 필요가 있다. 사실 모든 육체적 행위에 따라 도덕적인 내부적 특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눈물을 흘릴때 이성의 통재하에서는 올바른 경우에만 사용되는 도덕성 특성을 가지는 '유연성' 이라 불리는 내부적 상태가 그러한 경우에 부합하여 존재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사람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방어하게 되며 그의 행위에 따라 용맹이라 불리는 내부적 특성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이 제대로, 제때 사용될때 도덕적 특성이라 불리운다. 이와 유사하게 어떠한 사람은 군주의 압박으로부터 고통 받는 사람을 구하는데 노력을 바치고 혹은 가난하고 굶주린 자에게 식량을 가져다 주기를 원하며 다른 방식으로라도 이웃을 도와주려 하게 되며 그러한 행위에 따라 자비라 불리우는 내부적 특성이 존재하게 된다.

때때로 어떤 사람은 죄인을 벌하며 그러한 행위에 따라 '응보' 라는 내부적 특성이 존재하게 된다. 때때로 어떤 사람은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죄인에 대하여 인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인내라고 불리우는 내부적 특성이 존재하게 된다. 때때로 어떤 사람은 손과 발을 사용해서 일하거나 이웃을 위해서 마음과 지성을 부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때에는 '자비'라는 내부적 특성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이러한 모든 특성을 올바르게 제때 사용한다면 이러한 특성은 도덕적 특성이라 불리울 것이다. 영광스러운 알라신이 성스러운 선지자와 평화 그리고 축복이 그에게 주어지리라 이야기 하였다.

ARABIC EXPRESSION

너희들은 참으로 뛰어난게 높은 도덕성을 가졌노라(68 : 5). 이것은 자비, 용기, 정의, 관용, 축복, 성실, 높은 인간성과 같은 높은 도덕적 특성

이 성스러운 예언자의 이름을 가진 자에게 결합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줄여 말하면 정직, 겸손, 성실, 선행, 질투, 견고, 순결, 경건, 평등, 동정, 용기, 관대, 관용, 인내, 박애, 진실, 충성심 등과 같은 인간의 본능적 특성이 이성과 사고의 지도 아래 적절히 나타날 경우 모두 도덕적 특성이라 할 수가 있다. 실제로 그것들은 인간의 본능적인 상태와 충동이며 적절히 사려 깊게 행해졌을 때는 도덕적 특성이라 한다. 인간의 본능적인 특성은 진보를 원하는데 있으며 따라서 참된 종교를 따르고 좋은 친구를 사귀며 훌륭한 가르침과 부합함으로써 인간은 본능적인 충동에서 도덕적인 상태로 탈바꿈한다. 어떠한 다른 동물도 인간이 갖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인간의 본능적 상태

이제 성전코란에서 주입된 세가지 계획 중 첫번째 것을 다룰 것이며 이것이 인간의 본능적인 상태와 관련이 있다. 이 변화는 훌륭한 예결과 관계하는데 즉 먹기, 마시기, 결혼 등과 같은 원시인들의 본능적인 상태를 규정하고 그들로 하여금 사회적 가치단계에 이르도록 하여 동물적인 존재로부터 규제하는 조항이다. 성전코란에서 다음의 내용을 이야기 하고 있다.

ARABIC EXPRESSION

너희가 혼인해서는 아니 되는 여인들은 너희의 모친들과 너희의 딸들, 너희 누이의 딸들, 너희에게 젖을 물린 유모, 너의 모친들과 유모들, 그리고 너희의 처들에 의해 너희가 보호자가 되는 양녀이나 너희가 그들의 보호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들이 너희에게 죄가 되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네가 낳은 아들의 처들이 그들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미 지나가 버린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 자매와 함께 혼인해서는 아니되노라. 정녕코 알라신께서는 가장 관대하시며 항상 자비로우시니라(4 : 24). 너희가

여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들로부터 유산을 받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니라(4 : 20). 너의 아버지가 결혼하였던 여자와 결혼하는 경우는 그것이 과거에 일어났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을 어기는 것이니라. 너에게 합당한 여인은 정숙하고 신앙심 있는 여자이며 네가 지참금을 줄 때나 결혼 서약서를 작성할 때 네 앞에서 성전을 받은 자 중 정숙한 여자이며 간통하지 않고 몰래 간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여자이어야 하니라(5 : 6). 무지한 시대에 아이가 없는 아랍의 몇몇 족속들은 매우 유치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아내가 애기를 가질 목적으로 다른 남자와 동침하는 것을 허락하였었다. 성전 코란은 이러한 관습을 금하고 있다. 정부를 몰래 가진다는 표현은 이러한 관습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한다. 너 자신을 망치지 말라(4 : 30). 너의 후손을 살해하지 말라(6 : 152). 네가 허락을 받을 때까지 야만인처럼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지 마라. 허락을 받고 들어갈 때는 주인에게 평화의 인사를 하라. 그 집에 아무도 없거든 허락을 받을 때 까지 들어가지 말라. 그 집의 주인이 돌아가라 하면 그렇게 할지어다(24 : 28~29). 그 집의 담을 넘어서 들어가지 마라. 문을 통해 들어가라 (2 : 190). 네가 인사를 받으면 더 좋은 인사를 하여라 (4 : 87). 술, 도박, 우상과 점술은 금기이며 사탄의 도구이다. 그러므로 그것부터 멀리하여라(5 : 91). 너희에게 금지된 것은 스스로 죽은 동물의 살과 돼지의 피와 살, 그리고 알라알라신 이외의 다른 자의 이름에 의하여 죽은 것들과 교살된 것, 타살된 것, 그리고 떨어져 죽은 것, 빨에 찢려 죽은 것, 야생동물이 먹은 것 들이니라. 다만 너희는 합당하게 죽인 것과 제물로서 죽인 것을 취하라(5 : 4). 만약 그들이 너에게 무엇이 합당한가 하고 물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라. 좋은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합당하다(5 : 5). 찢은 고기나 찢어 보이는 것이나 더러운 것은 금하라. 모임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부탁 받았을 때에는 그들이 앉을 수 있도록 서둘러 자리를 마련해 주어라. 그리고서 서 달라고 부탁 받았을 때에는 지체하지 말고 일어서라(58 : 12).고기, 야채, 콩과 같은 합당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먹어라.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과식하지 말라(7 : 32). 함부로 이야기 하지 말고 조리 있게 이야기 하라(33 : 71). 옷을 청결히 하고 너의 몸과 거리와 내가 앉은 장소를 깨끗이 하라. 목욕을 자주하고 너의 집을 깨끗하고 단정하게 하는 버릇을 길러라(74 : 5~6). 너의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고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큰소리로 이야기 하지도 말고 속삭이지도 마라. 적당한 보폭으로 걸으며 너무 빨리도 천천히도 걷지 마라(31 : 20). 여행 갈 때에는 모든 준비를 하고 필요한 식량을 가지고 가라. 그리하여 구걸하지 않도록 하라(2 : 198). 배우자와 동침을 할 때에는 목욕을 해서 청결하게 하라(5 : 7). 식사할 때는 음식을 부탁하는 자는 물론 개나 다른 동물 그리고 새에게도 음식을 주어라. 네가 보살피는 고아소녀와 결혼 하는 것은 적법한 것이다. 하지만 네가 그 소녀가 고아이기 때문에 공정치 못하게 다룬다면 부모가 있고 보살펴줄 친척이 있다면 너를 존경하고 네가 좋아하는 여자와 결혼하라. 네가 두서너 명의 여자를 똑같이 잘 해줄 수 있다면 그들 모두와 결혼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 모두를 똑같이 대해 줄 수 없다면 한 사람으로는 부하다 생각할지라도 한 사람과 결혼하라. 너의 관습에 따라 불법적인 탐닉에 빠지는 경향을 금하기 위해 수백 명에 달하는 수 많은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여 네 명으로 제한되어 있다(4 : 4~5). 이것은 인간을 본능적인 상태와 원시적인 방법에서부터 문명화된 사회적 존재의 위치로 승화시키는 성전코란의 첫 번째 변화이다. 그것들은 단지 기본적인 인간 행위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가르침은, 알라신의 평화 축복을 받으시는 성스러운 선지자께서 변화를 필요로 사람들이 매우 극심한 원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며 이러한 사람들은 사회적 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법칙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왜 돼지고기는 금지되어 있는가

이 내용에서 주지할 한가지 문제는 이동물의 이름 속에서 알라신께서

그 고기를 금하는 이유를 나타내셨다. 돼지에 대한 아랍 말은 킨지어(khinzeer) 인데 이것은 칸즈(khanz)와 아라(Ara)의 합성어로서 더러운 것으로 생각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이 동물에게 알라신께서 주 알라신이름은 더럽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힌디어에서 동물이 수아르(Suar) 즉 수(Su)와 아라(Ara)의 합성어로서, 더러운 것으로 생각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흥미있는 일치이다. 아랍글자 수(Su)가 힌디어로 들어 갔다 해도 놀랄 만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책 미나누르 라하만(Minanur Rahman)에서 아랍어가 모든 언어의 본체이며 많은 아랍글자가. 모든 언어에서 발견된다. 그러므로 수(Su)는 아랍말이며 힌디어에서 나쁘다는 의미로 불리워 지기도 한다. 아랍말이 세계적인 언어가 되었을 때 이 동물이 키지어(Khinzeer) 와 동일한 아랍 이름에 의해 이 나라에 알려지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계속 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산스크리트어에서 이 말은 몇 가지 변형을 거쳤겠지만 그 본래의 말은 제 뜻을 나타내는 키지어(Khinzeer)이다. 이 동물의 불결함을 더 자세하게 말할 필요는 없겠다. 이동물이 더러운 것을 먹고도 완전히 수치를 모르는 동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 고기를 금하는 이유는 자연의 법칙에 의한 것처럼, 그 고기가 먹는 사람의 영육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미 예증을 했듯이 음식은 사람의 영혼에 영향을 주며 그러한 더러운 동물의 고기 또한 더럽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슬람 성전의 시대에도 그리스의 의사들은 이 동물의 고기가 특히 중용의 미덕을 해치고 무지를 낳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썩은 고기를 먹는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 이슬람 규율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즉 그것은 도덕적 특성에 나쁜 영향을 주며 육체적 건강에도 해를 끼친다. 목매달았거나 맞아 죽은 동물의 피는 죽은 동물의 몸 안에 남아있게 되어 썩게 된다. 그러한 동물의 피는 곧 썩어서 모든 고기를 부패시킨다는 것은 명백하다.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그러한 핏속의 생명체가 죽은 동물의 몸에 유독한 부패를 퍼뜨린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인간의 도덕적 상태

성전코란의 가르침 가운데 두 번째 부분은 도덕적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본능적인 상태를 조절하는 것이다. 이것은 방대한 주제이다. 우리가 자세히 이야기한다면 이 논문은 너무나 길어서 그 10분의 1도 주어진 시간 내에 읽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예증을 통해 몇 가지 도덕적 상태를 설명하는데 그쳐야만 된다.

도덕적 특성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사람으로 하여금 악을 버리게 해주는 도덕적 특성, 둘째로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으로 이끄는 도덕적 특성이다. 악을 버리는 것은 혀나 손으로 눈 혹은, 다른 기관을 통해 친구의 본성, 영광 혹은 삶에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거나 해를 끼치려고 계획하지 않은 사람이 가진 특성을 포함한다. 선을 행하는 것은 혀나 손이나 지식 혹은 다른 수단을 써서 친구의 본성이나 영광에 있어 이익을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친구의 영광과 기쁨을 드러내고 본인에게 해를 끼쳐도 용서하여 육체적인 고통이나 재정적인 강요를 같이 부담하여 잘못된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거나 잘못된 사람이 실제로 책임이 있는데도 질책을 감내하는 자의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

악을 버리는데 관련된 도덕적 성질

악을 버리는데 있어서 알아신께서 지정하신 도덕적 특성은, 모든 인간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도덕에 있어서 특별한 아랍어의 네 가지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도덕적 특성들 중 첫째는 잇싼(IHSAN) 즉, 순결이라 불리 운다. 이 표현은 남자와 여자의 생식과 관련이 있다. 남자와 여자는 모두 부정한 성 관계를 멀리하고 다음 세상에서 징벌을 받지 않도록 불명예와 수치와 심각한 해를 가져다 주는 성 관계를 멀리하고

계속해서 순결해지는 남자와 여자를 우리는 순결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사람이 간음은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단계에 있어서 다른 남자의 아내에게 접근하는 잘못을 저지른다면 그 아내의 자존심 강한 남편이 그러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였던 아내와 이혼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가 될 것이다. 그녀의 아이들은 불쌍해서 고통 받을 것은 물론이다. 그 남편은 악한자의 소행으로 인해 이 모든 피해를 감내하여야 할 것이다. 순결의 도덕적 특성은 이러한 악덕을 가진 사람이 그러한 악에 탐닉하는 것을 그만둘 때 그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한 능력이 없다면 즉, 너무 어리거나 무기력하거나 거세가 되었거나 너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상실했다면, 순결의 도덕적 특성을 그에게 부여할 수가 없다. 그 사람은 순결의 본능적 특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여러 번 지적했듯이 본능적인 상태는 도덕적 특성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것이 실행되거나 적절한 때에 이성의 힘을 빌어 실행 될 수만 있다면 도덕적 특성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이가 적거나 무기력하거나 성적인 능력이 결핍된 사람은 그들이 분명 순결한 삶을 여위하고는 있다. 모든 경우에서 그들의 순결은 본능적인 상태일 것이다. 이러한 악덕과 그 전 단계는 단지 남자와 여자에 의해 실행되어지기 때문에 알라신의 성스러운 경전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에게 지시하고 있다. 말씀하시기를,

ARABIC EXPRESSION

신앙이 있는 남자가 여성에게 성적으로 자극되어 공공연히 금지되어진 수준이상으로 여성에게 남성의 눈길을 주는 것을 제한하라고 지시한다. 그들은 그들의 감각을 가꾸어야 한다. 예를 들면 금지된 수준을 넘어 여자의 노래소리나 껌에 귀 기울이거나 그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것에 귀 기울여서는 안된다. 이것은 그들의 외모와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다. 마찬가지로 금지된 수준을 넘어 남자를 보는 것을 신앙이 있는 여자는 금해야 할 것이며 남자의 정열적인 음성도 귀

기울여서는 안된다. 그들은 아름다움을 감추고 금지된 수준을 넘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들어내서는 안된다. 가슴을 숨기고 두건을 쓰고 머리와 함께 귀나 관자놀이도 숨겨야 한다. 무희들처럼 땅을 쳐서도 안된다. 이러한 것들이 도덕적 실족을 방지하는 방법이다(24 : 31~32). 두 번째 방법은 전능하신 알라신께 의지하여 실족과 실수로부터 보호 받도록 간청하는 것이다. 또 다른 가르침으로서 간음을 멀리하라(17 : 33). 이것은 그러한 방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자극하는 모든 경우를 피하고 이러한 악덕에 빠진 사람은 극도로 사악해진다. 간음은 목표로 나아가는 사람을 방해하는 사악한 길이며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을 방해한다. 결혼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수단을 채택하여 순결한 채로 남아 있어야 한다(24 : 34). 예를 들어 단식이나 다이어트 혹은 운동 등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 사람들은 때때로 독신을 택하거나 거세하여 승려 직을 택한다. 알라신은 승려 직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며 바로 이것이 그러한 것을 채택하는 사람들이 그 원리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 준다(57 : 28). 이것은 독신과 승려주의가 신성에 의한 것이라면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원칙을 받아 들여야 하며 그러한 경우 인류는 벌써 종말을 맞았을 것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순결이 거세를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유지된다면 그것은 이러한 능력을 인간에게 부여하신 신성을 비판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덕은 적절히 그러한 능력을 행사하는 것을 신을 두려워 하는 마음에서 자제하여 적절히 행사하여 이익을 배가 시키는 것이다. 그런 능력을 없애므로 하여 그 사람은 두 가지 이익을 잃게 될 것이다. 미덕은 그러한 능력을 소유하고 그것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다. 그런 능력을 잃고 어린 아이와 같이 된다면 그 사람은 무엇을 얻게 되는 것인가? 어린아이가 그 순결함으로 인해 그러한 미덕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가?

부정에 대한 다섯가지 치유방법

이 시행에서 전능하신 알라신은 순결의 특성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순결을 잃지 않는 다섯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셨다. 이것은 금지된 범위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눈을 돌리며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이러한 악행을 유발시키는 경우를 피하고 단식과 다이어트를 통해 독신의 기간동안 자신을 조절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훌륭한 가르침이 성전코란에 지시된 그러한 방법과 함께 확실히 이슬람의 특징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제시된 그러한 방법과 함께 확실히 이슬람의 특징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감정의 원천인 인간의 본능적 상태는 자신을 완전히 변화시키지 않는 한 그것으로부터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의 감정은 자극될 수 밖에 없는데, 다시 말해서 이러한 악행에 빠지게 되는 경우에 직면해서는 위험 속에 빠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전능하신 알라신께서는 금지된 범위를 벗어나 마음대로 여자를 쳐다보거나 그 아름다움을 생각하고 춤과 같은 모든 울동을 바라 볼 수는 있도록 하셨다. 또한 우리는 그러한 여자의 노래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되며 그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에든 귀를 기울여서는 안되지만 순수한 의도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순수한 동기던 그렇지 않던 그 아름다움을 보아서는 절대 안된다고 명령을 받았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치 썩은 고기를 피하듯이 모든 것을 피하여 실족하지 않도록 가르침을 받아 왔다. 우리가 자유롭게 쳐다보는 것은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전능하신 알라신께서 우리의 눈과 마음과 수족과 몸의 기관들이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훌륭한 가르침을 주셨다. 자제하지 않는 모습은 위협의 근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우리가 만약 굶주린 개 앞에 부드러운 빵을 갖다 놓는다면 개가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으며 또 그러한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알라신은 인간으로 하여금 은밀한 기능을 할 기회를 주어 위험한 경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모든 것을 자초하지 아니하기

를 원하신다. 이것은 베일의 착용을 규정하는 이슬람의 율법을 나타내는 철학이다. 알라신의 책은 여자를 죄인처럼 고립시키려 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슬람 방식의 정확한 방식에 정통하지 않은 사람들의 선입견이다. 이러한 규제의 목적은 남자와 여자가 마음대로 돌아 다니면서 서로 아름다움을 뽐내는 것을 막는데 있으며, 그것은 그러한 아름다움 속에 남자와 여자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외모를 숨기고 단지 허락되는 것을 준수하도록 인도하는 것은 아랍어의 갖데 바싸르(Ghadde Basar)에 잘 나타나 있으며 이 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전 코란에 사용되고 있다. 마음을 정결히 지니고자 하는 신앙심 깊은 사람은 동물처럼 마음대로 눈을 돌려서는 안된다. 그러한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갖데 바싸르(Ghadde Basar)의 습성을 길러야만 한다. 이것은 인간의 사회적 욕구에 개의치 않고 높은 도덕적 상태로 인간의 본능을 바꾸어 주는 축복된 습성이다.

악을 버리는데 있어서 두 번째 특성은 정직 혹은 성실이라 하는 것인데 즉 사람이 성품을 정직하지 못하게 혹은 부정하게 지니고 있음으로 해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피하는 것을 말한다. 성실은 인간의 본능적 상태이다. 그래서 본능을 따르고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지 않은 어린아기는 다른 사람의 품에 안기는 것을 매우 싫어 하기 때문에 유모가 젖을 주면서 어렵게 달래야만 한다. 어린아기가 아주 어리고 지각이 예민하게 발달되기 전에 유모가 정해지지 않으면 아기에게 유모의 젖을 먹이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어린아기는 생모이외의 다른 여자가 젖을 먹이는 것을 본능적으로 거부한다. 이러한 경향은 때때로 매우 힘든 일이 되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다. 이러한 경향의 비밀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기가 엄마를 떠나 다른 어떤 것에 의지하려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러한 아기의 습관을 깊게 생각해 본다면, 그러한 습관이 모든 정직과 청렴의 바탕이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누구도 그 마음이 다른 사람의 성품에 대해 아기처럼 미움과 증오가 가득 채워지지 않았다면 청렴한 상태에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하지

만 아기가 적절히 이러한 습관을 늘 사용하지 않으며 따라서 큰 아픔을 자신에게 강요한다. 이러한 습관은 비자발적으로 나타나는 본능적 상태이다. 그것이 비록 청렴의 도덕적 특성의 근본이라 하더라도 도덕적 특성은 아니다. 아기가 이러한 습관 때문에 신앙심이 깊다던가 믿을 만하다고 얘기 할 수 없듯이 이러한 본능적 습관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러한 도덕적 특성을 소유할 수 없다. 믿을 만하고 청렴한 사람이 되기는 참으로 힘들다. 사람이 모든 면에서 청렴하지 못하면 믿을 만하다거나 정직하다고 판단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능하신 알라신은 다음의 시행에서 여러 다른 면에서의 성실을 가르쳐 주셨다.

ARABIC EXPRESSION

너희들 중에 고아나 미성년자가 재산은 가지고 있으나 지각이 없어 자신의 재산을 허비할 것이 걱정 된다면 보호자로서 그의 재산에 대해 책임을 지고 모든 상업과 사회보장의 체계가 재산의 올바른 보호에 의존하는 만큼 그에게 넘겨다 주어서는 안된다. 재산의 수입으로 그 소유자가 계속 그것을 유지하도록 하며, 그에게 이성과 이해를 발전시키게끔 하는 모든 가치를 공정히 가르쳐서 무식하거나 경험이 없지 않게 적절히 가르쳐야 한다. 만약 그가 상인의 아들이라면 사업과 상업의 방편으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으며 그의 아버지가 어떤 다른 직업을 가졌다면 그에 맞는 알맞은 직업 훈련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러한 가르침을 주면서 때때로 발전의 여부를 시험하라. 성인의 나이에 이르렀거든, 즉 18살이 되었거나 그 자신의 재산을 보살필 만큼 충분히 두뇌가 발달되었다고 생각되면 그에게 그 자신의 재산을 맡겨라. 네가 그것을 간수하고 있을 때 그가 커서 재산을 네게로부터 빼앗아 갈것이라는 걱정에서 그의 재산을 낭비하지 말라. 보호자가 풍족한 환경에 있으면 그러한 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관리비용을 받아서는 안되지만 그가 가난하면 공정한 범위 내에서 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 고아의 재산 관리자에 대한 아랍의 관습은 그 재산을 상업자본으로 사용하여 그 이익으로

부터 보호자는 그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경비를 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이 이 시행에 포함되어 있는 체계이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그 소유자에게 넘겨줄 때에는 증인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하느니라(4 : 6~7). 너희 중 작은 아이들을 남길것 같은 사람은 아이들에 대해서 정당하지 못한 유언을 주지 말라. 그러므로 그들이 알라신을 경외하고 또 의로운 말을 하도록 하라. 실로 이르나니, 고아들의 재물을 부당하게 탐하는 무리들은 그들의 뱃속에 다만 불길을 삼키는 것이요, 그리하여 그들은 작열하는 불길 속에서 타리라(4 : 10~11). 이 시행에서 전능하신 알라신께서 말씀하신 정직과 청렴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진실로 정직한 사람은 이러한 점을 명심하는 자이다. 이것이 완전히 지혜를 사용하여 이루어 지지 않을 때는 그이 신뢰성은 많은 숨겨진 거짓을 은폐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셨다.

ARABIC EXPRESSION

서로의 재산을 기만과 속임수로 삼키지 말고 너의 재산을 권력 뇌물로 사용하여 불의로 다른 사람의 재산 중 일부분을 의도적으로 취득하지 말라(2 : 189). 믿을 수 있는 자에게 믿음을 주라(4 : 59). 알라신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8 : 59). 네가 계산할때는 완전히 올바른 자를 사용해서 올바른 무게의 균형으로 재어라(17 : 36). 땅 위에 혼란을 만들면서 돌아 다니지 말라(26 : 184). 이것은 땅 위에 악의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도둑질이나 강도 짓을 일삼거나 소매치기를 하거나 불법수단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갈취하는 짓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좋은 것과 교환하여 나쁜 것을 주지 마라(4 : 3). 즉 횡령이 불법인 것처럼 훌륭한 것과 같이 보이는 불량품을 팔거나 좋은 것을 받고 불량품을 주는 것은 마찬가지로 부당하다. 이 모든 시행에서 전능하신 알라신께서는 어떠한 형태의 부정직도 간과되지 않을 정도로 전면적으로 부정직한 관행을 설명하셨다.

그 분은 도둑질이 금지되어 있지만 다른 모든 부당한 재산 취득 방법은 허가된 것이라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고려하시어, 단지 도둑질만을 금하신 것은 아니다. 모든 부당한 재산 취득 방법을 전면적으로 금하는 것이 참된 지혜이다. 요약하면 어떤 사람이 모든 점에서 청렴한 마음을 갖추지 못한다면 비록 그가 어떤 점에서 정직하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정직하다고 간주되지는 못한다. 그것은 합리적인 분별력과 참된 통찰력이 결핍된 본능적 상태일뿐이다.

악을 버리는데 있어 세 번째 도덕적 특성은 아랍어에서 후드나(Hudnah) 혹은 하운(Haun)으로 표시되는데, 이말은 어떠한 사람에게 육체적 고통을 주는 것을 삼가하고 평화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심할 바없이 평화는 높은 도덕적 특성이며 인류에 필수적이다. 이러한 도덕적 특성에 부합하는 본능적 충동은 그 규제가 도덕적 특성으로 바뀌고 또 그것은 어린아기에 의해서도 소유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본능적인 애착이다. 본능적 상태에서는 인간이 평화나 호전적인 것을 생각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인간이 나타내는 본능적인 애착의 충동은 평화의 근본이지만 이성이나 사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조절되어 나타내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도덕적 특성으로 설명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인간이 지각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적절한 경우에서 평화의 성향을 나타내며 함부로 그러한 본능적인 애착의 충동을 자제하는 경우에 도덕적 특성이라 불리울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알라신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다.

ARABIC EXPRESSION

너희들 자신들 사이에 서로 합의를 증진하도록 증진시키도록 노력하라(6 : 2). 자비로우신 알라신의 참된 종은 겸손히 땅 위를 걷는다(25 : 64). 그들의 싸움으로 발전할 지도 모르는 헛된 것을 지날 때 그들은 위엄을 지니고 지나간다(25 : 73). 즉 그들은 사소한 일로 싸우지 아니하며 불화를 일으키는 경우에 큰 해가 되지 않는 조그마한 문제는 만들

지 아니한다. 이 말씀에서 사용된 ‘헛됨’ 이란 표현은 거의 피해나 손해를 별로 끼치지 않는 어떤 것을 의미하거나 그런 말들을 해롭게 해대는 것을 의미한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형태의 행동을 간과 하고 위엄을 가지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어떠한 사람의 행동이 삶이나 재산이나 영광에 정말 피해를 준다면 그에 적절히 작용해야 될 도덕적 특성은 ‘평화가 아니라 관용이며 이에 대하여 후에 다시 언급할 것이다. 누군가 너에 대해 해로운 행동을 한다면 평화롭게 처리하여 너의 적으로 하여금 너의 따뜻한 친구가 되게 하라(41 : 35). 요약하면 평화란 큰 문제를 간과하는 것이다. 악을 버리는 내용에 있어서 네 번째 도덕적 특성은 예절 혹은, 좋은 말이다. 이 도덕적 특성의 근본이 되는 본능적 충동은 유쾌함이다. 유아가 말로 자신을 표현하기 전에는 예절과 좋은 말 대신 유쾌함으로써 그로한 표현을 나타냈다. 그 말은, 예절의 근본은 본능적인 특색이며, 적절한 경우에 사용되어 도덕적 특성으로 바뀌는 유쾌함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것을 두고 알라신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다.

ARABIC EXPRESSION

사람들에게 무엇이 좋을까를 말하라(2 : 84).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웃게 하지 말라. 필시 비웃음을 받은 쪽 사람이 더 나으리라. 여인들로 하여금 다른 여인들을 비웃게 하지 말라. 필시, 후자가 전자보다 더 나으리라. 너희들의 사람을 중상 모략하지말고 별명을 부르지도 말라(49 : 12). 과도한 의심은 피하라. 서로 염탐하지 말고 험담하지도 말라(49 : 13). 네가 증거를 가지지 않고서 다른 사람의 어떤 것에 대해 비난하지 말라. 귀와 눈과 심장이 모두 책임을 추궁 받게 됨을 기억하라(17 : 37).

선을 행하는 것과 관련된 도덕적 특성

도덕적 특성의 두번째 유형은 선을 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것들 중에 관용 혹은 인내가 있다.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자는 피해자에게 고통 또는 피해를 주게 되며 투옥이나 벌금 등 법적 제재를 받거나, 공격을 받은 사람에 의해 직접 벌을 받아야 한다. 용서가 합당하면 용서하는 것이 그에게 유익하리라. 이러한 내용으로 성전 코란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ARABIC EXPRESSION

화가 났을때 그것을 통제할 줄 알며 합당한 경우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사람들(3 : 135)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그것에 비례하여 벌을 받는다. 하지만 가해자의 죄를 용서하고 그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어 어떠한 피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 즉 적절히 용서를 한다면 알라신의 보답이 있으리라(42 : 41). 이 시행은 성전코란이 어떠한 경우도 악에 대항하지 말라는 것을 가르치거나 피해를 끼치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벌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그 가르침은 용서를 해줄 것이냐, 벌을 줄 것이냐 하는 것을 꼼꼼히 생각한 뒤 가해자와 대중 모두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하는 것이다. 때때로 가해자는 용서를 받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되며 때때로 용서는 가해자로 하여금 더욱 나쁜 짓을 하게끔 한다. 그러므로 전능하알라신알라신께서는 우리가 모든 경우에 맹목적으로 용서를 해 주는 버릇을 길러서는 안되며 용서와 벌 중 특정한 경우에서 어떠한 것이 더욱 온당하고 어떠한 방법을 채택해야 하는 것을 주의 깊게 생각하여야 된다고 가르치셨다. 몇몇 사람들은 너무나 복수심이 강하여 수세대에 걸쳐 제 어비가 당한 피해를 기억하며 또 몇몇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할 정도로 극도의 관용과 인내를 보여주기도 한다. 그들은 위엄과 영광, 질투와 순결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나약함과 용서 그리고 관용을 베푼다. 그들의 행동은 훌륭한 인격에 흠이 되며 그들의 관용과 인내의결과로 사람들이 그들을 싫어하게 된다. 그러한 것이 바로 성전코란이 알맞은 때와 장소에서 도덕성을 발휘하고 가르치는 이유가 되며 적절하지 못한

도덕성의 발휘가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된다. 용서는 그 자체가 도덕적 특성이 되지 못한다. 그것은 아기에게도 발견되는 본능적 충동이다. 아기는 그릇된 해가 자신에게 돌아와도 곧 잊어버리며 그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애정을 가지고 다시 접근한다. 그 사람이 그 아기를 죽이려 했어도 마찬가지이다. 그 아기는 그 사람의 속임말에 기뻐한다. 그러한 용서는 결코 도덕적 특성이 아니다. 용서가 제대로 제때에 사용되어야만 도덕적 특성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단순히 본능적 충동일 뿐이다. 본능적 충동과 도덕적 특성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우리는 계속해서 참된 도덕적 특성과 본능적 상태를 구별해 왔는데 즉 도덕적 특성은 장소와 때에 일치하여 제한되며 본능적 특성은 흔히 장소에 관계없이 나타난다. 젖소는 무해하며 염소는 겸손해 할 줄 알지만 우리는 이러한 특성을 그들에게 부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시간과 장소의 감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신성의 지혜와 알라신의 참되고 완전한 경전에서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알맞게 사용되는 도덕적 특성이 명시되고 있다. 이 목록의 두번째 도덕적 특성은 공평이며 세번째는 자비 그리고 네번째는 우아함이다.

ARABIC EXPRESSION

이것은 우리가 선에 대해 선으로 보상하고 필요한 때는 자비를 행하며 적합할 때에는 비슷한 종류의 본능적인 요구를 가지고 선을 행하라는 것을 명령받았음을 의미한다(16 : 91). 전능하신 알라신은 죄악을 금하시고 부적절한 관용을 베풀거나, 필요할 때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또한 적절한 때에 우하함을 사용하지 않거나 그 알맞은 수준을 넘어서는 것을 금하시고 계신다. 이 시행은 세가지 단계의 선행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는 선에 대한 보답으로의 선이다. 이것은 가장 낮은 단계이며, 가장 평범한 삶도 쉽게 이 단계를 거쳐 그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게 된다. 두번째 단계는 첫번째 단계보다 약간 더 어려운 것인데 순수한 자비로부터 선을 행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은 중간

단계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자비롭게 행동하는데 자비에는 숨겨진 결함이 있어 자비를 행하는 사람이 그것을 인식하고 그 자비에 대해 감사나 기도를 하길 원한다. 어떠한 경우도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것을 베푼 사람에게 등을 돌리면 후자는 전자에게 배은망덕하다 할 것이다. 때때로 그런 사람은 그의 자비를 상기시키고 무거운 짐을 부과시킨다. 자비로운 사람에게 전능하신 알라신이 권고하셨다.

ARABIC EXPRESSION

비웃음과 무례에 의해 헛된 자선을 하지마라(2 : 265). 자선(sadaqah)이라는 말의 아랍어는 정직을 뜻하는 뿌리(sidq)로부터 파생되었다. 자선을 베푸는데 있어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게 되면 자선은 자선이 되지 못한다며, 단지 과시일 뿐이다. 그래서 전능하신 알라신께서 자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힐책과 피해로써 그 자선을 헛되게 하지 말라고 권고하셨다. 세번째 단계는 비슷한 종류에서 보여주는 우아함이다. 전능하신 알라신께서는 이 단계에서 자비나 감사를 원하는 생각이 없어야 된다고 가르치셨다. 하지만 강한 동정심에서 선이 발휘되어야 한다고 하셨다. 예를 들면 어머니가 아기에게 선을 하는 것과 같이 이것은 넘겨다 볼 수 없는 가장 높은 단계의 선행이다. 하지만 알라신께서는 적절한 시간과 장소로 이러한 단계의 선을 제한하셨다. 위에 인용된 시행은 만약 이러한 미덕들이 제때 사용되지 않으면 악덕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공평이 그 한계를 넘어서면 나쁜 면을 가지게 되고 부적당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비를 잘못 사용하면 이성과 양심에 의해 거부당할 것이다. 또한 비슷한 자비도 죄가 되기도 한다. 죄가 뜻하는 아랍어는 바기(baghy)인데 이것은 농작물을 망치는 너무 많은 폭우를 나타낸다.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부족하거나 그 이행이 과도한 경우 바기(baghy)이다. 요약하면 이 세가지 모두 다 시간과 장소와 경우를 알맞게 지켜야 하는 이유가 된다. 비슷한 종류 사이의 공평이나 자비 혹은 우아함은 그 자체가 도덕적 특성이 아니다. 그것들은 인간의

본능적 상태와 기능이며 어린이가 자신의 이성을 발전시키기 전에도 나타낼수 있는 것이다. 이성은 도덕적 특성을 발휘하는 상태이며 모든 도덕적 상태는 적절한 장소와 경우에 행사되어야 할 전제가 필요하다. 성전코란에는 다른 몇가지 지시가 담겨져 있다. 이것은 장소와 시간의 제약에 따른 자비를 말하고 있다.

ARABIC EXPRESSION

믿는자여! 네가 합법적으로 구한 너의 재산을 아량과 자비로써 사용하라. 즉 도둑이나 뇌물 혹은 부정직과 횡령이나 부정으로 구한 너의 재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쓸모 없거나 정결하지 못한 것에서 자선을 구하지 마라(2 : 268). 힐책이나 피해로 너의 자선을 헛되게 말라. 즉 너가 타인에게 베푼 너의 자선을 생각나게 하지 말고 그에게 피해도 가지 말라. 왜냐하면 그런 경우 너의 자비는 헛될 뿐이기 때문이다. 또한 너의 돈을 단지 남에게 보여 주기 위하여 쓰지는 말라(2 : 265). 너의 이웃에게 자비로워라. 왜냐하면 알라신은 자비로운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2 : 196). 진실로 고결한 자는 장뇌로 단련된 잔으로 물을 마실 것이다(76 : 6~7). 장뇌라는 말은 그들의 마음이 세상에 타오르는 욕망과 불순한 충동으로부터 깨끗해질 것이라는 데서 사용된다. 장뇌라는 말의 아랍어 어원은 압박 내지는 은폐를 함축하며 불법의 감정이 억눌려지고 그것이 순수한 마음이 되어 이해의 시원함을 즐길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이 땅으로부터 그들의 노력을 통해 솟아 오르는 샘물을 마실 것이라 한다. 이것은 천국의 아주 신비스러운 철학을 나타내고 있다. 이해력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도록 하라. 진실로 고결한 자는 가난한자와 고아와 노예에게 알라신의 사랑을 위해서 자신이 먹는음식과 같은 음식을 대접하며 그들에게 이렇게 확신시킨다. 우리는 당신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알라신의 기쁨을 얻기 위해 당신을 대접합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어떠한 보상도 감사도 원하지 아니하오(76 : 9~10). 이것은 순수한 동정심에서 발전하는 세번째 단계의 선행

을 하는 것을 나타낸다. 진실로 고결한 자는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종족과 고아의 양육과 교육에 알라신의 사랑으로부터 바치게 된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제공하고 여행하는 이에게 위안을, 구하는 자에게 안식을, 노예에게 자유를 주고, 빚진자의 짐을 덜어 주기 위해 재산을 바친다(2 : 178). 그들은 사치스럽지도 인색하지도 않다. 하지만 그 두가지 사이의 균형을 이룬다(25 : 68). 그들은 알라신이 참여하라고 하신 것에 함께 참여하며 그들은 알라신을 경의한다(13 : 22). 그들의 재산에 있어 도움을 구하는 자와 구할수 없는 자는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51 : 20). 구할수 없는 자는 개, 고양이, 참새, 소, 당나귀, 염소 등과 같이 말로 그들의 요구를 표현할 수 없는 동물을 의미한다.

그들은 기근이나 곤궁할때 저축하지 않고 그들 마음껏 쓰기를 계속한다(3 : 135). 그들은 자비를 숨어서 그리고 공개적으로 사용한다(13 : 23). 몰래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자비를 베푼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으며 공공연히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된다. 자비를 위해 남겨둔 것은 가난한 사람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쓰여진다. 그리고 그것을 모으고 나눠주는 사람에게는, 악으로부터 구제되어야 하는 사람을 도우는 데에는, 노예의 자유를 획득하는데에도, 부채를 진 자들도, 고통받는 자들도 그리고 단지 알라신과 알라신의 이름을 위해 애쓰는 자들을 위해서도 쓰여진다(9 : 60). 너희는 너희의 이웃의 안녕을 위해서 네가 아끼는 재산을 나누어 주지 않느다면 가장 높은 단계의 미덕을 얻을 수 없다(3 : 93).

가난한 자들과 곤궁한 자들과 그리고 떠돌아 다니는 자들에게 그들의 몫을 제공하라. 하지만 낭비로부터 네 자신을 보호하라(17 : 27).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결혼식이나 사치품 구입 혹은 애기의 탄생일 등에 필요없이 돈을 쓰는 것을 막는 가르침이다.

부모와 친척과 고아와 곤궁한자와 친척인 이웃과 너와 관련없는 이웃과 떠돌이와 너의 시종과 너의 말과 소떼 그리고 너의 다른 동물들에 대해 자비로와라. 이것은 알라신께서 사랑하시는 것들이다. 그분은 조심

성없고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아니하시며, 인색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거나, 그들의 부를 숨기는 자들과 곤궁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자들을 사랑하지 아니하신다.

참된 용기

사람들의 본능적 상태는 용기와 비슷하다. 어린애기들은 종종 두려움을 모르는 본능적 상태에 의해서 자신의 손을 불속에 집어 넣으려 한다. 그러한 상태에서 어떤 사람은 겁도 없이 호랑이나 다른 야생 동물을 대적하려하며 혼자서 많은 사람과 싸우려 한다. 그러한 사람은 매우 용감하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야생동물과 개에서 조차 발견되는 본능적 상태일 뿐이다. 높은 도덕적 특성의 하나인 참된 용기는 장소와 경우에 따라 제한되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이 알라신의 성스러운 말씀에 언급되어 있다.

ARABIC EXPRESSION

곤경과 박해와 전쟁중에서도 굳건한 사람들(2 : 178) 그들의 굳건함은 알라신의 지지를 얻기 위함이지 용감함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13 : 23). 사람들이 너희를 괴롭히기 위하여 모였으니 그들을 두려워 하라고 하였으나, 이는 다만 그들의 신앙을 강하게 하였으며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알라신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보호자가 그분 이요.” 하니라(3 : 174). 그러므로 그들의 용기와 용감성은 본능적 감정만 가지고 있는 일면적인 개나 야생동물과는 다르다. 그들의 용기는 두가지 면을 가지고 있다. 때때로 그들은 용기를 가지고 그들 자신의 열정과 대항하여 그것을 극복한다. 또한 때때로 그들이 그에게 대항하려는 적과 싸우는 것이 자신의 요구가 아니라 진실 옹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느낄 경우에만 대항한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의지하기 보다

는 알라신을 믿고 용감하게 행동하려 한다. 그들은 허풍으로 집으로부터 나와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지 않는다.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알라신의 기쁨을 구하는것이다(8 : 48).

이러한 시행들은 참된 용기가 굳건함에서부터 생긴다는 것을 나타낸다. 모든 개인의 감정 또는 마치 적처럼 닥쳐오는 어떠한 재난에 대해서도 굳건하게 서서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는 것이 참된 용기이다. 사람의 용기와 야생동물의 용기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 야생동물은 흥분했을때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지만 참된 용기를 가진 사람은 대적하거나 무저항을 택하거나 경우에 알맞는 것을 택한다.

진 실

인간의 본능적 특색 중 하나는 진실이다. 보통 어떤 사람이 이기적인 동기가 아니라면 거짓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인간은 거짓을 혐오하고 그것에 의지하기를 싫어 한다. 또한 거짓을 말했다가 발각된 사람을 싫어 하며 그런 사람을 경시한다. 하지만 이러한 본능적 경향은 도덕적 특성이라 할 수 없다. 어린아이와 미친사람도 그러한 경향을 나타낼수 있다. 어떤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 것을 피하려 하는 의도를 버리지 않는다면 진실하다 할수 없다. 인간이 개인적인 이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명예와 재산 혹은 자신의 인생이 관련된 일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려하고 진실을 말하지 못한다면 그는 어린이나 미친 삶과 다름이 없다. 미친사람이나 어린이가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하는가?

어떤 목적없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을 것이다. 어떠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버려진 진실은 도덕적 특성이 아니다. 사실을 말하는 올바른 경우는 인생이나 재산 혹은 명예의 손실을 걱정할 때이다. 이런 점에서 신성한 가르침은 다음과 같다.

ARABIC EXPRESSION

우상의 혐오스러움을 피하라. 그리고 거짓된 모든 말들을 피하라(2 : 31). 이말은 거짓이 하나의 우상이며 우상에 의존하는 자는 알라신에 대한 신앙을 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거짓을 말함으로써 알라신을 잃게 된다. 부름 받았을때 네가 진실을 증거하도록 하라. 그리고 참된 간증을 숨기지 말라. 숨기는 자는 죄를 범한 자이니라(2 : 284). 네가 이야기 할 때에는 진실을 이야기하며 비록 관련된 사람이 너의 친척이라 할지라도 공평하라(6 : 153). 정의를 수호하고 알라신을 증거할 때 엄중하라. 너와 너의 부모나 친척이나 아들들에게 손해가 될 경우도 엄중하라(4 : 136). 너에 대한 다른 사람의 적의로 인해 네가 불의나 거짓에 빠지지 말라(5 : 9). 진실한 남자와 여자는 알라신의 크신 보답을 받으리라(33 : 36). 그들은 서로로 하여금 진실에 귀의토록 종용한다(10 : 4). 참되지 않은 사람들과 사귀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라.

인 내

인간의 본능적 특성의 하나는 병중에 있거나 박해를 받을 때 인내하는 것이다. 인간은 많이 불평하고 슬퍼한 후에는 이러한 것에 의지한다. 인간이 고통 받을때 울고 피로워하며 결국 자신의 슬픔을 발산하고 나서는 후회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상태들은 본능적이지 어떠한 의미에서도 도덕적 특성이라 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적합한 도덕적 특성이란 사람이 손해로 인해 고통받을 때 알라신에게 받았던 것을 그분에게 돌려주고 그것에 대해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다. 그 사람이 불러 모은 것은 알라신의 선물이었으며 사람은 알라신의 기쁨과 함께 해야 함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성전코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한다.

ARABIC EXPRESSION

그리고 내가 너희를, 두려움과 배고픔 그리고 부와 생명과 너의 노력의 결실을 잃거나, 때로는 너의 귀여운 아이들을 죽게 함으로써 그리고 과실로써 노획을 시험할 것이다. 불행이 닥쳐 왔을때 낙담하지 않고 인내하는 자에게 복이 주어지리라. 그리고 우리는 분명코 알라신께 속하며 그분께로 우리는 돌아가게 될것이라 하니라(2 : 156~157). 이러한 도덕적 특성은 굳건함 혹은 알라신의 뜻과 화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떠한 점에서는 그것이 공평이나 공의로 불리워 질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삶을 통하여 알라신께서는 그 개인의 뜻에 따라 수천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에게 수많은 축복을 내리셨기 때문에 알라신이 그를 불러 알라신의 뜻에 따르라 할 때 그가 그러한 것을 피하거나 알라신의 뜻에 불만을 가지거나 신앙을 잃고 실족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을 것이다.

인류에 대한 동정심

인간의 본능적 특성 중 한 가지는 이웃에 대한 동정심이다. 모든 종교의 추앙자들은 그들 종교의 신도들에 대해서는 본능적 동정심을 가지지만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동정심에 따르면서도 다른 종교의 신도들에 대해서는 마치 그들이 사람들이 아닌 양 그들에 대해 잘못을 저지른다. 이러한 상태는 도덕적 특성이 될 수 없다. 이것은 새에서 조차 나타나는 본능적 욕구이다. 예를 들어 한마리의 까마귀가 죽으면 수백마리의 까마귀가 모여 든다. 이러한 특성은 적절한 경우에 공평하고 공의롭게 사용된다면 높은 도덕적 특성이라 설명 될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아랍과 페르시아 사람들 사이에서 동정심이라고 정의된 도덕적 특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성전코란에서 알라신이 지적하신 것이다. 전능하신 알라신이 성전코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ARABIC EXPRESSION

신앙심이 있고 청렴한 사람은 서로 도와주며, 죄를 저지르고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은 돕지 말라(5 : 3). 너의 이웃을 돕기를 게으르게 말라(4 : 105). 배반하는 자를 위해 싸우지 말라(4 : 106). 의롭지 못한 것을 고집하는 자를 위해 애원하지 말라. 알라신은 불성실한 자를 사랑하지 않으시니라(4 : 108). 여기에 후드르(Hudhoor)는 2가지 목록 사항을 말한다. 첫째 사항은 알라신의 창조물과 선한 행동의 행함의 협력이다. 둘째 사항의 토의 주제는 상황이 요구될 때 악을 행한자의 벌이다. 여기 이메세지가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인류에 대한 공감이지 범죄자가 그의 범죄로 부터 사회적 운운을 보호하므로 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벌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고양된 존재를 구함

인간의 본능적 상태중 인간이 고유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고양된 존재를 탐구하는 것이 있다. 이것은 어린 애기가 태어날때부터 나타낸다. 애기는 태어나자마자 마자 엄마에게 달라 붙으려는 영적인 특색을 나타낸다. 개성이 발달되고 본성이 확연히 드러나기 시작함에 따라 이 고유의 특성은 더욱 더 강하게 나타난다. 애기는 엄마 무릎 외에는 어떠한 곳에서도 위안을 찾지 못한다. 만약 엄마에게서 떨어져 멀리 있게 되면 어쩔수 없다. 엄마가 없으면 아무런 기쁨도 느낄수 없다. 그러면 어린 애기가 엄마로부터 강하게 느끼는 매력의 성격은 무엇일까?

이것은 참된 창조자께서 인간의 본성에 부여하신 매력이다. 똑같은 매력이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사랑할때 생긴다. 그것은 인간이 잃어버린 무엇을 찾거나 그가 잊어 버린 이름이나 어떠한 것에서부터 찾고 하는 무엇이 있는 것처럼 알라신에 대한 인간의 고유한 매력을 나타낸다. 부나 자손 혹은 아내나 음성에 이끌린 영혼에 대해 사랑을 느끼는 것은 알라신에 대한 인간의 탁구를 나타낸다. 인간이 육안으로 느낄수 없는 존재를 볼 수 없듯이 단지 불완전한 이성으로는 알라신을 발견

할 수가 없다. 성전코란에서는 이러한 점에서 뛰어난 예증을 해주어 세상이 궁전과도 같아 그 마루가 유리판으로 부드럽게 깔리고 아래에는 강이 흐르고 있는 것이라 한다. 이 마루를 보는 모든 눈들은 그것이 흐르는 물이라 생각한다. 마루위를 걷는 사람은 흐르는 물위를 걷는 것을 두려워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두려워 하게 된다. 하지만 마루는 유리로 된 부드럽고 투명한 평판으로 포장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태양이나 달과 같은 천체는 거대한 힘이 작용해 강물이 밑으로 흐르고 있는 부드럽고 투명한 유리판과 같다. 그 아래에는 작용하는 힘에 의해 나타나는 것을 천체에 의한 것이라 믿어 천체를 숭배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이것은 성전코란의 다음과 같은 시행에서 해석된다.

ARABIC ESPRESSION

그것은 부드러운 유리판으로 포장된 거대한 방이니라(27 : 45). 요약하면 전능하신 알라신의 존재는 그 분의 황홀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숨겨져 있는 것처럼 우리 눈앞에 펼쳐진 외형 시스템에 의존하며 모든 경이로움과 함께 완벽하고 절대적인 질서를 주의깊게 관찰하며 천체와 지구를 꿰뚫으며 천문학과 물리학과 철학을 완전히 공부한 사람들도 의심과 회의의 어둠속에서 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며 그들의 어리석은 공상을 찾아 멀리 방황하게 된다. 그들이 추측하기로는 위대한 지혜를 나타내는 이 커다란 시스템은 창조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추측은 불완전하며, 이러한 통찰은 결함이 많다.

이 시스템이 창조자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그 창조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확실한 간증과는 다르다. 그러한 추측은 마음에 만족을 주지 못하며 마음으로부터 모든 의문을 없애 주지도 못한다. 또한 인간의 본성이 요구하는 완전한 이해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 주지도 못한다. 참으로 이 결함 투성이의 이해는 가장 위험한 것이 되는데, 그 이유는 모든 주장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전능하신 알라신께서 그의 말씀을 통해 존재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일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만족할 수가 없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으로는 예견과 기대하는 그런 단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안에서 잠겨진 문이 있는 방에 대해서는 밖에서 안으로부터 문을 잠그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한 만큼 누군가 안에 있어 그 사람이 문을 잠겼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수년간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부르는 소리가 들어오도 안에서의 반응이 없다면 안에 사람이 있다는 가정은 철회되어야 하며 그 방은 어떤 교묘한 장치를 통해 안으로부터 잠겨졌다고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이 철학자들이 자신의 이해로 알라신의 하시는 일을 관찰하는 것에 국한시키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알라신이 땅속에 묻힌 시체와도 같으며 그 분이 회복되는 것이 인간의 용무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알라신이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만 발견된다면 그 분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는 것은 쓸모없는 것이다. 참으로 알라신께서는 영원을 통해 다음과 같이 인간을 부르셨다. “내가 존재하니라” 인간이 그 자신의 노력을 통해 알라신을 발견함으로써 알라신을 자신의 의무로 삼았으며 철학자가 없었다면 그 분은 계속해서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아주 잘못된 상상이 될 것이다.

알라신이 말을 할 수 있는 혀가 없다면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는가 하고 묻는 것도 똑같이 어리석은 짓일까? 그 대답은 다음과 같다. 알라신이 손도 없이 지구와 천체를 창조하지 않았던가? 그분은 눈도 없이 우주를 볼 수 있을까? 그 분이 귀도 없이 우리의 애원을 들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불필요한 것이인가?

알라신이 과거에는 이야기하셨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우리는 그 분의 말씀과 가르침을 어떤 특정한 시간에 한정시킬 수 없다. 그 분은 언제나 그랬듯이 오늘날에도 계시의 샘플로부터 그 분을 따르는 자를 충족시켜 줄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 분의 축복의 문은 언제나 그랬듯이 오늘날에도 활짝 열려 있다. 하지만

완전한 법을 필요로 했던 것이 지금은 성취되었기 때문에 모든 법과 제
한이 완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모든 예언은 우리의 알라
신이며, 주인이시며, 성스러운 선지자에 의해 정점에 달하였으며, 그 분
의 축복이 그 분에 임하였으므로 이미 성취되었다 할 수 있다.

아라비아에서 성스러운 선지자가 출현한 이유

최후에 알라신의 인도가 아라비아에서 시작되어야만 하는 것은 알라
신의 지혜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아랍은 이스라엘로부터 떨어져 나온
이스마엘의 자손이며, 알라신의 지혜에 따라 파란(Paran, Faran)의 황야
로 던져 졌는데, 파란이란 말은 두 도망자란 뜻이다. 이스마엘의 후손들
은 아브라함 자신에 의해 바니 이스라엘(BANI ISRAEL)로부터 갈라졌으
며 그들이 이삭으로부터 상속받지 않을 것이라고 씌여진 대로 토라
(Torah)의 법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이 속했던 사람들에게 의해 버림받아 어떤 누구와
도 관계를 맺지 못하였다. 다른 모든 나라에서는 한 때에는 예언자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나타내어지는 예배와 계명의 흔적이 있다. 아라비
아는 그러한 가르침에 완전히 익숙해 있지 않았으며, 가장 후진적인 상
태에 있었다. 상황이 바뀌어져 아라비아는 세계적인 예언의 혜택을 받
아 모든 나라가 다시 예언의 축복을 나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때 당
시의 과오들을 지워 버릴 수 있었다. 성전코란은 인간 개혁의 모든 계
획을 실행하는 완전한 책이며 한 백성에게만 전달하기 위한 책이 아니
다. 그것은 모든 개혁을 추구하고, 모든 단계의 인간 개발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야만인들에게 인간애의 방법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높은
도덕적 특성을 가르친다. 그러므로 성전코란 외에는 다른 어떠한 책도
필요가 없다.

성전코란이 세상에 가져다 준 것

성전코란이 인간의 본능적 상태와 도덕적 특성 사이의 구분을 제시한 것과 인간을 도덕적 상태에서부터 승화된 높은 도덕적 특성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인간을 영적인 높이로 이끄는 신성한 이해의 문을 열어 준 것은 인간에게 준 성전코란의 자비심이다. 이러한 점에서 그것은 뛰어난 방법으로 우리가 언급한 바 있는 세가지 유형의 가르침을 제시한다. 그것이 종교적인 훈련의 모든 가르침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에서 완벽하다고 할 수 있다.

ARABIC EXPRESSION

오늘날 나는 너를 위해 너의 종교를 완전케 하였고 너에 대한 나의 자비를 완전케 하였으며 이슬람을 너의 종교로 지정한 것에 대해 기쁨을 느끼노라(5:4). 이것은 종교의 장점이 이슬람에서 이루어졌음을 뜻한다. 이슬람은 한 인간이 완전히 알라신에 의탁하고 다른 수단을 통하지 않고 알라신의 이름 아래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자신의 구원을 추구하며, 이러한 동기와 결정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뛰어난 것들이 완벽에 다다른 단계이다. 그러므로 성전코란은 철학자에 의해 인식되어 지지 않는 알라신을 나타내 보였다. 성전코란은 알라신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두가지 방법을 채택하였다. 첫째는, 인간의 이성이 알라신의 존재를 지지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인간을 오류로부터 구하려는 목적에서 강화시키고 조명하기 위한 방법이며, 두번째는 세번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제시할 영적인 방법이다.

알라신의 존재에 대한 증거

이제 성전코란이 제시한 알라신의 존재에 대한 확실하고 또 비길데 없는 증거에 관심을 기울여 보자. 어느 부분에선가 이렇게 말하였다.

ARABIC EXPRESSION

우리의 알라신은 모든 것에 대하여 적합한 능력을 부여하시고 적합한 목적을 성취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니라(20 : 51). 우리가 이 시행의 취지를 알고 땅과 바다의 사람과 모든 동물 및 새들의 형상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하여 형태를 부여하신 알라신의 능력에 감명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광대한 주제이며 경청하는 이들이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성전코란이 제시한 알라신의 존재에 대한 두번째 증거는 모든 이유중의 이유가 되며 다음과 같다.

ARABIC EXPRESSION

너의 알라신은 모든 이유중의 최후의 이유이니라(53 : 43). 우리가 주의깊게 관찰한다면 모든 우주가 이유와 결과의 시스템으로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이 시스템은 모든 지식의 근본에 있다. 어떠한 부분의 창조도 이러한 시스템 밖에 있을 수는 없다. 몇가지 것들은 다른 것들의 뿌리이며 어떤 것은 가지가 되기도 하난. 어떤 이유는 다른 이유의 근본 혹은 그 결과가 될 수 있으며 반대로 다른 이유가 또 다른 이유의 결과가 될 수 있다. 이제 이 유한한 세상에서 이러한 이유와 결과의 패턴이 한계가 없고 무한하다는 것이 가능하지는 않다. 우리는 그것이 궁극적인 이유와 함께 종결되어야 함을 인정해야만 한다. 궁극적인 이유는 알라신이다. 이 시행에는

ARABIC EXPRESSION

이러한 주장을 매우 정확하게 제시하며 이유와 결과의 시스템이 알라신에게서 종결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성전코란의 알라신의 존재에 대한 또 다른 증거는 다음에 나타나 있다.

ARABIC EXPRESSION

이것은 태양은 달을 따라 잡을 수는 없으며, 달이 있는 밤은 태양을 나타내는 낮을 지배할 수 없느니라. 그 어느것도 그 궤도를 벗어 날 수

없느니라(36 : 41). 이 시스템 모두를 막후에서 조절하는 이가 없다면 그 시스템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이러한 증거는 천문학자들의 추측에 있어 매우 놀랄만한 것이 된다. 우주를 스쳐 지나가는 엄청난 크기의 천체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에 있어 조금의 혼란이 생겨도 모든 세계를 박살내 버릴 것이다. 알라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러한 천체는 충돌하지 않으며 그 속도도 바꾸지 않으며 조금도 그 경로를 변경하지 않으며 그 긴 시간동안 회전을 하면서도 닳지도 않으며 그 조직이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 만약 천체들이 인도자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커다란 조직이 수 많은 해를 지나가면서 스스로 지탱할 수 있겠는가? 성전코란의 다른 부분에서 전능하신 알라신께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ARABIC EXPRESSION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알라신의 존재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을까(14 : 11)?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 속에 그 분의 존재에 대한 또 다른 증거를 제시하셨다.

ARABIC EXPRESSION

지구상의 모든 것은 멸망할 것이며 단지 영광과 명예의 주인이신 그분의 모습만이 살아 남을 것이다(55 : 27~28). 만약 지구가 소립자로 축소되며 천체가 박살나고 이러한 천체를 나타내는 모든 흔적을 치워 버리는 폭발에 의해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린다고 가정해 보자. 이성과 참된 양심에 의하면, 결국 이러한 파멸후에도 파멸이 극복하지 않으며 변치 않고 최초의 상태에 머무르고 계시는 분이 남아 있을 것이다. 그분은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알라신이시며 죽음으로부터 제외된 분이시다. 성전코란에 나타난 그 분의 존재에 대한 또 다른 이유는 다음과 같으며, 알라신은 인간에게 물으셨다.

ARABIC EXPRESSION

내가 너의 알라신이 아니냐? 그들이 대답하기를 참으로 그러했습니다 (7 : 173).

이 시행에서는 전능하신 알라신께서 질문과 대답의 형식을 통해 인간에게 부여하신 특성을 제시하여 어떠한 인간도 알라신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음을 보여 주고 있다. 알라신을 부인하는 자들은 그들의 상상에 따라 알라신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알라신을 부인한다. 하지만 그들은 창조된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창조자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이 세상에는 너무 어리석어 아파도 아플 이유가 없다고 말할 사람은 없다. 우주의 시스템이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회오리 바람의 시기도 태양과 달의 일식, 월식 환자가 어느 때에 죽을 것이라는 것 또는 병이 어느 단계에서 다른 병에 의하여 더 심해진다는 등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알라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연구학자, 우리와 같이 결과에 대한 이유만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부인하게 된다. 이것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일종의 인정이 된다. 뿐만 아니라 몇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라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환상과 감동과 충동을 버리고 알라신의 완전한 통제를 받아야만 하며 그러한 상태에서 알라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을 부인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저명한 인사들에 의하여 입증되었다. 우리가 인용한 귀절은 인간의 진실된 본성은 알라신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 다만 현세에 명시된 알라신의 존재를 부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알라신의 속성

우리는 예증을 통해 알라신의 존재에 대한 이러한 몇가지 증거를 나타내 보였다. 이제 성전코란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알라신의 속성에 대해 주목하자.

ARABIC EXPRESSION

이것은 알라신이 숭배와 복종을 받으시는 분이며 그 누구도 비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시라는 것을 의미한다(59 : 23). 이러한 주장은 보좌하는 이가 없을 경우 알라신이 대적하는 자에 의해 굴복되리라는 염려에서 만들어졌다. 그 분외에는 그 누구도 숭배 받을 자가 없다는 주장은 그 분이 완벽하고 또 그분의 특성이 뛰어나고 고양되어 우리가 완벽한 속성을 가진 자로서 우주로부터 알라신을 선택하거나 알라신이 가지고 계시는 가장 훌륭한하고 고양된 속성을 생각한다면 알라신께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훌륭한 존재는 없다. 그 분 이외에 다른 어떤 존재도 경배하는 것조차 가장 큰 잘못이 되는, 그 분은 곧 알라신이다. 그 분은 보이지 않는 것을 아시며 즉 그 분은 곧 알라신이다. 그 분은 보이지 않는 것을 아시며 즉 그 분은 스스로 알고 계시는 유일하신 존재이다. 그 누구도 그 분의 존재를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태양과 달 모두를 이해할 수는 있어도 알라신을 전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그 분은 보이지 않는 것을 아시며 즉 아무것도 그 분에게 숨겨질 수가 없다. 그 분은 어떠한 것을 모른다고 상상할 수가 없다. 그 분은 그 분이 가지 영역안에 모든 우주를 소유하고 계신다. 하지만 인간은 그러한 총괄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분은 언제 이 계획을 무너뜨리고 심판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고 계신다. 다른 어느 누구도 언제 그러한 것이 일어 날지를 모른다. 모든 시대의 지식을 가진 분은 오직 알라신 이시다. 이르기를, 그 분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이것은 생명이 존재 이전에 그리고 그러한 생명의 행위 이전에 그 분의 순수한 은혜와 어떤 다른 목적이 아니, 어떤 행위를 위한 보답으로써가 아닌 것에 의해서 그 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 알맞은 것을 준비하셨다. 예를 들어 그 분은 존재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기 이전에 우리를 위하여 태양과 지구와 다른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러한 알라신의 축복은 알라신의 책에서 람니아트(Rahmaniyyat)로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전능하신 알라신께서는 라만(Rahaman)이라고 불리워지신다. 그 분은 의로운 행위에 대하여 충분히 보상해 주시며 어떤 사람의 노력을 헛되이 만들지

않으신다. 그 분의 속성으로 인해 그 분은 라힘(Rahim)이라고 부리워지며 이 속성은 라히미야트(Rahmaniyyat)라고 부리워지며 이렇게 말씀하신다.

ARABIC EXPRESSION

그 분은 심판의 날에 주인이 되시니라(1 : 4). 이 말은 그 분이 자신의 손에 의해 모든 사람에게 보상을 내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분은 하늘과 땅을 다스릴 대리자를 두고 그러한 것에서 초연하여 더 이상 개의치 않으며 그 대리자에게 모든 보상을 결정하도록 하는 분이 아니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ARABIC EXPRESSION

그 분이야말로 부족함이 없으신 통치자이시다(59 : 24). 인간의 통치에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만약 세속적 통치를 받는 피 지배자들이 통치자의 범위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 가면 그 통치자의 통치력은 끝이 나는 것이다. 백성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면 어떻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가? 만약 백성들이 복종할 만할 근거로써 백성들보다 더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그러나 알라신의 주권은 부족한 것이 없다. 그 분은 한 순간에 모든 것을 무너 뜨리고 또 다른 왕국을 세우실 수도 있다. 그 분이 모든 권능을 가지신 창조자가 아니었다면 그 분의 왕국은 어떤 부정도 없이 지속될 수 없었을 것이다. 세상사람들을 용서하시고 또 그들에게 구원을 내리셨는데 어떻게 다른 세상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을 추적하여 그들을 다시 세상에 돌려 보내고 스스로 내리신 용서와 구원을 부당하게 무효화 할 수 있겠는가? 만약 그렇다면 알라신께서는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백성들을 위한다고 항상 새로운 법률만을 고안해 내며 종종 냉정을 잃어 버리는 세속의 통치자들처럼 불완전한 존재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이기심에

빠져 부정없이 어떤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아무 꺼리낌없이 부정을 저지른다. 예를들어 속세를 다스리는데 있어서는 커다란 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작은 배를 파괴해 버리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알라신께 있어서는 부득이 그렇게 해야할 경우는 없다. 만약 알라신께서 전능하신 분이 아니고 또 무에서 창조할수 있는 권능을 갖지 않았다면, 그분은 아마 부정을 저지르셨거나 아니면 정의를 기본으로하여 권능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항해를 계속한다. 그러므로 알라신께서는 평화의 근원이 되신다. 다시말해서 모든 결합, 불행, 역경들을 물리치고 모든 것을 안전하게 만드신다. 만약 알라신께서 쉽게, 불행으로 고통 받고, 백성들에게 죽음을 당하고, 계획하신 바를 실패하신다면, 그런 경우에 어떻게 사람들이 알라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위안을 얻을 수 있겠는가? 전능하신 알라신께서는 다음 귀절에서 부정한 신들의 상태를 말씀하신다.

ARABIC EXPRESSION

비록 그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 모두 함께 연합한다하더라도 알라신과 떨어져 너희들이 부르고 있는 그들에게선 파리 한 마리도 창조해 낼수 없다. 만일 파리가 그들에게서 어떤것을 빼앗는다해도 그것을 도로 찾을수 있는 능력도 없다. 기도를 하는쪽과 기도를 받는쪽, 그 어느쪽도 약한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알라신이 될 수 있는가? 알라신께서는 다른 누구보다도 강한 권능을 지니신 분이다. 다른 모든 것들보다 우위에 계시는 분이다. 어느누구도 그분을 이해하거나 복을 줄일 수 없다.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자들은 알라신의 속성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22 : 74-75). 알라신께서는 보호하시는 분이며, 자신의 속성과 불변성의 증거를 나타내신다. 진실로 알라신을 믿는자들은 강한 증거를 갖고 있으므로 어느 곳에서도 당황하지 않을 것이며, 알라신면전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릇된 신을 믿는 자는 커다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무의미한 모든 것들을

신비하다고 얘기하므로 비웃음을 당하지 않고 드러날 실수를 숨기려고 찾는다.

ARABIC EXPRESSION

그러므로 그 분은 보호자요, 위대하신 분이요, 절제하시는 분이요, 찬양받으시는 분이시다. 이것은 그 분이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다른 것들보다 우위에 계시며, 나쁜길로 가는 것들을 바로 세우시며, 완전히 자족하시는 분이라는 뜻이다.

ARABIC EXPRESSION

이분이야말로 알라신이다. 창조자 중의 창조자, 모양을 부여하신 분, 최선의 이름은 알라신의 것,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은 모두 알라신을 찬송한다. 그리고 강한 분이시요, 현명하신 분이시다(59 : 25). 이 귀절은 알라신께서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창조하셨음을 뜻한다. 그 분은 자궁속에 있는 아기의 모습을 정하신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아름다운 이름들은 그 분의 것이다. 천국의 거주자들과 땅위의 거주자들은 알라신께 영광을 돌린다. 천국의 거주자들은 알라신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른다.

ARABIC EXPRESSION

알라신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셨다(2 : 21). 이것은 알라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위안을 주는 것이다. 연약하고 권능을 갖추지 못한 신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ARABIC EXPRESSION

그 분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참으로 자애로우신 분이다. 그리고 심판일의 주재자되시는 분이시다(1 : 2~4).알라신께서는 우주를 만들어 주

셨고 심판날의 주재자이시며 다른 누구에게도 심판을 떠 맡기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를 부르는 자에게 나는 응답한다(2 : 187).

ARABIC EXPRESSION

그 분은 영원하신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스스로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2 : 256). 모든 생명 중의 생명이며 모든 존재를 존속시키는 분이다. 그 분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만약 영원하지 않으시다면 알라신을 숭배하는 자들은 그 분이 자기들 앞에서 죽음을 맞지 않을까 염려할 것이다. 성전코란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르라 이분이야 말로 알라신이며, 유일자이시며, 낳지도 태어나지도 않고, 오직 한 분으로 견줄자가 없노라(112 : 2~5). 조금도 벗어남이 없이 정확하게 알라신의 유일성을 믿음으로써 인간은 자신의 창조자에게 공정할 수 있다.

성전코란에서 말하는 이슬람교의 도덕적 가름침에 대해 서술하였는데 그 기본적 원칙은 과함도 부족함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도덕성의 특징으로는 적절한 한계를 넘어서는 것도, 미달되는 것도 아니다. 덕성이란 것은 두 개의 극의 중간에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중간에 설 수 있는 기질이란 것은 높은 덕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적당한 장소가 어디고 적절한 경우가 언제라는 것을 알면 그 자체가 중간 상태인 것이다.

예를 들어 농부가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게 씨를 뿌리면, 그 사람은 중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주의깊게 적절한 경우가 언제인가 생각하게 되면 중간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다. 알라신과의 교제에 있어 중간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알라신의 속성을 부정하지도 않고 또 알라신을 물질적인 것과 비슷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성전코란에서 알라신의 속성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성전코란에서는 알라신께서 보고 들으시며, 모든것을 아시며, 말씀도 하시며, 피조물과 비슷하다고 느끼는 관념을 초월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ARABIC EXPRESSION

알라신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42 : 12). 알라신을 비유하여 말해서는 안된다(16 : 75). 알라신과 그분의 속성에 견줄만한 것은 없으며 그분이 자신의 피조물과 조금도 닮으신데가 없다는 것은 이 귀절은 의미하고 있다. 알라신은 피조물과 닮은것과 그것을 초월 하는 중간 존재로서 알라신을 두게되면 그것은 적당한 중간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슬람교의 모든 가르침은 중간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수라 파티 아장(surah fatiha) 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간상태에 접근하라고 가르치고 있다.그것은 노여움을 산 사람들이나 길잃은 사람들이 간 그런길이 아니라 알라신께 은총을 내려주신 사람들의 길로 인도해 주십사 기원하라고 가르친다(1 : 7). 노여움을 산 사람들이란 노여움을 넘어서 거만한 상태에서 분노를 유발하고 야만스러운 행동을 하는 자들을 말한다. 길 잃은 사람들이란 짐승처럼 행동하는 자들을 의미한다. 중도는 알라신의 은총이 내려진 사람들의 길이다. 성전코란에서는 축복받은 자들에게 중간상태를 고수하라고 말씀하신다. 구약성서에서는 응보를강조하며, 복음에서는 인내와 용서를 강조하고있다. 이슬람교들은 적당함을 구하고 중간상태를 고수한다.

ARABIC EXPRESSION

그리하여 우리는 당신들을 중간 위치의 민족으로 만들었다 (2 : 144). 이슬람교도들은 중간상태를 유지하도록 명령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중간상태를 따라 나아가는 자는 축복받은 자들이다.

ARABIC EXPRESSION

중간 상태는 최고의 길이다.

영적 상태

세번째 질문은 “영적 상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미 서술한 바

와 같이, 성전코란에 따르면 영적상태의 근원은 평안히 쉬고 있는 영혼이며, 이것은 인간을 도덕적 존재의 단계에서 신적 존재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영광된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ARABIC EXPRESSION

오, 조용히 안식하는 영혼이여, 기뻐하고 기뻐하며 주님 계신데로 돌아가라. 내 선택된 종들과 함께 나의 낙원으로 들어오라(89 : 28~31)

현세에서 인간이 느끼는 최고의 영적상태는 알라신앞에서 평안을 느끼는 것이며 모든 만족과 희열, 기쁨등은 알라신에게서 비롯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은 천국의 생명이라 불리는 상태이다. 이 상태에서는 완전한 믿음과 순수와 성실의 보상으로 바로 현세에서 천국의 생명을 받게된다. 다른 사람들은 내세의 낙원을 기다리지만 이러한 자는 현세의 낙원으로 들어간다. 이러한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 사람앞에 명령된 경배가 사실은 영혼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음식이고 그 사람의 영적인 생명은 이것에 크게 의존하며, 영적인 생명을 얻는것을 내세까지 미루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자신을 비난하는 것은 깨끗치 못한 생활을 하는 것이며, 덕을 추구하지도, 악에 대해 혐오감을 느끼지도, 덕을 추구하는 완전한 권능도 갖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 평안속에 있는 영혼을 발전시키려는 충동으로 이것은 변화될수 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완전한 성공을 이루는 것이다. 모든 이기적인 열정은 시들어 버리고 영혼에 강한 바람이 불어 인간은 이전의 연약함을 후회하게 된다. 바로 그때 본성과 기질은 완전히 변화되어 인간의 과거의 상태와는 멀어지게 된다. 그는 깨끗이 씻겨져 알라신께서는 그의 마음에 덕에 대한 사랑을 심으시고 알라신의 손으로 더러운 악을 몰아내신다. 진실의 군대는 마음의 요새로 들어가고, 의로움이 본성에 가득하게 되어 진실은 승리하며 거짓은 무기를 저버리고 날아가 버린다. 그의 가슴에는 알라신의 손길이 놓여지고 그사람은 알라신의 그늘아래 모든 일에 수행한다. 전능하신 알라신께서는 다음 귀절들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

말씀하신다.

ARABIC EXPRESSION

알라신께서는 그들 가슴속에 믿음을 새겨주시고 성령으로써 그들을 강하게 하셨다(58 : 23). 알라신께서는 너희에게 신앙을 좋아하게 하셨고 그 마음을 신앙으로 장식하시었다. 그뿐인가, 불신과 사악함과 불복종을 혐오하도록 하시었다. 그리고 너희 마음에 악함을 억누르게 하셨다. 그 모든것은 알라신의 자비와 은혜를 통해온다. 알라신께서는 모든것을 아시며 총명하신 분이다(49 : 8~9). 진리는 왔다. 허위는 소멸하였다. 허위는 반드시 소멸할 것이다(17 : 82). 이 모든것들은 세번째 단계에서 얻게되는 영적 상태들이다. 이러한 상태에 이르지않고는 진정한 통찰력을 얻을수 없다. 알라신자신의 손으로 그들 가슴에 믿음을 새기시고, 또 성령으로 그들을 강하게 하신 것은 하늘의 도움없이 진실한 순결이나 의로움을 이룰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자신을 비난하는 단계에서 인간은 회개하고, 전략하여 실망하게 되고 자신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태에는 잠깐 머무르고 정해진 때가 오면 알라신의 권능을 가진 빛이 밤이나 혹은 낮에 그에게 내려온다. 그러한 빛이 내려오게 되면 그는 놀라운 변화를 하여, 자신을 통제하여 주던 숨겨진 손을 이식하게 되고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된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알라신이 존재하심을 깨닫게 되고 그의 눈에 전에는 없던 빛들로 가득하게 된다. 우리가 어떻게 그길을 발견하며 그 빛을 얻을수 있을까? 현세에서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었고 움직임 뒤에는 그것을 움직이는 것이있다. 모든 종류의 지식을 얻으려면 올바른 길이라고 하는 정해진 길이 있다. 처음부터 자연이 대신해서 정한 법칙들을 확신하지 않고는 현세에서 아무것도 이룰수 없다.

자연의 법칙은, 목적을 성취시키는 데는 올바른 길이 있고 그 길을 따르는 것만이 목적을 성취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두운 방안에 앉아 있다고 할 때 태양빛을 얻는 올바른 방법은 태

양과 마주하고 있는 창문을 여는 것이다. 창문을 열게 되면 태양빛이 즉시 들어와 방을 밝게 해 준다. 알라신의 사랑과 은총을 얻기 위해서는 몇개의 창문이 있어야 하며, 깨끗한 영혼을 갖기 위한 정해진 방법이 있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다른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 올바른 길을 찾는 것처럼 깨끗한 영혼으로 이끄는 올바른 길을 보아야만한다. 그 방법은 이성이나 자신이 정한 길을 따라 알라신을 만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권능을 가진 알라신이 손으로만 열수 있는 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치나 철학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알라신을 찾을 수가 없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는 올바른 방법은 알라신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능력과 더불어 우리의 목숨을바치고 알라신을 만나게 해 달라고 기원하며 그리하여 알라신 스스로를 통해 알라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훌륭한 기도

자애로우신 알라신은 성전코란의 첫장에서 훌륭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것은 언제, 어떠한 경우에 구원을 해야 하는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며 우리에게 정신적 열정을 나타내고 있다.

ARABIC EXPRESSION

칭찬 받을 만한 모든 것들을 오직, 이 세상의 창조자요 주재자이신 알라신의 것이다(1 : 2).

ARABIC EXPRESSION

주님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자비를 내리시며 우리가 행위를 한 이후에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자비를 내리신다(1 : 3).

ARABIC EXPRESSION

오로지 주님만이 심판의 날의 주재자이시며 다른 누구에게도 그것을 떠 맡기지 아니하신다(1 : 4).

ARABIC EXPRESSION

알라신만이 이 모든 속성을 아시며 우리는 오직 당신에게만 예배하며 당신에게만 구원을 청합니다(1 : 5). 이귀절에서 '우리' 라는 복수 대명사로 자칭한 것은 주를 숭배하고 모든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여 그에게 순종한다는 것을 말한다. 내적 능력을 가진 모든이는 여러가지 요소가 결합된 복합적인 존재이고 주 앞에 자신의 모든 능력을 순종시키는 것이 이슬람이라 불려지는 조건이다.

ARABIC EXPRESSION

당신이 은총과 은혜를 내리시는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위에 우리를 굳건히 서게 하소서(1 : 6). 그 길은 당신께서 자비와 은총을 내려 주신 길입니다.

ARABIC EXPRESSION

그리고 그 길은 당신에게 노여움을 산자나,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이 간길도 아니며, 당신에게 이르지 못하는 길도 아니어야 하나이다(1 : 7). 아멘.

이 귀절에서는 알라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목숨을 재물로 바치고, 온전히 그것을 위해 헌신하고, 주에 대한 기쁨으로 충만하여 영적인 은총을 내려 달라고 간구하는 자에게만 알라신의 은총과 은혜를 내리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주께 가까이 다가가 그를 만나고 그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영적인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구원하며 인간은 모든 자신의 능력으로 주를 숭배하고 죄를 피하고 주께 순종한다.

모든 악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며 주께서 진노하실 일은 삼가한다.

단호한 결심과 더할 나위 없는 진심으로 알라신을 구하기에 그들은 알라신을 만날 것이며 알라신에 대한 이해의 잔을 마실 것이다. 인간을 영적인 세계로 인도하는 진정하고 완전한 은혜는 초지일관하는 인간의 확신에 달려 있다. 초지일관하는 확신이라는 것은 어떠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언제나 진실되며 언제나 깊은 믿음을 말한다. 그것은 칼로도 자를 수 없고 태울 수도 없는 신과의 강한 유대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다른 재앙도 그것을 단절시킬수는 없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그들과 이별을 한다 해도 그 관계가 망가지서는 안되며 명예를 잃지나 않을까,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까 하여 조금이라도 그 믿음을 마음에서 멀리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이 문은 좁고 이 길은 매우 험난하다. 또한 그것은 얼마나 힘든것인가! 전능하신 알라신께서는 다음과 같은 귀절에서 그 가르침을 주신다.

ARABIC EXPRESSION

그들에게 말하길, 만일 너희들이 부모, 자녀, 아내, 친척, 그리고 자기가 취득한 재산, 팔다 남아 걱정인 상품, 마음에 드는 주택, 이런 것들이 알라신과 그 사도와 그리고 알라신의 길을 위한 싸움보다 너희들에게 좋은 것이라면 너희는 알라신께서 심판 하실때까지 기다려라. 알라신께서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결코 인도하지지 아니하시노라(9 : 24). 이 귀절은 알라신의 뜻을 저버리고 친척에게 편애를 가지고 소유물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들은 알라신이 판단하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알라신이외에 다른것을 더욱 좋아하므로 반드시 파멸할 것이라는 것을 이르고 있다. 이것은 사람들을 독실하게 만드는 세번째 단계인데 이 사람들은 알라신을 위해서는 수많은 재앙들을 기쁘게 맞이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죽고 알라신이 외에는 아무도 관련이 없는 것처럼 독실한 진심과 헌신적인 사랑을 가지고 주께 의지하고 있다.

사실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살아계신 알라신을 볼 수가 없다. 우리의 육체적 생명이 다하는 날이 알라신께서 모습을 나타내시는 날이

다.

알라신이외에는 어떤것도 볼수 없게 될때까지 우리는 소경인 것이다. 그리고 알라신의 손 안에서 시체가 될때까지 우리는 죽은 것이다. 우리가 알라신을 완전히 대면하고 있을 때에만 확신을 얻을수 있으며 그 확신은 자신의 모든 열정을 극복하게 하고 이기적인 목적만을 추구하는 삶을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다. 다음 귀절은 바로 이것을 나타내는 귀절이다.

ARABIC EXPRESSION

선지자여, 이르라! 나의 예배도 나의 수행도 나의 생명도 나의 죽음도 모두 만유의 주이신 알라신께 속하노라(6 : 163).알라신께 대한 사랑이 한 인간의 삶과 죽음이 그 자신에게 속한것이 아니라 온전히 알라신께 속한 것이라는 경지에 이르면 알라신은 그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시며 이는 알라신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이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사랑이 만남으로 해서 그 사랑안에 빛이 생겨나게 된다. 세상은 그빛을 인정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한다. 수천명의 의인과 선민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버리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세상이 이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이 이들의 밝은 모습을 볼수 없었기에 그들을 이기적이고 남을 속이는 이들이라고 간주해 버린 것이다.

ARABIC EXPRESSION

사람들이 너를 쳐다보지만 그들은 너를 보지 못하노라(7 : 199). 인간의 내부에 빛이 생긴 날로부터 바로, 그 사람은 세속의 사람이 아닌 천국의 사람이 된다. 만유의 주이신 알라신은 그 사람의 내부로부터 말씀하시며, 주의 광명이 나타나고 그의 가슴은 주의 제권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된다. 주의 눈부신 변형을 통해 새로운 인간이 됨과 동시에 그에게 있어서 알라신은 새로운 알라신이 되는 것이고 그에게 새로운 길이 열려진다. 알라신이 다른 알라신이 되는 것도 아니며 그길들이 주의 길

과 다른 길도 아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철학으로 인식할수 없는, 주의 정상적인 길과는 다른 길인 것이다. 이러한 사람은 아래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다.

ARABIC EXPRESSION

사람에 따라서는 알라신께서 즐거워 하시는 것을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는자가 있다. 이들은 알라신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들이다(2 : 208). 그러므로 영적인 삶을 살아갈 단계에 이른 사람은 알라신의 이름으로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다.

이 귀절에서 전능하신 알라신께서는 알라신이 즐거워하시기를 위하여 알라신의 이름으로 자기 몸을 바치고 목숨을 버림으로써 자신이 헌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람만이 고통에서 구제될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사람은 자신을 조물주에게 복종시키고 동료들에게 봉사하는 존재로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마치 복종의 거울에서 진정 사랑받는 자를 본것과도 같이 깊은 연정과 진심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한다.

그의 뜻은 알라신의 뜻과 일치하며 그의 모든 기쁨은 알라신께 순종함으로써 생기는 것이다. 고통이 아닌 기쁨과 즐거움으로 선을 행한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영적인 인간에게 내려진 천국인 것이다. 내세에 내려질 천국은 알라신의 권능을 통해 물리적으로 나타나게 될 이러한 천국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천국은 다음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다.

ARABIC EXPRESSION

주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며 주의 위대함과 존엄함을 경의하는 자에게는 두가지의 낙원이 있다. 하나는 현세에 존재하고 다른 하나는 내세에 존재하고 있다(55 : 47).주를 위해 온전히 자신을 바치는 자는 그의 마음과 사고와 목적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줄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76 :

22).경건한자는 장뇌가 섞인 잔을 마실 것이다. 그것은 알라신의 종들이 마시는 샘물로서 그들의 노력을 통하여 솟아나게 만든다(76 : 6~7).

악간 생강으로 준비한 잔이 가지는 의미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아랍어인 카파라(kafara)는 은폐 혹은 완전히 덮는 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귀절에서 카푸르(kafoor)라는 말이 쓰여졌다. 이것은 사람들이 현세에서 주어진 분별의 잔을 마시고 이 세상에 대한 애정이 차갑게 식어 버릴 정도로 독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말한다. 모든 열정은 가슴에서 우러러 나온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옳지 못한 생각들을 물리치고 다시는 그것들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러한 열정들은 약해지기 시작하고 마침내는 모두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이것이 바로 이 말씀에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다.다시 말해서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망같은 것은 멀리하여 완전히 주님만을 향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세속적인 일을 추구하는 것에는 무관심하고 악이 사악한 일들을 금지하는 것과 같이 그들의 열정은 억눌려지게 된다.코란성전에서 이르기를,그들은 그 안에 생강이 섞인 잔을 마실 것이다(76 : 18~19). 생강을 뜻하는 잔자빌(zanjabil)이라는 아랍어는 자나(zana)와 자발(jabal)의 합성어이다 아랍어에서 자나(zana)는 '위로 향한다', '올라간다'는 뜻이고 자발(jabal)은 '산'을 뜻한다.그러므로 잔자빌(zanjabil)은 '주께서 산으로 올라가신다'는 말이다. 심한 질병에서 회복된 후 완전한 건강과 힘을 되찾기 전에 두 단계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독소가 완전히 제거되고 위험스럽던 상태가 개선되고 위독한 상태가 안전하게 되고 운명의 파도에 공격 하던 것이 완전히 가라앉았다할지라도 수족은 힘이 없고 원기가 모자라며 환자는 지친 상태로 발걸음을 옮기는 상태가 첫 번째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환자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여 몸에 원기가 가득 차 언덕을 오를 수 있고 달릴 수도 있다고 느끼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들은 세 번째

단계에서 실현될 수 있는데 이 단계에서 실현될 수 있는데 이 단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신의 백성은 장뇌 향기가 풍기는 잔을 마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높은 산을 오를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원기가 가득 찬 상태에 이르는 것이고 원대한 계획을 실행하고 알라신의 이름으로 값진 희생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뇌의 효험

장뇌이 가지는 특징중의 하나는 인체 기관의 조직을 강하게 하고 이질을 완화시키고 몸을 따뜻하게 하여 사람이 산을 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약과 장뇌를 나란히 곁에 두게 되면 인간이 선행을 하려는 열정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행동하려 할 때, 제일 먼저 그를 괴롭혔던 독들이 없어지고 약이 독들을 억누르듯이, 들끓던 고통의 고비 가라앉기 시작한다. 그러기에 장뇌은 콜레라나 장티푸스와 같은 전염병을 치료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독들이 완전히 억제하고 환자가 여전히 기운이 없다고 느낄 때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장뇌 맛이 나는 잔을 마시고 힘을 얻는다. 영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이 잔은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신의 아름다움의 계시라고 하겠다. 이러한 계시로 인간이 힘을 얻게 되면 높은 산에 오를 수 있는 것이다. 즉 알라신의 이름으로 놀라울 정도로 어려운 위업을 세우게 되는데 알라신의 온유함으로 가슴이 채워지지 않는 자는 이 일을 결코 수행할 수 없다. 이 말씀에서 전능하신 알라신께서는 두 마디의 아랍어를 사용하셨는데 이는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을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는 억압한다는 의미를 가진 약이요 다른 하나는 산을 오른다는 뜻을 가진 장뇌이란 말이다. 이것들은 알라신을 구하는 자가 만나게 될 두 가지 조건인 것이다.

ARABIC EXPRESSION

나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쇠사슬과 쇠 굴레와 화염을 마련하였노

라(76 : 5). 이는 믿음을 저버리고 받아들여려 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 알라신께서 쇠사슬과 쇠골레와 화염을 준비해 두셨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진심으로 알라신을 구하지 않는 자는 고통스러운 댓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불신자들은 밭에 쇠사슬이 묶여있는 것처럼 세상 일에 깊이 관련되어 있고 목 주위에 쇠 골레가 씌워져 하늘로 눈을 들어올릴 수 없는 것처럼 세속적인 것만을 추구하고있다. 그들은 재산, 권위, 통치권, 부등 세속적인 것들을 애타게 원하고 있다. 전능하신 알라신께서 이들에게 이러한 세가지 고통을 내리시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들이며 또한 바람직 하지 못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인간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알라신께서 행하시는, 그에 상응하는 행위가 뒤따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방의 모든 문과 창문을 닫아버리면 방이 어둡게 되므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알라신의 행동을 따르게 된다.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은 자연의 법칙 하에 전능하신 알라신께서 정해주신 것인데, 그 행동에 따른 필수적인 결과는 모두 그분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이는 알라신께서는 명분의 알라신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만약 독을 마시게 되면 그의 행동 다음에 뒤 따르는 신의 행동은 그가 죽음을 겪게 되는 것이다.그와 마찬가지로 전염병을 퍼뜨리는 온당치 못한 일을 행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신의 행동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마침내 그 사람이 그 병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결국, 세속적인 삶에서 우리가 명백히 관찰한 바와 같이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의 필연적인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알라신께서 행하시는 것임을 알게 된다.그리고 이와 같은 법칙이 종교적인 문제에도 또한 적용되고 있다.

ARABIC EXPRESSION

알라신을 구하고자 열심히 노력하면 결국 필연적으로 알라신은 그 사람을 인도하여 자신에게 이르게 한다(29 : 70). 또 그와는 반대되는 구절도 있다. 올바른 행동에서 벗어나 곧은 길로 가지 않으려 하면 알라

신께서는 그들의 심성을 비뚤어지게 만들어 버리신다(61 : 6). 성전코란에서는 이점을 더욱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다.

ARABIC EXPRESSION

현세에서 소경인자는 내세에서도 또한 소경이 되어 더욱 길을 잃고 헤매게 된다(17 : 73). 이 구절에서 말씀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생활에서도 덕이 있는 자에게는 알라신께서 나타나시고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천국에서의 삶의 기초가 되며 현세에서 타락하고 소경으로 지냈다면 천국에서도 역시 지옥과 같이 무시무시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 이구절의 의미이다

ARABIC EXPRESSION

믿음을 가지고 선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강물이 흐르는 곁에 정원을 가질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라(2 : 26). 이 구절에서 전능하신 알라신은 믿음을 강물이 흐르는 곁에 정원으로 묘사하셨고 정원이 강이나 시내와 관련 있듯이 믿음이라는 것도 선행과 관계된 것임을 보여 주신다. 물이 없이 정원이 무성할 수 없듯이 믿음이라는 것도 선행이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선행이 따르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요, 행동을 하되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거나 어떤 전시물과 같은 것이다. 이슬람 천국의 실체는 현세에 서의 사람들의 믿음과 행동을 반영하는 것이지 외부에서 주어지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한 개인의 천국은 그의 내부에서 커 가는 것이며 자신의 믿음과 선행, 그리고 현세에서 맞보는 기쁨들이 개개인의 천국인 것이다. 그리고 믿음과 선행의 정원과 강이 감추어져 있으나, 내세에서는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신성한 알라신의 교훈은, 알라신과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뜻을 순수하고 완전하며 확고하게 믿는 것은 과실나무가 있는 아름다운 정원과 같은 것이고 선행은 정원을 적서

주는 강물과 같음을 가르쳐 주고있다. 성전코란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ARABIC EXPRESSION

믿음이란 말은 극단적 인 것, 불안정한 것, 거짓된 것, 허영된 것들과 거리가 먼 것이며 모든 면에서 완벽한 것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어떤 부족함도 없이 단단하게 땅에 뿌리박고 가지가 하늘까지 이르는 나무와 같은 것이다. 그것은 항상 열매를 맺으며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은 경우는 없다(41 : 25~62). 그리하여 전능하신 알라신은 믿음이란 말을 항상 열매를 맺는 나무로 묘사하시며 그 나무의 특징을 세가지로 말씀하신다. 첫째 나무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는 뿌리가 땅속에 단단히 박혀 있어야 한다. 그것은 나무의 진실과 실체가 인간의 본성과 양심에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뜻이다. 두 번째 특징은 나무의 가지가 하늘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이성으로 뒷바침되고 신의 행위인 신성한 자연의 법칙과 조화되어야 함을 말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자연의 법칙은 논쟁거리를 제공하여 그른 것을 교정하며 진실을 옹호하게 하는데 그러한 논쟁은 비평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어야한다. 세 번째 특징은 나무의 열매는 영원하고 또한 무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나무의 대한 축복과 나무의 대한 행위의 결과는 항상 나타나야 하며 한 시대가 지난 후에 그것이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다.

ARABIC EXPRESSION

나쁜 말은 나쁜 나무와 같다. 뿌리 자체가 땅에서 뽑아 저서는 안정할 수가 없다(14 : 27). 인간의 본성은 그런 것을 거부하며 이성이나 자연의 법칙 또는 양심으로 세워 질 수는 없다. 그것은 지리멸렬한 긴 이야기보다도 더 안정되지 못한 것이다. 성전코란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진정한 믿음의 나무는 포도, 석류열매, 다른 좋은 열매들처럼 내세에서 나타날 것이며 또한 믿음이 없는 악의 나무는 자쿠움(Zaqqum)이라 한

다.

ARABIC EXPRESSION

낙원의 정원은 더 좋은 환대인가 아니면 악을 행한 자들을 심판하는 재쿠움 나무인가? 그것은 지옥의 밑바닥에서 자라는 나무이다. 다시 말해서 오만이나 자만에서 자라는 것이다. 그 열매는 마치 사탄의 머리인 양 그것을 먹는 자는 파멸하고 만다는 것을 뜻한다(37 : 63~66). 재쿠움 나무는 죄 많은 자들의 음식물이다. 그것은 위 속에서 녹는 구리처럼 끓을 것이다(44 : 44~47). 죄 많은 자들에게 말씀하시나니 자, 맛보아라. 너희는 참으로 장사이고 존귀한 자들이니라(44 : 51). 이것은 분노의 표현으로서 만약 그 사람이 오만하지 않고, 자부심과 위엄에 대한 그릇된 생각으로 진실을 대한다면 이런 식으로 고통 받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귀절에서 말하듯이 작쿠움(Zaqqum)이란 말은 주쿠(Zuq)와 암(am)의 합성어인데 주쿠(Zuq)는 경험한다는 뜻이고 암(am)은 그귀절 나머지 부분의 첫자와 끝자를 딴 것이다.

ARABIC EXPRESSION

그러므로 전능하신 알라신께서는 현세에서의 '믿음'이라는 말을 '천국의 나무'로 묘사하셨다. 그와같이, 현세에서 말하는 믿음이 없다는 '불신'이란 말을 자쿠움이라는 지옥의 나무로 묘사하였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뿌리는 바로 지금 삶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다른 대목에서 지옥은 다음과 같이 묘사되고 있다.

ARABIC EXPRESSION

지옥은 불이며 불의 근원은 알라신의 분노이다. 죄에 의해 불이 붙고 그것은 감정을 압도한다는 의미이다(104 : 7~8). 이 불의 근원은 마음을 괴롭히는 슬픔과 비애와 고통이다. 모든 정신적 고통은 마음속에서 생겨나서 육신에 퍼지는 것이다. 다른 대목에서 말씀하시기를,

ARABIC EXPRESSION

계속해서 지옥 불을 타오르게 하는 연료에는 두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알라신을 외면하고 다른 것을 숭배하는 사람이다. 또는 자기만의 예배를 고집하는 것이다.

ARABIC EXPRESSION

그릇된 신이나 그 신들을 숭배하는 자들은 모두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지옥 불을 태우는 두 번째 유형의 연료는 우상이다. 그릇된 신이나 우상이 없고 또 그것들을 숭배하는 자들이 없다면 지옥은 없을 것이다 (2 : 25 ; 21 : 99). 이런 모든 구절들은 신성한 알라신의 말씀으로 천국과 지옥은 물리적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천국과 지옥이 내세에서는 구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현세에는 속하지 않는 것이라도 그 원천은 바로 영적인 것이다.

알라신과 완전한 영적 친교를 맺는 방법

성전코란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알라신과 완전한 영적인 친교를 맺는 방법은 이슬람교인데 이것은 알라신의 이름으로 온 생명을 바치고 항상 수라(Su-rah)파티하(Fatiha)에서 가르치는 것을 기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슬람교의 정수이기도 하다. 알라신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수라 파티하(Surahfatiha)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기원하는 하는 것이 알라신을 만나 진정한 구원의 물을 마실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에서 정한대로 인간이 최고의 찬양을 드리고 또 알라신과 만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러한 자들만이 이슬람교의 영적인 불길 속으로 들어가 알라신을 보게 되고 계속해서 수라 파티하 (Surah Fatiha)에서 말하고 있는 기원을 드린다. 이슬람교는 우리 생명을 태우며 타오르는 불길이다. 그리고 그릇된 신을 태운다는 것은 우리의 알라

신을 위해 생명과 재산과 명예를 바친다는 의미이다.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들어가 새로운 생명의 잔을 마시며 우리의 모든 영적 능력은 알라신과 찢줄 사이에서 유지되듯 친교를 맺는다. 하나의 불이 번개처럼 우리 내부에서 위쪽으로 타오르고 또 다른 불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간다. 이 두 불길이 만나므로 해서 알라신이외에 다른 것들에 대한 우리 열정과 사랑은 완전히 타버리고 우리는 죽어 전쟁과 대면하는 자들이 된다. 이런 상태를 성전코란에서는 이슬람교라 부른다. 알라신의 뜻에 모든 것을 내 맡기게 되면 우리의 열정은 사라지고 기원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이 두 번째 생명이 시작되면 알라신의 계시를 받게 된다. 이런 단계를 이르렀다는 것은 알라신을 만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른 말로는 알라신을 본다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마치 알라신을 본 것처럼, 알라신과 친교를 맺게 되고 힘이 주어지고 모든 감각과 내적 능력이 빛내며 신의 생명이 강하게 끌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이 단계에서 알라신께서는 그 사람이 보는 눈이 되고 그 사람이 말하는 혀가 되시고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그이 손이 되시며 그가 듣는 귀가 되시며 그 분이 걷는 발이 되신다. 다음 구절에서는 이 단계에 대해 말하고 있다.

ARABIC EXPRESSION

알라신의 손이 그의 손위에 있다(48 : 11). 그와 똑같이 성전코란에서 말씀하시기를,

ARABIC EXPRESSION

죽인 것은 너희가 아니라 알라신의 뜻하심이라(8 : 18). 간단히 말해서 이 단계에서는 알라신과 완전히 일체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 영혼은 완전히 알라신의 신성함으로 충만하게 되고 이전에는 약했던 도덕적 권능이 산처럼 확고하게 되며 이성과 지성은 최대로 강하게 된다.

ARABIC EXPRESSION

알라신은 성령으로 그들을 강하게 만드셨다(58 : 23). 이 단계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알라신에 대한 사랑과 헌신은 알라신의 이름으로 죽고 그 분을 위해 수많은 권한을 견뎌내고 또 알라신의 길에서 비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작은 지푸라기를 잘라 버리는 것처럼 쉬운 것이 된다. 자신을 이끄는 자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알라신을 향해 끌려 간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알라신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다. 이 단계에서는 그 분께서 말씀하신대로, 알라신께서 매우 가깝게 나타나신다.

ARABIC EXPRESSION

우리는 정맥보다도 더 가까이 알라신곁에 있다(50 : 17). 알라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적은 관계적 상태처럼 무루 익는 과일은 저절로 나무의 가지로부터 떨어진다. 알라신과의 유대는 깊어지고 다른 생명체들과는 멀어 지며 알라신의 말씀과 친교로 영광되게 된다. 이 단계로 다가가는 문도 항상 활짝 열려 있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은총을 구하는 자에게, 알라신은 영광을 내리신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이 문은 쓸데없는 말이나 자랑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다. 구하는 자는 많으나 찾는 자는 거의 없다. 왜 그런가? 그것은 이 단계에서는 진정한 열정과 희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입에서 나오는 단순한 말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러한 길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떠나 버린 불 속으로 믿음을 가지고 발을 내 딛는 것이 제일 먼저 필요하다. 자랑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필요한 것은 실제적인 열정이요, 진지함이다. 다음 귀절에서 영광된 자 알라신께서 말씀하시기를,

ARABIC EXPRESSION

내 종들이 이에 관해 너희에게 질문할 때 내가 가까이 있다고 말하라. 나를 부른 자가 나를 부를 때 그 자의 부름에 곧 응하라. 그러므

로 그 자로 하여금 나를 찾고 나를 믿게 하라. 그러면 그들은 옳은 기
로 인도되리라(2 : 187).

두 번째 질문

사후에 인간은 어떤 상태인가?

죽음 후에 인간은 새로운 상태에 놓여지는 것이 아니라, 현세에서의 상태가 내세에서 좀 더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현세에서는 그 사람의 믿음, 행실, 선함 따위와 관련해서 그 사람이 진정 어떤 상태에 놓여 있든지 그것은 인간 내부에 숨겨져 있고 또 그것은 악이나 선은 보이지 않게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사후세계는 그렇지 않다. 모든 것이 겉으로 명백히 나타난다. 꿈을 꾸는 것이 그 예라 하겠다. 수면자의 몸의 주된 상태가 꿈속에서 나타나게 된다. 열이 높이 오를 때는 꿈에서 불을 보게 되고 독감으로 아픈 사람은 자신이 물에 떠 다니는 것을 보기 쉽다. 이렇듯이, 몸의 상태가 어떤 식으로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 꿈속에 나타난다. 내세와 관련해서 알라신도 그와 같은 식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꿈이라는 것이 우리의 정신상태를 어떤 물질적인 모습으로 변화시키듯이 내세에서도 무리적으로 뚜렷이 나타날 것이며, 현세에서 내부에 감춰두었던 모든 거시들이 우리 표정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날 것이다. 꿈속에서 심령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사람들은 그것들이 심령의 출현 인줄 알지 못하고 현실로 간주하듯이 내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한 명시를 토하여 알라신은 그 분의 능력이 충만함과 같이 완벽하고, 완전하게 절대적인 새로운 능력을 보여 주실 것이다. 만약 내세의 상태를 심령의 출현이라 하지 않고 알라신의 권능으로 새로 창조된 것이라 한다면 그것은 정확한 말이 될 것이다. 알라신께서 말씀하시기를,

ARABIC EXPRESSION

어느 누구 하나 그 소행에 대한 보수로써 자신에게 감춰진 눈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32 : 18). 알라신께서는 이러한 모든 은총들이 현세에서는 감춰져 찾을 수 없는 것과 같음을 말씀하신다. 분명한 것은 현세의 은총이 우리에게 감춰진 것이 아니며, 우리는 현세에서 먹는 우유, 석류, 포도등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내세의 은총은 뭔가 다른 것으로서, 이름만 같지 현세의 은총하고는 조금도 비슷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현세 상태의 관점에서 낙원의 상태를 생각한다는 것은 성전코란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위에서 말한 구절들에서 생각해 보면, 인간에게 평화와 축복으로 내려오신 우리의 주님, 알라신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과 천국의 은총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으며, 인간의 지성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라 하셨다. 반면에 우리는 현세의 은총을 보고 들으며 또한 그 생각은 우리 마음을 꿰뚫고 지나간다. 이제 알라신과 더불어 그 분의 사hk가 내세의 은총이 새로운 것이라 할 때 우리가 현세에서 젖소나 들소에게서 짜낸 것과 똑같은 우유를 내세에서도 얻어야만 하고 또 천국에 수많은 별통이 있어 천사들이 별 꿀을 얻어 그것들을 냇가에 부어야 한다고 상상한다면 우리는 성전코란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이 내세의 은총이라는 것이 현세에서 볼 수 없었던 것들이고 영혼을 밝게하여 주며 알라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신적 양분을 제공해 준다는 가르침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 그것들이 물리적 용어로 설명되기는 하지만 그것의 원천은 영혼이요 또, 선행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영광된 자 알라신께서 말씀하시듯이, 아래에 인용된 성전코란의 구절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은총들을 보면서도 천국의 거주자들이 자신들이 이전부터 이러한 은총들을 받아 왔음을 깨닫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ARABIC EXPRESSION

믿음을 가지고 선행을 하는 자들에게 아래에 강물이 흐르는 낙원을

가질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라. 이미 이승에서 맛본 과실들이 매일 양식으로 주어질 때 그들은 “전에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이는 이미 그들이 그 과실을 맛본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2 : 26). 이 구절들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천국의 거주자들이 천국의 은총들을 바라보면서도 그것이 자신들이 전생에서 받은 것과 같은 은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잘못이며 또, 진정으로 의미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다. 여기에서 전능하신 알라신이 말하신 것은 정의를 믿고 행하는 자들은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정의로운 행동의 흐름의 나무로 그들 자신의 손으로 천국을 세운다는 것이다. 그 후에 그들은 또한 천국의 열매들을 먹을 것이며 그 열매들은 더욱 달고 더욱 분명할 것이다. 현세에서 그들이 영적으로 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다른 세상에서도 그것을 알아 보고 “전에 먹었던 것과 같은 열매인 것 같다”고 말할 것이다. 이 구절에서는 현세에서 알라신의 사랑으로 보육된 사람은 내세에서 물리적 형태로 같은 영양분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 있다. 그들은 현세에서 이미 사랑의 기쁨을 맛보고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외단 구석에서 그리고 밤의 어둠 속에서 그들이 진정 사랑하는 분을 기억하고 그 기쁨을 느끼던 시절을 그들의 영혼은 회상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구절에서는 물질적 의미의 음식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선행을 한 자들이 현세에서 영적인 영양분을 얻게 되고 그것이 현세에서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것이고 또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는 은총은 아니다. 즉, 천국의 거주자들이 현세의 은총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므로 여기에는 어떤 반박도 없으리라는 대답이 나온다. 그들이 신의 이해를 통해 받게 되는 것은 무엇이나 내세의 은총이 되며 그들의 열망이 나타나기 전에 앞서 그들에게 주어진다.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므로 신앙이 독실한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님을 기억해야만 한다. 그는 천국의 사람이며 천국의 은총을 입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세속적 은총을 받고 천국 사람들은 천국의 은총을 받

는다. 사실 이러한 은총들은 세속인들의 귀나 마음이나 눈에는 감춰진 것들이다. 세속적 생명이 죽어 내세에서 물리적 형태를 하고 영적인 잔을 마신 사람은 전생에 그것을 마셨던 것을 기억할 것이나,거나 사실 그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세속의 눈과 귀를 생각할 것이다.그러나 사실 세속적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런 세상에서 존재했었으므로,천국의 은총은 세속의 은총이 아니며 세속에서는 그러한 은총을 듣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다고 말할 것이다.그는 세속 적이 아닌 내세의 은총의 모습을 보았다. 그것들은 그가 관련되었던 세계가 앞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전조였고 또 현세에서의 생활과는 연관이 없는 것이다.

내세에 대한 코란의 세가지 성찰

성전 코란은 지금부터 얘기해 나갈 사후의 생활상태에 대해 세가지 성찰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기 바란다.

첫 번째 성찰

성전코란에서는 사후의 삶은 새로운 모습이 아니며 사후에 나타날 모든 것은 지금의 생활을 반영하고 있음을 반복해서 확인해주고 있다.예를 들어 성전코란에서 말한 바,

ARABIC EXPRESSION

모든 사람 행동을 그들의 목에 단단히 매여 놓았다.그리하여 심판의 날 그것들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할 것이며,그 사람들 앞에 한 권의 기현은 행동이라는 말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선하고 악한 모든 행동은 행하자마자 새처럼 날아가 버리고 그 수고와 기쁨은 끝이 나며 단지 강하고 약한 인상만이 가슴에 남게 되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의 행동은 알라신에게 드러나 보이지 않는 인상을 남기고 그 악하거나 선한

행동을 지속시키기 적절한 알라신의 반응이 따른다는 원칙을 코란은 밝히고있다. 그 인상은 행동을 한자의 신체 각 부분에 새겨진다. 그리고 이것이 내세에 나타날 숨겨진 기록인 것이다.성전코란에서 천국의 거주자에 관해 말씀하시기를,

ARABIC EXPRESSION

그 날이 되어 앞쪽이나 오른쪽으로 나아갈 남녀 신자의 광명을 볼 것이나 그것은 현세에서는 감춰진 것이다(57 : 13).악을 행하는 자를 일컫는 다른 대목에서

ARABIC EXPRESSION

무덤을 향해 갈 때까지도 너희들은 가진 물건을 자랑하며 세월을 보내 나니 보라, 네가 쫓고 있는 것이 헛되다는 것을 곧 알게 되리라.다시 이르나니, 네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쫓고 있다는 것은 커다란 실수임을 곧 알게 되리라. 네가 확실한 지식을 갖고 있다면 이승에서도 분명히 지옥을 볼 것이다. 그러나 중간생태인 바르자크(Barzakh)에서는 확실한 성찰을 통해 보게 되리라. 심판의 날에 부름을 받아 고난을 당할 것이며 네가 행한 일들을 통해 지옥을 알게 될 것이다(102 : 2~9).

지식의 세가지 유형

이 귀절에서 전능하신 알라신께서는 지옥의 삶은 악한 자들로부터 은밀한 방법으로 시작될 것이며 그들이 반항하게 되면 이승에서도 지옥을 보게 되리라고 말씀하신다. 전능하신 알라신께서는 지식의 세가지 유형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성의 확신으로 얻은 지식 들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멀리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면 연기와 불은 불가결한 것이라 여기고 반드시 불이 났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이성의 확신으로 얻은 지식이다. 좀더 가까이 접근하면 불꽃을 보

게 되는데 이것은 시각을 통한 통찰의 확신으로 얻은 지식이다. 그리고 연기를 피우기 위해서는 불을 켜야 하는데 이것은 경험의 확신으로 얻은 지식이 된다. 전능하신 알라신께서는 지옥의 존재에 대한지식은 이성을 통해 현세에서 얻어지고 통찰의 확신을 통해서는 지식이 죽음과 심판의 중간 단계인 바르자크(Barzakh)에서 얻어지며 심판의 날에는 경험의 확신으로 얻어진다고 하셨다.

세가지 상태

성전코란에 의하면 이 단계에는 존재의 세가지 상태가 있다. 첫 번째는 태초의 창조요, 노력의 상태인 세계이다. 이 세계에서 사람들은 선과 악을 행한다. 부활 이후에 의인들은 계속해서 선을 추구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알라신의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는 바르주크(Barzakh)라는 중간상태이다. 아랍어에서 바르주크(BARZUKH)는 다른 두개의 중간에 있는 어떤 것을 뜻한다. 그 상태는 태초 주의창조와 부활의 중간에 있으므로 바르주크(Barzakh)라 한다. 이 표현은 항상 중간단계에만 사용되는 표현이다. 그러므로 중간 상태의 존재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위대하나 보이지 않는 증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는 저서 「Minanur Rahmans」에서 아랍어란 것은 알라신의 입에서 나온 언어이고 그러므로 가장 신성한 신자의 유일한 언어이며 가장 오래된 언어이며 또 모든 종류의 지식의 근원이 되며 모든 언어의 모체이고 신의 계시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서술했다. 아랍어는 태초부터 알라신과 함께 한 그분의 언어이므로 알라신의 계시를 전하는 첫 번째 찬사이다. 그 언어가 세상에 내려오고 사람들이 그 언어를 변화시켜 자기들의 고유한 언어로 만들었다. 알라신의 마지막 책인 성전코란이 아랍어로 씌어졌으므로 그것은 알라신의 계시를 전하는 마지막 찬사인 것이다. 바르주크(Barzakh)는 바라(Barra)와 자카(Zakha)가 합성된 아랍어로서 행동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끝이

있고 감춰진 상태로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르주크(Barzukh)는 인간이 용해되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상태이다. 육체는 지옥에서 불타게 되고 영혼 역시 자카(Zakha)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지옥 속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는 육체를 통해서만 가능한 선과 악을 더 이상 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체가 건강해야 영혼이 건강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뇌의 한 부분을 다치게 되면 기억력이 없어지고 또 다른 부분을 다치면 사고능력이 파괴되어 무의식 상태가 된다. 그와같이, 어떤 장애가 있어 뇌 근육이 경련을 하거나, 혹은 생기거나, 뇌출혈을 하게 되면 인사불성, 간질, 뇌일혈 증상을 보인다. 그러므로 경험을 통해 우리는 육체에서 분리된 영혼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육체가 없는 영혼이 기쁨과 환희를 느낀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런 환상을 즐길런지도 모르나 그것은 이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이다. 육체가 동요하여 무기력해진 영혼이 육체와의 유대가 끝났을 때에도 완전한 정상적인 상태에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우리는 신체의 건강이 정신건강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매일 경험을 통해 배우지 않는가? 나이가 아주 많이 들게 되면 영혼은 망령되기에 이른다. 영광되자 알라신께서 말씀하셨듯이 나이는 지식을 앗아가는 것이다.

ARABIC EXPRESSION

많은 지식을 익힌후에 나이를 먹게 되면 그것을 모두 잃게 된다(22 : 6). 이 말은 육체 없이 영혼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전능하신 알라신께서는 육체 없이도 영혼이 의미를 가지게 된다면 그러한 영혼은 죽어야할 운명을 지닌 육체와 관계를 맺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신다. 더욱이 알라신께서 끊임없는 발전을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육체가 함께 하지 않고는 영혼이 현세의 짧은 생에서 발전을 이룰수 없는데 어떻게 내세에서 영혼이 육신과 함께 끊임없이 긴발전을 하기를 기대할수 있는가?

이슬람 교리에 의하면 완전히 행동하는 영혼은 항상 육체와 함께 있

어야 할 필요가 있다. 죽음에 임하면 영혼은 죽어야 할 운명을 지닌 육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 하지만 중간 상태에서는 모든 영혼은 육체로 들어가 그 상태의 조건에 맞는 반응을 나타낸다. 여기서 육체는 물리적 의미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상태에서는 육체가 영혼의 구실을 하는 것과 같이 현세에서의 인간 행동의 특징에 따라 그것은 빛이나 어둠에서 생긴 것이다. 알라신 말씀 속엔 어떤 육체가 밝게 될 것인지, 어둡게 될 것인지 반복적으로 말하신다. 그들은 인간의 행위들의 어둠과 밝음으로 준비되어 질 것이다. 이것은 멋진 신비스러움이긴 하지만 이성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완전한 인간은 현세에서도 빛을 가진 밝은 육체를 지닐 수 있으며 환영을 통해 많이 경험한 예가 있다. 보통 정도의 지능을 가진 사람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환영의 상태를 경험한 자들은 인간의 행동에서 비롯된 그러한 육체를 놀랍다거나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런 현상들을 바로 이해할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이 육체는 사람의 행동의 상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중간상태에서 선과 악을 보상하는 근원이 된다. 나는 이것을 경험했다. 의식이 완전히 깨어 있는 상태에서 죽은 사람을 만나 볼 경험이 있었다. 악을 행한 사람과 잘못된 길을 간 사람들의 육체는 마치 연기로 만들어진 것 처럼 까맣게 된 것을 보았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고 전능하신 주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은 사후에 육체로 싸여 밝게 되거나 혹은 어둡게 된다는 것을 확신한다. 인간이 단순히 이성을 통해서 이러한 통찰을 하고자 하는 것은 잘못이다. 눈으로는 달콤한 것을 맛볼 수 없고 혀로는 아무 것도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로지 알라신의 통찰력으로만 알 수 있는 사후의 삶은 이성을 기초로 해서는 완전히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전능하신 주께서는 이 미지의 세계에 대해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정해주셨다. 그러므로 적절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구해야만 그것을 알 수 있다.

명심해야 할 또 다른 사실은 알라신께서는 악이나 잘못과 관계 있는

사람은 죽은 자, 선한 사람은 산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먹고 마시고 자신의 욕정에만 빠져서 주를 멀리하다가 죽은 사람은 그 생명이 기능을 잃고 영적인 양분을 나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진정으로 죽은 사람들이고 부활하여 단지 형벌을 당할 뿐이다. 주 알라신 영광된 자가 말씀하신 바,

ARABIC EXPRESSION

진실로 죄인으로 주님께로 오는 자는 지옥에 있고 거기서는 죽는 일도 없고 사는 일도 없다(20 : 75). 그러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양분이 그들과 함께 있으므로 육체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다. 바르주크(Barzukh)다음은 부활의 상태이다. 이 상태에서는 선하진, 악하진, 의롭던지, 순종하지 않았던지 간에 모든 영혼은 눈에 보이는 육체를 갖게 된다. 그 날은 주의 완전한 계시의 날로 정해진 날인데 모든 사람이 주님의 존재에 대해 완전히 알게 되며 주님께서 보상을 주시는 절정에 이르는 때이다. 주님은 모든 권능을 가지셨고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이시므로 이것은 별로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ARABIC EXPRESSION

내가 한 방울의 핵으로 창조하였다는 것을 인간이 모른단 말인가!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다투고 있다. 그는 그가 어떻게 창조 되었는지 알고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을 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묻는다. “사람이 죽어서 뼈가 섞은 뒤에 어떻게 그를 다시 소생시킬 수 있느냐? 누가 소생시키는 능력을 가졌느냐?” 이르라 태초에 창조하신 알라신께서 그들을 소생시킬 것이다. 알라신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알고 계시노라(36 : 78~80).

알라신께서 무엇인가 필요하실 때는 단지 “있어라!”라고 명령하시면 이루어 진다. 그러므로 그의 손이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알라신의 나라인 것은 거룩한 것이다. 너희들은 그에게 돌아가는 것이니라(36 : 82~

84). 이귀절에서, 영광스러운 그분의 권능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알라신은 인간을 창조하는 두 번의 능력이 아닌 적은 한 방울의 핵으로 창조하셨단 말인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부활의 세 번째 상태에 이르므로 바르주크(Barzukh)의 상태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로 단지 감옥일 뿐이며 또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의를 제기할 런지도 모른다. 그 정답은 무식하여 잘못 이해했다는 것이다. 알라신의 경전에서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보상하는 두가지 상태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모든 사람이 은밀하게 보상 받는 바르주크(Barzukh)의 상태이다. 사악한 자는 죽어서 바로 지옥에 들어가고 선인은 바로 천국에서 평안을 찾을 것이다. 성전 코란에는 모든 사람은 죽음과 동시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보상을 만날 것이라고 하는 여러 구절이 있다. 예를 들어, 선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셨다.

ARABIC EXPRESSION

알라신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으로 들러오라’(36 : 27). 그리고 악한 자에 대해 말하길

ARABIC EXPRESSION

이것은 두 친구에 관한 것인데 그 중의 한명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다른 사람은 지옥으로 갈 운명이었다. 천국으로 가는 사람은 친구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하고 걱정하였다. 그 사람이 보니 친구는 지옥의 한가운데에 있었다(37 : 56). 그러므로 상과 벌은 즉시 시작되고 지옥으로 갈 운명인자는 지옥으로 가고 천국으로 가는 것이 허락된 자는 천국으로 간다. 그러나 이후에 위대한 계시의 날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탁월한 지혜로 정하신 날이다. 주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으므로 창조의 권능을 인정 받아야 한다. 그리고 모든 것을 파괴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니 지상권을 인정 받고 완전한 생명을 준 후에 모든 사람을

불러 권능을 인정 받을 것이다.

두 번째 통찰

성전코란에서 말하는 사후의 삶에 관한 두 번째 통찰은 내세에서는 현세의 모든 영적 상태가 물리적으로 중간 상태와 부활의 상태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내용에 대해 한 구절은 아래와 같다.

ARABIC EXPRESSION

현세에서 장님이었던 인간은 내세에서도 장님이고 길을 잃어 버리는 일이 더 많을 것이다(17 : 73). 이것은 현세에서 영적으로 눈 멀었던 것이 내세에서 물리적으로 나타나고 느껴진다는 것을 뜻한다. 다른 구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신다.

ARABIC EXPRESSION

이 지옥의 악인을 붙잡아 목에 쇠사슬을 씌우고 지옥의 불 속에서 태워 버리려고 칠십 척 사슬로 묶어라(69 : 31~33).

이 구절은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고통을 당한 것이 내세에서는 물리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예를 들어 세속적인 야망의 굴레로 머리가 땅을 향하고 있었는데 사후의 세계에서는 물리적으로 그것을 알아보게 된다. 그와 비슷하게 세속적인 일에 몰두했던 사슬은 그의 다리를 둘러싸인 것으로 보여지고 세속적 욕망의 불길은 활활 타오르는 화염 속에서 나타날 것이다. 악덕한 사람은 자신의 내부에 있는 세속적인 탐욕과 욕망의 모든 지옥을 감추고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이 지옥이 뜨겁게 불 타오르는 기분을 느낀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영원한 절망에 빠지게 되면 전능하신 주님은 그의 슬픔이 물리적인 불의 형태로 나타나게 할 것이다.

ARABIC EXPRESSION

그들 사이에 장벽이 가로 놓일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동경할 것이고 고통의 뿌리가 될 것이다(34 : 55). 50척의 사슬이 의미하는 것은 사악한 사람이 칠십 수를 누리는 경우가 많고 때때로 어린시절이나 최 고령의 나이는 제쳐 두고 70년의 세월을 얻는데 그 세월에 현명하고 바른 분별력을 갖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한 사람은 세속적이고 번거로운 일에 이 70년을 낭비하고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 귀절에서 단언 하는 바 그러한 사람이 세속적인 일로 낭비한 70년의 세월이 내세에서는 한해마다 한 척이 되어 70척의 사슬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것과 관련하여 전능하신 주는 자신이 내리는 불행으로 그의 피조물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주는 스스로 악한 행동을 한 자를 대하는 것뿐이다. 다른 대목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ARABIC EXPRESSION

타락하고 잘못된 자들아, 세 개의 가지가 있는 그들이 있는 곳으로 급히 가거라. 그 곳은 실은 그들도 없고 불길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곳도 없다(77 : 31~32). 여기서 말하는 세 개의 가지라는 것은 동물성, 미개성, 야성을 나타낸다. 이 세가지 기능을 조절하지 않고 그것들을 도덕성으로 부정하게 유용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내세에서 나무의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잎사귀가 없어 그들도 지지 않고 불에 대한 피신처도 될 수 없기에 사람들은 불에 타 버리고 말 것이다. 하나의 대조로서 전능하신 주님은 천국에서 살고 있는 자들에 대해 말씀하셨다.

ARABIC EXPRESSION

그 날이 되어 그대가 남녀 신자를 본다면 이 세상에서는 감춰진 광명이 그들 앞쪽이나 오른쪽으로 나아간다(57 : 13). 다른 구절에서는

ARABIC EXPRESSION

그 날에 어떤이의 얼굴은 희게 되고 다른 이들은 검게 될 것이다(3 : 107). 세 번째 귀절에서 말씀하시기를,

ARABIC EXPRESSION

경건한 자에게 약속된 낙원안에는 썩는 일 없이 물이 흐르는 시내, 맛이 변하지 않고 젖이 흐르는 시내, 취하지 않고 마시는 자에게 기쁨을 주는 포도의 시내, 더러움이 없이 맑은 꿀이 흐르는 시내 등이 있다 (47 : 16). 여기서는 천국이라는 것은 마르지 않는 이러한 은총들의 시내가 은유적으로 나타난 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것은 영적인 이해를 가진 사람이 마시는 생명의 물이 내세에서는 눈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현세에서 젖을 빠는 유아와 같이 그를 지탱시키는 영적인 젖이 천국에서는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항상 영적을 취하게 만드는 주님의 사랑의 포도주가 천국에서는 강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영적인 이해를 가진자가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마신 믿음의 달콤한 꿀이 천국에서는 물리적으로 나타나고 느껴진다. 천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낙원의 정원과 강을 통해서 솔직하게 자신의 영적 상태를 나타낼 것이다. 그날 주님은 천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낼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내세에서 영적인 상태는 감춰져 있지않고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고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성찰

내세와 관련된 세 번째 성찰은 전능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안에는 무한한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ARABIC EXPRESSION

신자들의 광명은 그들의 앞과 오른쪽 손으로 달려갈 것이다. 그리고

“주님, 우리의 광명을 온전케 해주십시오.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십시오. 진실로 당신은 만사에 힘을 비추시는 분입니다 라고 간구할 것이다(66 : 9).” 그들의 광명을 온전케 해 달라는 간청은 무한한 발전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들이 개발의 단계에 이르면, 자신들 앞에 놓여진 더 높은 단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바라 보면서 그 단계에서 자신들이 비천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더 높은 단계에 이르게 해 달라고 간청한다. 그들이 그 단계에 이르면 자신들 앞에 놓인 더 높은 세 번째 단계를 인식하고는 그것을 이루게 해 달라고 간청한다. 그들이 끊임없는 발전을 열망하고 있다. ‘우리의 광명을 완전케 하라.’는 표현에서 나타난다. 간단히 말해서 이러한 성장의 사슬은 무한정하게 계속되는 것이다. 사라지지도 않고 천국에서 쫓겨나지도 않을 것이며 앞을 향해 나날이 나아갈 것이다.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모든 죄를 용서 받았는데 용서해 달라고 간청할 필요가 더 이상 있는가 하고 의문이 생길런지도 모른다. 용서를 구한다는 진정한 의미는 불완전하고 결함이 있는 상태를 감추고 덮는 것이라는 것이 그 대답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천국에 살고 있는 자들은 완전해지고 광명 속에 들어가기로 원하고 있다. 더 높은 상태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결함투성이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결함투성이의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리고자 한다. 그러나 변함없이 높은 상태를 바라보면서 한층 낮은 자신들의 상태가 덮여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원은 때때로 평화와 축복의 근간이 되시는 알라신을 나쁘게 비평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열망이 인간에게는 분명히 자존심에 관한 문제라고 나는 믿는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 용서를 구하는 것을 몸에 익히지 않은 사람은 인간이 아닌 벌레이며 아무 것도 볼 수 없는 소경이며 깨끗하지 못하고 부정확한 존재이다. 간단히 말해서, 성전코란에 의하면 지옥과 천국은 모두 인간의 생활을 비쳐주는 것으로서 외부에서 오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사실 그것들은 내세에서 물리적 나무가 있고 지옥이 유향으로 가득 찼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슬람의 가르침에 의하면 천국과 지옥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행한 행동들을 반영하는 것이다.

세 번째 질문

인간이 사는 목적과 그 목적을 성취하는 방법

근시안적이고 강한 결심이 없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은 서로 다른 인생의 목적을 정한다. 또한 그들은 세속적인 목표와 야심에 스스로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께서 신성한 말씀으로 인간에게 정해주시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ARABIC EXPRESSION

내가 정령(jinn : 회교)《精靈》(demon)[천사보다 하위에 있는 영]이나 인간을 만든것은 나를알고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함이니라(51 : 57). 그러므로 인간이 살아가는 진정한 목적은 주를 섬기고 그분을 이해하며 그분에게 온전히 헌신하기 위한 것이다. 인간이 자발적으로 세상에 온 것도 아니요 또 자신의 의지로 떠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목적을 정할 위치에 놓여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다. 인간은 피조물이다. 인간을 창조하고 다른 동물보다도 더 좋고 높은 능력을 불어 넣은 오직 알라신이신 그분이 또한 인간의 삶의 목적을 정해주는 것이다. 인간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간에, 의심할 바 없이 주를 섬기고 이해하며 또 그에게 온전히 헌신하기 위한 것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다. 성전코란이 다른 대목에서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ARABIC EXPRESSION

알라신을 진정으로 알게하고 진심으로 숭배하도록 하는 종교가 이슬람이다(3 : 20).

이슬람은 인간이 천부적으로 속하여져 있고 이슬람과 조화를 이루어 창조 하였다. 그것은 영원한 종교이다(30 : 30~31). 이것은 주께서 인간에게 이슬람에 부합되는 모든능력을 주셨기에 인간은 자신의 모든능력을 다하여 주를 섬기고 복종하며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귀절에는 넓은 의미가 담겨있는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3편에서 말한 것 중의 하나 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인간에게 내면적 외면적 신체와 능력이 주어진 것을 주님과 주님에 대한 숭배와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얘기하고자 한다. 이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많은 과제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알라신을 떠나서도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많은 재물을 갖고, 높은 지위에 앉아있고 거상이되고 커다란 왕국을 다스리고 위대한 철학자로 알려졌다 할지라도 결국 크게 한탄하면서 모든 이러한 것들로부터 떠나가야한다. 인간의 마음은 자신의 세속적인 것만을 생각하고 있음을 끊임없이 꾸짖고 인간의 양심은 교활하고 불성실하며 부정한 행동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지적인 사람들은 발휘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런 문제를 받아들이다. 예를 들어서, 밭을 갈고 물을 대고 운반을 하는 것이 소가 하는 최상의 일들로서 그런 능력은 다른 일에는 적합지 않다. 그러므로 소는 이 세가지를 하기 위해 살고 있다. 또한 다른 일을 할 능력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능력을 자세히 살피고 무엇을 최대로 이룰 수 있는가 알고자 한다면 인간은 고귀하신 주님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인간은 주님에게 너무나 헌신적이어서 자신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한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먹고 잠자는 것과 같은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 어떤 동물들은 근면에 있어서는 인간보다 훨씬 부지런하다. 실제로 여러 종류의 꽃에서 꿀을 뽑아 내는 벌은 아주 좋은 양질의 꿀을 만들어 내므로 인간은 벌들과는 비교도 될 수 없다.그러므로 인간이 가진 최상의 능력의 목표는 고귀하신 알라신을 만나는 것임은 당연하다. 따라서 진정으로 신을 향한 마음의 창을 열어 놓는 것이 사람이 살아 있

는 참된 목적이다.

인간의 목적을 이루는 방법

이러한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며 어떤 방법으로 알라신을 만날 것인가 물어볼지도 모른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는 첫 번째 방법은 전능하신 주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진정한 주님을 믿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이 첫 번째 단계가 옳지 않고 인간이 새나 동물 자연의 힘 또는 인간사를 신으로써 믿게 된다면 주님을 향해 바른길을 따라 더 이상 나아갈수 없게 된다. 진정한 주님은 구하는 사람을 도와준다. 그러나 죽은 신이 어떻게 죽은자를 구원할 수 있단 말인가?

영광스러운 주님은 이 문장에서 좋은 예를 들어 말씀하신다.

ARABIC EXPRESSION

진실한 기도는 그분께 기도하는 일이다. 그분은 모든 것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계신다. 알라신을 잊혀놓고 따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 그것은 입에까지 오라고 물을 향해 양손을 벌리고 있는 자에게 결코 물이 올 리가 없는 것과 같다. 믿음이 없는 자의 기도는 오로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뿐이다(13: 15). 두 번째 방법은 전능하신 주의 완전미를 불러 넣는 것이다. 마음은 자연적으로 아름다움을 그리며 아름다움은 마음속에 사랑을 만드는 것이다. 성전코란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신의 아름다움은 통일성이요, 위대하미요, 존엄성이요, 그리고 다른 권능이다.

ARABIC EXPRESSION

주는 존재와 권능과 영광에 있어 비할데가 없는 유일한 분이며 그분에게 경쟁자가 없다. 모든 것은 그 분에게 달려 있다. 모든 미물에도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에 있어서 은총의 근본이 되시며 어떤것에 있어서

은총의 근본이 되시며 어떤 것에서도 은총을 받지 아니하신다. 낳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고 오직 한 분으로 아무도 그분과 견줄자가 없다(112:2~6). 성전에서는 알라신이 위대하고 고귀하신 바를 거듭 강조한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 원하는 것은 주님 한 분밖에 없으며 그분은 죽지도 연약하지도 무정하지도 무능하지도 않은 존재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한다. 사랑을 유발시키는 것은 아름다움과 자애로움 두 가지이므로 주님께 다가가는 세 번째 방법은 주님의 자애로움을 아는 것이다. 주님의 자애로움의 권능은 수라 파티하에서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나타나 있다.

ARABIC EXPRESSION

알라신은 무에서 그분의 종을 창조하셨고 자애로움과 신의섭리로 그들에게 임하신다. 그분은 모든 것의 주축이 되시고 모든 유형의 자애로움이 그분의 피조물에게 보여진다.(1:2~4). 그분의 말씀대로 자애로움은 끝이 없는 것이다.

ARABIC EXPRESSION

알라신의 은총을 헤아리고자 하여도 헤아릴 수 없다(14:35). 전능하신 주님께서 정하신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네 번째 방법은 기원이다.

ARABIC EXPRESSION

나를 부르라. 그러면 네게 응답하리라(40:61). 우리는 구원하여 우리 능력이 아닌 알라신의 능력을 통하여 알라신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정하신 목적을 이루는 다섯 번째 방법은 주의 이름을 위해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주님의 이름을 위해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고 주님의 이름을 더욱 크게 하는데 모든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 우리의 목숨을 버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 이성을 사용하여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ARABIC EXPRESSION

재산과 생명과 모든 능력으로 신의 길을 위해 노력하라(9 : 41). 지성, 지식, 이해, 예술, 내가 네게 준 것은 무엇이나 알라신의 이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2 : 4). 나를 구하는 자에게 나의 길을 인도하라(29 : 70). 이 목적을 이루는 방법은 초지일관의 확고함이라고 할 수 있다. 구하는 자는 싫증을 내서도 낙담해서도 시험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 해서도 안된다는 뜻이다.

ARABIC EXPRESSION

확신하는 자에게 있어 알라신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거짓된 신에게서 벗어나 곳곳하게 다시말해, 시험이나 재앙하에서도 확고하게 남아있는 자에게는 천사가 내려가 그들을 위로한다. 두려워 하지 말라. 슬퍼도 하지말라 행복감을 느끼며 약속된 기쁨을 얻는것을 기뻐하라. 현세와 내세에 있어 내가 너희의 친구이다(41 : 31~32). 이 구절은 확고함을 가지고 변함이 없으며 전능하신 주님의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인내 그것은 기적 이상의 사실이다. 재앙에 부딪히고 생명과 명예와 명성이 알라신의 이름으로 곤경에 빠지고 어떤 것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 없고 심지어 꿈과 이상과 계시가 시험으로 인해 주님께 의하여 멈추어지고 엄청난 위험속에서 어찌할 수 없을 그런 경우에서도 인간이 낙담하지 않고 겁장이처럼 물러나지도 않고 자신의 믿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면 인내는 완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진실이나 인내가 약해 지도록 해서 안되고 불명예를 기뻐해야만 한다. 죽음을 감수해야 하고 자신의 확고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친구가 도와주기를 기다려서도 안된다. 시련이 심하다고 주님으로부터 기쁜 소식을 주시기를 바래서도 안된다.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어느 곳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없다할지라도 곳곳이 바로 서야 하는 것이다. 자신을 희생해야 할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자신을 재물로 바치고 신의 교리와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시험이 끝날때까지는 불편함을 드러내거나 불평을 나타내서도 안된다. 이것이 주께로 인도하는 확고부동함이다. 그리고 이것이 천사와 선지자 신자들 그리고 순교자가 보잘것없는 작은 티끌로 우리에게 이르는 향기이다. 이것은 또한 다음의 기원에서 나타나셨다.

ARABIC EXPRESSION

확고부동한 은총과 은혜를 내리시고 또한 당신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소서(1 : 6~7). 다른 구절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타나 있다.

ARABIC EXPRESSION

주여, 시험의 시간에 인내를 내려 주시고 우리들을 귀의자로서 불러 주십시오(7 : 127).

불행하고 곤란한 시기에 전능하신 알라신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의 가슴에 빛을 내려 주시고 그들이 기운을 갖게 하시어 침착하게 이 불행에 대처하고 믿음의 달콤함으로 자신을 구속하고 있는 사슬에 입을 맞춘다. 주를 믿는자는 고통을 받고 죽음에 임박했을 때 그런 상태에서 자애로우신 알라신께 구원해 달라고 욕구하지 않는다. 그런 상태에서 살려 달라고 간청하는 것은 알라신의 교리에 어긋나는 것이요, 또한 온전하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진정 알라신을 사랑하는 자는 불행을 감수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버리고 불행이 닥쳐 왔을때 목숨이란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그것을 알라신의 뜻에 온전히 따르며 오직 알라신의 기쁨만을 얻으려 한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 전능하신 알라신께서는 말씀하신다.

ARABIC EXPRESSION

알라신이 사랑하는 이는 알라신께서 즐거워 하시는 것을 드리기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친다. 그러한 사람들은 알라신의 자비를 얻을 것이다 (2 : 208). 이것은 인간이 알라신을 만날 수 있게 되는 확고부동한 정신인 것이다.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는 일곱 번째 방법은 의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을 완벽한 본보기로 삼는 것이다. 선지자께서 출현하시길 고대하는 자들은 천성적으로 완벽한 본보기를 원하는 자들이고 그러한 본보기는 더욱 더 열중하게 만들고 강한 결단력을 더욱 크게 하는 것이다. 본보기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태하게 되고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된다. 영광되신 알라신께서는 다음 귀절에서 이것을 지적하신다.

ARABIC EXPRESSION

의로운 자들을 사귀어라(9 : 119). 은혜를 내리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 하소서(1 : 7). 다시 말하자면, 의인들과 관계를 맺고 너희들보다 먼저 은총을 받는 자들의 길을 따라야 한다.

삶의 목적을 달성하는 여덟 번째 방법은 통찰력과 진정한 꿈과 계시이다. 전능하신 알라신께 이르는 길은 어려운 길이고 불행과 곤경으로 점철되어 있고 또 낯설은 길을 가는 도중에 길을 잃어 헤매고 절망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그만 둘 수도 있으므로 알라신의 은혜는 그를 위로하고자 하며 그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고 또 정열과 열정을 배가시킨다. 그러므로 주의 길은 때때로 말씀과 계시로서 그러한 자들을 위로하고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힘을 얻고 이 여정에서 열심히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ARABIC EXPRESSION

현세에서도 내세의 생활에서도 기쁨의 소식이 있다(10 : 65). 성전코란에서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나타내고 있지만 시간상 그것들을 여기에서 모두 읊길 수는 없다.

네번째 질문

현세와 내세에서의 실제적인 율법의 실행

우리는 앞서 진실되고 완벽한 신의 법칙이 현세에서 인간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하였다.

그것은 인간의 원시적 상태에서 구원하여 인간의 존재로 변모시켰고 그 다음에 높은 도덕성을 주입시켜 마침내 인간이 믿음을 갖도록 하였다. 실질적 율법을 실행하면 새로운 법만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자기와 함께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알게 되고 적절한 시기에 공평정대하고 자애로우며 진정으로 연민을 느끼는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런 사람들은 각각의 지위에 따라 동료와 함께 은총을 나누는데 그것은 지식 이해력 부 안락하게 만드는 수단들처럼 알라신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은총이다. 그는 태양처럼 온 인류에게 빛을 비추고 달처럼 알라신에게서 얻은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낮과 같이 밝고 의롭고 착한길을 보여주고 밤과 같이 그들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지친자들에게 평안을 준다. 하늘처럼 필요한 자 누구에게나 자신의 그림자 아래에 그들을 만들어주고 적당한 시기에 은총의 비를 퍼붓는다. 대지와 같이 가장 겸손하게 그는 마루와 같은 존재가 되어 모든 이에게 평안을 주며 서로 가까이 모이게하여 보호될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종류의 영적인 열매들을 준다. 완벽한 율법을 신봉하는 사람은 알라신에 대한 책임과 자신의 동료, 피조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다. 그는 알라신에게서 자기 자신을 잃고 알라신의 피조물에게 진정한 종이 된다. 이것이 현세에서의 그의 인생에 있어 실제적 율법에 의해 실행했기에 생기는 일들이다.

내세에서는 결과적으로 그것들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명

백한 실체로서 알라신과 영적인 관계를 맺을 것이다. 신앙심에 자극을 받고 알라신에 대한 사랑으로 알라신의 피조물들에게 봉사하고 선한 행동에 대한 열망은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ARABIC EXPRESSION

우리는 태양과 빛을 증거로 한다. 그리고 태양을 쫓고 태양으로부터 빛을 얻어 인간들에게 그것을 전할때 달을 증거로 한다. 태양빛을 드러내며 길위에 나타날 때 낮을 증거로 한다. 어두워져 모든것을 자기내부에 감쌀 때 밤을 증거로 한다. 내가 하늘을 증거로 하는데 그것은 창조하기 위한 것이다. 대지를 증거로 하는데 마루와 같이 넓게 펼쳐진 것이다. 우리는 인간의 영혼을 증거로 하는데 인간을 다른 모든것들과 동등하게 만드는 특징이 된다. 다시말해서, 모든 이러한 특징들은 이미 언급된 다른 조직들 중에 산채해 있는 다른것을 알 수있는데 완전한 인간의 영혼속에서 모두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대부분의 것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에게 봉사하고 있기에 완전한 인간은 자기 혼자서 모든 봉사를 하고 있다. 알라신께서는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사람은 죽음에서 구제되고 구원도 얻는다고 하셨다. 다시 말해서 영혼을 정화시키는 사람은 태양이나 달이나 대지와 같이 알라신께 헌심함으로써 알라신의 피조물에 봉사하는 자들이다.

이 문맥에서 생명이란 영생을 뜻하는 것이고 그것은 완전한 인간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것은 실제율법에 따르게 되면 내세에서 영생을 얻고 신의 통찰력으로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뜻한다. 영혼을 더럽히고 적절한 능력을 부여받는 특성을 갖지 못하고 부정하게 삶을 낭비한 후에 죽는 사람은 파멸하고 영생을 누리기를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것은 주의 압낙타의 경우에 잘 나타나 있는데 타무드족의 사악한 인간에 의해 병신이 되어 그의 샘터에서 물을 마실수도 없게 되었다. 인간의 영혼은 알라신이 걸터 앉으시는 압낙타가 되며 인간의 마음속에서 알라신께서는 계시하신다. 낙타가 마시는 물은 알라신의 사랑

과 이해를 말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낙타의 목숨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타무드인이 주님의 낙타를 병신으로 만들어 샘물을 마실수 없게 했을때 주님은 그들의 죄에 징벌을 내려서 일물로 처치해 버리셨고 그결과 따위는 이제 근심하시는 일도 없다. 그리하여 자기의 영혼을 더럽혀 영적인 자양분을 취할수 없게 하고 또 영혼을 성장시키고자 하지 않는 자는 파멸하고 만다(91 : 2~16).

성전코란에 나타난 맹세의 철학

알라신께서 태양과 달등을 증거로 하시는데는 깊은 철학이 담겨져 있다. 우리에게 대립하는자들은 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므로 피조물들을 증거로 하였다하여 알라신을 비방한다. 그들의 이해는 신성스러운 것이 아닌 세속적인 것이므로 진정한 통찰력을 알지 못한다. 자기의 주장을 옹호하여 증거를 내세우기 위해 맹세를 하는 것이다. 알라신께서는 숨겨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논쟁거리에서 최고의 증인이 되시므로 자신의 주장에 대해 증거가 없는 사람은 알라신을 증인으로 부른다. 알라신의 이름으로 맹세함으로써 알라신의 증거를 내세운다. 그것은 알라신께서 내세우지 않는 사람을 옹정하지 않으시면 그 사람의 주장이 진실되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된다.

피조물에게 맹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것이다. 피조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지식이 없으며 거짓맹세한 자를 처벌할 권능도 없기 때문이다. 이 귀절에서 알라신께서 다양한 현상들을 증거로 하신 것은 인간이 맹세를 하는 것과는 같은 것이 아니다. 알라신은 두가지 유형으로 계시하신다. 그 하나는 눈에 보이는 뚜렷한 것인데 이 경우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두번째는 알라신의 계시가 막연한 것인데 이것은 사람들이 의견을 달리하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이다. 뚜렷한 현상을 증거로 한 알라신의 목적은 그 증거에 의해서 그분이 추론적 계시를 제시하시는 것이다.

태양과 달, 낮과 밤, 하늘과 대지는 이미 언급한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개개의 사람들이 인간의 영혼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인식하지 못함은 분명한 일이다. 그러므로 알라신께서는 주의 추론적 계시를 설명하기 위해 뚜렷한 계시를 증거로 말씀하신다. 이것은 알라신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같다. 만약 인간 영혼이 가진 특성에 대해 의심이 가면 이러한 특징을 가진 태양과 달과 다른 현상들에 대해서 생각하라. 인간이 아주 작은 우주모형을 표현한 하나의 소우주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소우주의 거대한 조직이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알라신의 피조물을 유익하게 함이 분명한데 모든 이런 조직 중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인간에게 어떻게 이러한 특징들을 없겠는가?

그렇지 않다. 지실로 인간은 태양처럼 지식과 이성의 빛을 가지고 있으며 그로써 그 세상을 밝힐수 있다. 달과 같이 알라신으로부터 통찰력과 계시의 빛을 얻어 아직 최고조의 진실을 단계에 이르지 못한 자들에게 그 빛을 전한다. 그러므로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그릇된 개념이고 모든 예언자, 알라신의 율법이나 성전이라고 알려진것들이 단지 어떤 인간의 사기요, 이기심이라고 어찌 말할수 있는가. 동이 터오면 어떻게 모든 것들이 밝아오고 어떻게 솟아있는 곳과 움푹파인 곳이 뚜렷해지는지 주목해야 한다. 그와 같은 완전한 인간은 연적인 빛의 날이며 그분께서 출현함으로써 모든 길이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다. 그분께서는 올바른 길을 말씀하시고 계시며 이는 그분 자신이 바로 진실과 의로움의 밝은 빛이기 때문이다. 그와 유사하게 밤이 보호속에서 잠자고 일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지 보라. 밤은 또한 모든 결합과 불안전함을 덮어준다. 마찬가지로 완전한 알라신의 종은 인간에게 평안을 주고 계시를 받은자는 현명한 모든자를 극진한 수고로부터 구해내다. 그들을 통해서 통찰력에 대한 큰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 또한 알라신의 계시는 인간의 이성이 가지는 결합들을 덮어주고 밤처럼, 그것의 잘못이 알려지지 않도록 한다. 왜냐하면 현명한 인간은 계시의 불빛속에서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바로 잡으며 알라신의 신성한 계시의 축복을 받음으로써 자신들

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이슬람교의 철학자들은 플라톤이 했던 것처럼 우상에게 수밖을 제물로 바치지 않는다. 플라톤은 계시의 빛을 잃어 잘못 인도 되었고 위대한 철학자였음에도 그렇게 우둔하고 가증스러운 행동을 하였다. 우리 주님이시며 주재자이신 알라신을 따르고 알라신의 평화와 축복이 임하면 이슬람교의 철학자들은 그러한 우둔하고 거룩하지 못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보호되어진다. 이것은 신의 계시가 어떻게 밤과 같이 현자의 결합을 덮어주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

또는 완전한 알라신의 종이 천국과 같이 지친자에게 쉼곳을 마련해 준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선지자와 알라신의 계시를 받는자들은 하늘과 같이 자애로움을 쏟아주며 계다가 대지가 갖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 유형의 지식의 나무들은 그들의 깨끗한 영혼과 인간이 유익함을 얻는 그들과 꽃과 열매에서 생겨난다. 그러므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 보여지는 자연의 법칙은 감춰진 우리가 볼수 없는 법칙들을 본보기로 하는데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이 귀절에서 맹세로써 그 증거를 인용하셨다. 그러므로 지혜로 가득찬 말이 성전코란에서 어떻게 나타났고 교육을 받지 못하고 사막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어떻게 흘러나오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라.

만약 알라신이라는 말씀이 없었다면 현명한자들, 교육받은자들, 그리고 예리한 통찰력에 대항하는자들이 알라신을 비평할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이 유한한 이성에 근거해서 사물을 이해할수 없을때 지혜를 기본으로 하는 것들을 비난하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다. 그리고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지혜의 핵심을 평범한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명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 그러나 진실이 드러난 지금, 분별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비평하지 않고 그것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성전코란의 다른 대목에서는 계시의 현상을 옹호하는 자연의 법칙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ARABIC EXPRESSION

우리는 하늘을 증인으로 삼는다. 하늘은 비를 내려주며 대지는 그러한 비가 있음이요, 계시이다. 그리고 진실과 거짓의 차이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시기를 내리는 비와 같은 것이다(86 : 12~15). 여기서 전능하신 주님은 알라신의 말씀인 성전코란의 진실성을 옹호하며 잘 알려진 자연의 법칙을 얘기하고 계신다. 필요한 때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위의 모든 식물은 비에 의존하는 것이 상식이다. 비가 그치면 샘물은 점차로 마른다. 그러므로 땅위의 물은 하늘에서 오는 비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장마철에 샘물이 불어나고 하늘에 있는 물이 땅에 있는 물을 샘솟게 한다. 알라신의 계시와 인간의 이성도 바로 이런 관계이다. 알라신의 계시는 하늘의 물이며 인간의 이성은 하늘의 물이며 인간의 이성은 하늘의 물로부터 생명줄 얻는 땅의 물이다. 알라신의 계시가 없으면 즉, 하늘에서 물이 내려오지 않으면 땅의 물은 점점 말라버린다. 오랜세월이 흘러도 알라신께서 땅에 계시하지 않으시면 땅의 물이 썩어 말라버리듯 지혜의 이성도 썩어버리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이런 현상을 이해하려면 출현 즉,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내리기 전에 즉시 세상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예수가 태어난지 600년이 지났어도 그동안에 알라신의 계시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모든 세상은 썩고 부패해 버렸다. 모든 나라의 역사를 보면 성 예언자의 출현은 알라신의 평화와 축복이 그분께 임하시기 전에 온 세상에 거짓이 만연하고 있었음을 알수 있다. 왜 이런일이 일어났는가? 오랫동안 알라신이 계시하지 않으셨고 천국이 인간의 이성의 손안으로 타락해 버렸기 때문이다. 인간이 불완전한 이성을 좇음으로 타락해 버렸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다. 결국 오랫동안 계시의 빗물이 내리지 않으면 이성의 물은 말라 버리고 만다.

그래서 맹세에 있어서 전능하신 주님께서서는 확고하고 영원한 자연의 법칙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며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하늘에서 내

려오는 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 하셨다. 그러므로 알라신의 계시를 좌우하는 숨겨진 비밀의 법칙 때문에 분명한 자연의 법칙은 눈에 보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증거에서 유익함을 구하려 노력해야하고 단지 이성에 의해서만 움직여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물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이 없이는 존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샘으로 직접 떨어지던지 그렇지 않던지 모든 샘의 물을 솟아나게 하는 것은 하늘의 물인것과 마찬가지로 현자가 주를 따르든지 따르지 않던지간에 이 세상에서 알라신의 계시를 받게되면 이성은 밝아지고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매우 분명하게 보이게 된다. 인간은 진실을 구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으로부터 보게 된다. 그러므로 알라신의 계시를 받은 축복받은 자가 출현하게 되면 이러한 모든 이성과 감성은 솟구쳐 생겨나고 땅의 물은 솟아나게 된다. 모든 사람이 종교를 구하고 이런 용솟음들이 세속의 물들을 휘저어 놓는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리고 천국의 물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고 알라신의 계시의 물은 인간의 마음에 떨어져 내린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다섯번째 질문

신에대한 지식의 원천

성전 코란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에 따라서는 시간이 짧은 관계로 이 단계에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예시의 방법으로 간략히 진술하고자 한다.

성전 코란에서는 추론으로 얻은 확신, 통찰로 얻은 확신, 경험으로 얻은 확신 등 이 세가지 유형의 지식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확실한 추론으로 얻은 지식이란 것은 우리가 연기를 보고 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것처럼 직접적인 방법이 아닌 어떤 추측으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한다. 불은 보이지 않지만 연기가 보이므로 불이 있다고 믿는다. 성전 코란에 의한다면 우리가 불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통찰을 통해서 얻은 확신이다. 만약 불속으로 들어간다면 우리의 지식은 경험에서 얻은 확신이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모든것들을 설명했고 청자와 독자들에게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지식의 첫번째 유형을 알아야 하며 그것은 확실한 추론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며 이성과 지식인 것이다. 성전코란에서 전능하신 알라신께서는 지옥에서 살고있는 자들이 확신하고 있는 바를 말씀하셨다.

ARABIC EXPRESSION

자신이 이성을 발휘하여 분별있게 종교의 사상이나 교리에 다가가거나 또는 현자나 학자가 말씀하시고 적으신 것을 주의 깊게 듣고 읽었다면 그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벌을 받지않았으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될것이다(67 : 11). 다른 귀절에서도 이것과 일치하는 말씀을 하신다.

ARABIC EXPRESSION

알라신께서는 누구에게나 능력이상의 짐을 지워주시지는 않으신다. 그리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교리만을 말씀하신다. 그리하여 알라신께서는 인간을 견디어낼 수 없는 것을 부과하지 아니하신다(2 : 287). 이 귀절은 귀를 통해서 추론하여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런던을 가보지 않고 그곳을 다녀온 사람들에게 런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말한 것들이 전부 거짓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또 알람지르(Alamgir) 황제 시대에 살지도 않았고 그를 보지도 못했지만 알람지르(Alamgir)가 모그울(Moghul)의 황제중의 한사람이라는 것을 의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그런 사실을 확신하는가? 그 해답은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 끊임없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이 추론에 의해 확신의 단계에 이르는 지식을 갖게 한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었던 사실과 모순되는 바가 없다면 선지자의 책들은 칭각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 된다. 만약에 책이 계시된 것이고 그안에 다른 것들과 모순되는 50내지 60가지의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2개 3개 4개 정도가 정확하고 나머지는 가짜이며 조작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확실한 지식에 근거한 주장이 아닌 것이다. 모든 이러한 책들은 그 책의 모순성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당하고 어떤 지식을 이루는 자료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지식이란 것은 확실한 이해를 줄 수 있어야만 하고 모순을 포함하게 되면 확실한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전코란은 계속해서 들어서 얻은 지식에서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확신할 수 있는 이성에 근거한 논쟁거리들도 포함하고 있다. 성전코란에서 말하고 있는 교리나 계명중에 어느 것도 단순히 권위로 이루어진 것은 없다. 설명한 바와 같이 그것들 모든 것은 인간의 본성으로 새겨진 것들이다. 그것은 '훈계'라고 불려지고 있다.

ARABIC EXPRESSION

축복의 성전코란은 새로운 어떤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천성과 자연의 책속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되새기게 하는 것이다(21 : 51).

ARABIC EXPRESSION

이슬람에서는 강요하여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것을 대변하는 이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2 : 257). 성전코란에는 마음을 밝혀주는 영적인 속성이 있다.

ARABIC EXPRESSION

그것은 마음을 괴롭히는 것에 대한 치료이다. 그것은 단순히 세월이 흐름으로 해서 계승되는 책이 아니라 고도로 이성에 근거한 논쟁거리를 포함하여 빛나는 불빛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지적 논쟁은 그 기본이 이론적으로 옳은 것이라면 틀림없이 인간이 추론으로 지식을 얻게된다. 이것은 다음 귀절에서 나타나 있다.

ARABIC EXPRESSION

현명하고 분별있는 자가 천지의 구조를 생각하고 밤과 낮의 교체를 꼼꼼히 생각하면 그안의 알라신의 존재를 대변하는 이성이 있음을 알게 된다. 그 이성을 기초로 알라신께 더 밝은 빛을 달라고 요청한다. 이런 사람들은 알라신께서 서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저희들 편에 계심을 알고 있으며 지성은 예리하여 천지의 구조를 깊이 생각함으로써 이 튼튼하고 질서정연한 체계가 헛되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알라신의 권능이 나타내신 것임을 확신하게 된다. 그리하여 우주의 창조자이신 알라신께 참외하며 간구한다. '믿음이 없고 불완전한 존재보다 위에 계시는 주님이시여, 지옥의 불에서 우리를 보호하십시오.' 이것은 신을 부정한다는 것은 바로 지옥 그 자체이며 모든 평안과 기쁨은 알라신께서 주시며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데서 비롯된다는 뜻이다. 알라신

을 인정하지 않는자는 현세에서도 지옥에 머무르게 되리라(3 : 198~192).

인간 양심의 본성

인간의 양심은 또한 알라신의 책(성전코란)에서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하여 진 지식의 근원이며 말씀하시길,

ARABIC EXPRESSION

알라신께서 만드신 본성을 따르리라(30 : 31). 본성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생사를 초월하며 차등없이 하나가 되어 만물의 창시자이시고 유일하신 알라신을 믿는 것이다. 비록 이 경우에는 연기를 보고 불을 생각해 내는 것처럼 정신이 한가지 사실에서 다른 사실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지만 양심이란 것은 확실한 추론으로 얻은 지식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매우 미묘한 형태의 이동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에 알라신께서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고 또 인간의 마음으로 관찰하고 깊이 생각할 만한 특징들을 부여하였다. 연기가 원래는 불에서 비롯되듯이 그러한 특징은 만물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능하신 알라신의 존재를 생각하고 그것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깊이 생각해볼 때 알라신이 우리처럼 태어나 우리와 같이 고통받고 죽는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분은 결점이 없으시며 신성하시고 완전하시며 강인하신 자임에 틀림 없다. 알라신을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불과 연기와의 관계를 초월해도 알라신과 완전히 일치하는 유대관계를 느낀다. 그러므로 양심을 통해 얻은 지식을 말하는 다른 단계가 있다. 그것은 우리와 지식을 얻는 것 사이에 매개체가 없는 지식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후각을 통해 좋고 나쁜 냄새를 알고 미각을 통해 단것과 짠것을 알고 촉각을 통해 따뜻하고 추운것을 안다면 그런 모든 지식은 그 자체가 통찰을 통해 얻은 확신인 것이다. 내세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고 귀로 알라신의 목소리를 듣고 눈으로 알라신의 목소리를 듣고 눈으로 진실되고 분명한 알라신의 모습을 볼 때에 비로소 확신하는 정도가 된다. 존재 내부에서 우리 마음은 완전한 이해를 열망하고 갈구하는데 그러한 완전한 이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계시가 필요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만약 전능하신 알라신께서 사전에 이러한 이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왜 우리 마음에 이러한 열망과 갈망을 생겨나게 했는가? 현세는 우리가 내세를 준비하는 유일한 수단이 되는데 소문이나 이야기만을 근거로 진실되고 완전하며 전능하시며 살아계신 알라신을 믿어야 한다거나 여전히 결합있고 불완전한 지성이나 이성에 의지해 살아야 한다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가? 진정으로 알라신을 사랑하는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알라신과 대화를 나누는 기쁨을 누려야만 한다고 바라지 않는가? 알라신을 위해 현세에서 모든것을 포기하고 그의 마음과 생명을 그분께 바치며 알라신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 태양을 보지도 못하고 희미한 불빛 속에서 불평하는 것에 만족해야만 하는가? 살아있는 알라신에 의해 내가 존재한다는 확신을 전혀 아무것도 아닌 철학자들에 의해 쓴 책과 비교가 된다는것은 사실이 아니잖는가? 소위 철학자라 불리워지는 사람들이 자신이 소경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줄수 있단 말인가? 간단히 말해서, 전능하신 알라신께서 구도자들에게 완벽한 이해를 주려 하신다면 그들과의 대화의 길을 터 놓으셨을 것이다. 성전코란에서 영광된자 알라신께서는 기원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다.

ARABIC EXPRESSION

주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신 끝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소서(1: 6~7). 여기서 알라신의 은총이란 것은 인간이 직접적으로 계시와 통찰을 통해 얻게 되는 천국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다. 다른 귀절에서는,

ARABIC EXPRESSION

우리 주님이 알라신이신 것을 믿고 정도를 걷는자에는 천사들이 내려가 '두려워 말라. 슬퍼하지 말라. 너희들에게 약속된 낙원의 복음을 듣도록 하라(41 : 31).'라고 확신을 줄 것이다.

여기서는 알라신의 의로운 종은 무섭고 슬플 때 알라신으로부터 계시를 받게 되고 천사들이 내려가 확신을 줄 것이라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 다른 대목에서는

ARABIC EXPRESSION

계시와 알라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라신을 믿는자는 현세에서 기쁜 소식을 받게 되며 또한 내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10 : 65).

계시의 의미

계시란 시인이 마음속으로 시의 반을 깊이 생각해내고 나머지 반을 마음속으로 찾고 또 그 마음이 나머지 반을 표현하는 것과 같이 어떤 사물에 대해 깊이 숙고하여 자기 자신을 시작하려는 그런 사람의 마음에서 생겨나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계시가 아니며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나타나는 깊은 사고의 결과라고 하겠다. 어떤 것이 선한것인가, 악한것인가 생각할 때 그의 상응하는 생각은 인간의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신앙심이 깊고 정직한 사람은 진실을 옹호하는 시를 짓고 사악하고 부도덕한 사람은 시에서 거짓을 옹호하고 정의를 욕한다. 이 두사람이 어떤 시를 쓴다고 할 때 정의에 대항하고 거짓을 옹호하는 사람이 시를 더 많이 지어 본 경험이 있어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지을 수 있다. 그러므로 만약에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생각을 계시라고 간주한다면 진실과 정의에 대항하고 진실에 반대해서 글을 쓰고 거짓에 호소하는 사악한 시인도 알라신의 계시를 받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많은 소설이 거짓을 함께 다루고 있지만 끊임없이 잘 정리되고 있다. 그렇다고 이런 이야기를 계시라고 못 박을 수 있을

까? 만약 계시가 단순히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생각을 뜻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도둑도 역시 신의 계시를 받는 자라고 할 수 있다. 종종 노련한 도둑들은 훔치고 빼앗는데 있어 놀라운 방법들을 생각해 내고 빼앗고 살인하는 교활한 계획들이 그의 마음을 꿰뚫고 지나가기 때문이다. 이런 부정한 계획들을 계시라고 할 수 있겠는가? 진실로 그렇지 않다. 그런 것은 알라신과 교제하는 종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지식을 알게 하시는 진실한 알라신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의 생각일뿐이다.

그렇다고 계시란 무엇인가? 그것은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는 거룩하고 전능하신 알라신께서 스스로 뽑으신 종 또는, 선택한 자들과 대화하시는 것이다. 이러한 대화가 그릇된 관념의 어둠속에서 벗어나 적당하고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시작할 때 그리고 단순히 적당하고 아무 의미없는 말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고 기쁨과 지혜와 숭고함으로 가득차게 되면 그것은 당신의 종에게 위안을 주시며 그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시겠다고 하신 알라신의 말씀인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계시가 시험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축복을 증만하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런 경우에 계시를 받은 자가 초기 단계에서 얼마간의 계시를 경험하게 되고, 좌절을 하지 않을때는 그의 삶이 진정 신의 계시를 받는자의 길로 가도록 명령한다. 만약 진정 의로운 길을 택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증만된 은총을 잃고 단지 헛된 자만을 가진채 버려질 것이다.

덕있는 많은자들이 계시를 받았으나 알라신께서 보시기에 그들이 모두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아주 높은 경지에서 계시를 받은 알라신의 선지자들은 지위에서 같지 않다. 알라신이 말씀하시길,

ARABIC EXPRESSION

내가 이 사도들을 따로따로 두었노라(2 : 254). 이것은 순수한 신의 은총이지, 칭찬의 증거가 아님을 보여준다. 칭찬은 계시를 받는자의 진실,

성실 그리고 믿음의 정도에 의해서 내려지는 것으로서 오직 알라신만이 알고 계신다. 만약 계시 받을 만한 축복 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계시는 또한 그런 능력의 결실이기도 하다. 계시 받은자가 묻고 알라신께서 대답하시는 식의 계시가 있는데 질문과 대답에는 순서가 있으며 계시는 알라신의 존엄성과 빛으로 특징 지어지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지식과 참된 지식은 이해등의 계시에 필요한 형식을 거치면 그것이 참된 알라신의 말씀이라는 것은 의심 할 바 없다. 알라신의 계시는 두 친구사이의 대화와 같을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알라신의 그의 종과 대화할 때, 그 종이 관련된 어떤 문제를 물을때, 그리고 그가 계시를 들은 것에 반응할 때, 그것이 부드럽고 언어적 훌륭함에 차 있으며, 그 내용안에 그의 마음속으로 적어도 변조되지 않았다면, 그의 대화와 계시는 틀림없이 알라신의 말씀으로 이해 될 수 있다. 그런 알라신의 종은 진실되며 알라신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다. 다만 알라신의 말씀을 받아지고 있는 이런 예외적인 높은 상들이 알라신의 은총으로 절대적인 자비와 순수성을 가지며 어떤 이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 끊임없이 믿음과 헌신, 높은 진실로 나아가는 사람들 인 것이며 또한 거기엔 여기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 있다. 진실되고 성스러운 계시는 알라신의 기적을 많이 보여준다. 눈부신 빛이 생기는 경우가 아주 많으며 그 빛을 따라 장엄하고 영광된 계시가 내려진다. 계시를 받는 자가 천지를 창조자이신 분과 대화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은총이 있을 수 있겠는가? 현세에서는 알라신과의 대화를 통해서만 그분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어떤 대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우둔한 말을 하는 사람의 조건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사람은 알라신의 시험에 놓여 있는데 이는 알라신께서 그 사람의 마음과 혀에서 나온 문장이나 증언을 가지고 믿음이 나타내고 알라신을 등한히 하는 종을 시험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이 말한 것이 알라신에게서 나온 것인지 사탄에게서 나온 것인지 모르는 자는 소경이 된다. 그러한 사람은 경험을 생각하면서 용서를 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약 덕있고 선한 알라신의 종

이 알라신과의 대화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완전히 깨어 있는 상태에서 적어도 열번 정도 묻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밝고 즐겁게 의미심장하고 현명하며 위엄있는 알라신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것은 다시 말해서 그가 의문을 제기하고 알라신께서 대답하시어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에서 그는 알라신께 또 다른 복종을 하고 알라신께서는 그것에 응답하신다. 이것을 열번 정도는 경험해야 한다. 그러한 대화의 도중에 알라신께서 그의 기도를 받아 들여 그 사람에게 놀라운 통찰력을 가르쳐 주시고 다가올 일을 알게 하시고 계속해서 밝은 말씀을 해 주신다면 그러한 사람은 전능하신 알라신께 깊은 감사를 드려야 하며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헌신해야 한다. 이는 순수한 은혜의 알라신께서는 그의 종들 가운데서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들보다 먼저 떠나간 신자들을 이어받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러한 은총은 매우 드문 것이며 최고의 행운인 것이다. 이러한 은총을 받은 자에게 있어 다른 모든 것들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 되고 만다.

이슬람의 특성

이슬람교는 항상 이러한 위치에 있는자들을 만들어 낸다. 알라신께서 그의 종에게 다가가 그와 대화하시고 또 그 사람 안에서 말씀하시는 유일한 종교가 이슬람교이다. 알라신께서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제단을 세우시고 하늘을 향하도록 그 사람을 내부에서 끌어 내신다. 알라신께서는 그에게 우선하여 모든 은총을 내리신다. 눈먼 세상 사람들이 알라신께 가까이 가기에 얼마나 먼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향상시키지 않는다. 만약 어떤자가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불신자이거나 신격시 되어 알라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극단에서 출발하는 커다란 죄를 지은 자들이다. 현명한 사람은 단호한 결단력이 있어야 하며 어떤이에게 주는 높은 지위를 칭찬을 부정해서는 안되며 그런 사람을 손상시켜서도, 신격

화시켜서도 안된다. 누군가 그런 높은 위치에 서게 되면 전능하신 알라신께서는 자신의 망토로 그 사람을 덮고 있는 것 처럼 그와의 친교를 드러내 보이실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알라신을 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존재가 된다. 그러기에 알라신의 평화와 축복이 임하신 성예언자께서 ‘나를 본자는 이미 알라신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인간의 영적 발전의 마지막 단계로서 완전한 만족을 얻게 된다.

이들을 이야기하여 명예를 크게 한다.

이 단계에서, 알라신의 은총이 내게 임해서 나를 특정지을 만한 높은 지위를 얻게 되었고 지금까지 자세하게 이야기한 특징인 교제를 주시어 소경에게는 빛을 주시고 지금까지 헤매고 있던 구도자를 인도하시고 진실을 얻은자들에게는 많이 얘기되긴 했지만 거의 찾을 수는 없었던 신성한 샘물에 관한 기쁜 소식을 주신다는 것을 밝히지 않으면 나는 친구들에게 커다란 잘못을 한 죄인이 될것이다. 그것을 듣는자들은 알라신과의 만남이 인간에는 구원이요, 영원한 행복이며, 성전코란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는 알라신을 볼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기 바란다. 내가 보았던 것을 사람들이 보고 내가 들었던 것을 들으며 쓸데없는 말들을 그만두고 진실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란다. 모든 의미를 지어 버리는 물과 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이 지금까지 말한 알라신과의 교제이다. 영혼이 진실을 구하고 그 마음이 진실을 갈구한다면 사람들은 그 방법을 찾고 그 길을 구할 것이다. 어떻게 그 방법을 발견하고 가려진 베일을 벗길 수 있을까? 내가 모든 구도자에게 확신하는 바는 단지 이슬람교 만이 그 길을 발견하는 좋은 소식을 전해 줄것이라는 것이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오랫동안 알라신의 계시를 비밀로 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비밀은 알라신께서 강요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부족한 존재이기에 만든 하나의 구실인 것이다. 확실히 눈없이 보고 귀없이 듣고 혀없이 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전코란이 없는 한 진정 우리가

사랑하는 알라신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전에 나는 젊었고 지금은 나이가 들었으나 이 신성한 샘물없이 눈에 보이는 지식의 잔을 마시는 사람을 본적이 없다.

지식의 완전한 원천인 알라신 계시

알라신께서 원하시는 바를 아무도 거부할 수 없다. 완전한 지식의 원천은 알라신의 신성한 예언자에게 내려진 알라신의 계시이다. 그러므로 은혜가 많으신 알라신께서는 미래에 알라신의 계시가 가려져 세상이 멸망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그 분의 계시와 교제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정당한 방법으로 그것을 구한다면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생명의 물은 하늘에서 내려와 적당한 곳에서 멈춘다. 어떻게 해야만 그것을 마실수 있는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샘에 이르러 입을 대면 생명의 물로 채워 질것이다. 인간이 완전한 행복을 얻으려면 빛을 인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달려가서 길을 잃고 헤매는 친구를 찾을 수 있는 길을 택해야 한다. 빛은 항상 하늘에서 내려와 땅에 이르는 것임을 당신은 알고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인도의 빛 역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인간 자신의 지혜나 추측으로는 그 분의 진정한 이해에 이를 수 없다. 알라신께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시는데 알라신을 볼 수 있는가? 하늘의 빛이 없이 어둠속에서 볼 수 있는가?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이 경우에도 아마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완전한 상태에 있다할지라도 우리의 눈은 하늘의 빛에 의존하고 있다. 비록 완전히 들을 수 있다 해도 우리 귀는 알라신의 명령으로 움직이는 공기에 의존하고 있다. 아무말도 없이 우리 추측에만 모든 것을 맡긴다면 진정한 알라신이 아니다. 완전하고 살아 계신 알라신은 자신의 힘으로 모습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이런 경우에 그 분은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려 하신다. 하늘의 창이 열리려 하고 날이 밝아 오려 한다. 일어나 진정한 알라신을 구하는 자, 어떠한 재앙도 겪지 않는자, 영광이 결코 희미해 지

지 않는 빛나는 자에게 축복이 있으라. 성전코란에서 말씀하시기를,

ARABIC EXPRESSION

천지의 모든 빛은 알라신에게서 나오며 모든 것을 밝힌다. 그 분은 태양에게 빛을 주시는 태양이시며 대지에서 숨쉬는 모든 것들의 생명이다. 그 분은 진실로 살아 계신 알라신이다. 알라신을 영접하는 자에게 축복있으라(24 : 36). 지식의 세번째 원천은 경험을 통해서 얻는 확신이다. 그들의 반대 세력으로 인해 알라신의 뜻에 의해 그들에게 부과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이 이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명과 명령은 실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경험하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실행하여 발전하게 되며 절정에 이르고 스스로 이를 경험한 사람들은 알라신의 인도를 받는 완전한 표시가 된다. 영광된 자 알라신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용, 보복, 인내, 자비와 같은 모든 도덕적 속성들은 지금까지는 이론적으로 이성과 감성에 퍼져 있었으나 실제 경험을 통해 인간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며 고통 받는 모든 인간에게 깊이 새겨 지는 것이다.

ARABIC EXPRESSION

물론 우리가 두려움과 또 재산, 생명, 등으로 그리고 노력의 결실을 나쁘게 하여 너희들을 시험할 때가 있다. 알라신의 손에 의하여 또는 알라신의 뜻에 의해서 적은 고통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참는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 즉, 재난이 닥쳤을 때라도 낙담하지 않고 '우리는 알라신의 것, 알라신 곁에 돌아 갈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이다. 이런 사람들 위에 주의 축복과 은혜가 내린다. 그런 사람들이 바르게 인도된 사람들이라(2 : 156~158).이 귀절은 이성과 감성에 얽매인 지식의 지식의 덕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진정한 지식이란 감성에서 나와 모든 신체를 통제하고 단련시키며 저장된 모든 기억을 실제로 내 보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적인 경험으로 모든 신체에 영향력을 미침으

로 해서 지식은 강화되고 키워지게 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떤 유형의 지식도 실천해 보지 않고는 최고에 도달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빵을 굽는것이 너무나 쉬운것으로 특별한 기술이 필요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밀가루를 반죽하여 굽기에 적당하도록 한다음 그것을 나눠 적당한 크기의 덩어리로 만들어 양손으로 각 덩어리를 누른다. 그것을 넓게 펴서 적당히 달구어진 팬에 놓고 빵안으로 열이 스며들 때까지 이리저리 움직이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걸 단순히 우리의 학문적인 허풍일 뿐이다. 경험이 없이 빵을 굽는 과정을 시작할 때, 반죽을 적당한 상태로 하여 너무 단단하지도 묽지도 않게 하는것이 첫번째 어려움이다. 많은 수고와 피로를 겪어 반죽을 준비하는데는 성공했다 할지라도, 50년동안 빵굽는 과정을 보아왔더라도 우리가 구운빵이 어떤것은 타고 어떤것은 덩어리째 구워지지도 않으며 또, 모양이 일정치 않게 된다. 단 한번도 실행해 보지 않은 순수한 지식에만 의존 하므로 밀가루의 양이 부족해 곤란을 겪을 것이다. 이것이 기본적인 일들에서의 학문적 지식의 경우라면 더 커다란 일에서는 실제적인 경험도 없이 어떻게 우리 지식에만 의존할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전능하신 알라신께서는 이 귀절에서 알라신께서 내려주신 고통은 경험을 통해 지식을 완성시키는 하나의 수단임을 가르쳐 주신다.

알라신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셨다. 너희들은 반드시 재산의 일과 생명의 일로 시험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유태인과 기독교 그리고 알라신과 함께 동료를 만드는 사람들에 의해 증상을 들을 것이다. 만일 너희들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스스로를 자제한다면 여러가지 일들이 확실히 해결된다(3 : 187). 이 귀절에서 뜻하는 것은 경험으로 시험된 지식만이 유익한 것이고 단순히 학문적이고 경험이 없는 지식은 유익하지 않는 것이다.

장사를 하게 되면 재산이 드는것과 같이 지식은 실제 경험을 통해서 내적 지식의 최고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실제 경험이란 것은 지식을 완성시키는 중요한 방법으로서 지식에 빛을 내리는 것이다. 전능하신

알라신께서는 이슬람교도들에게 기회를 주시어 성전코란에서 배운바를 실천한 것을 설명하게 하여 빛으로 가득 하게 하셨습니다.

성스러운 선지자의 생명의 두단계

그러기에 전능하신 주님께서 인간에게 평화와 축복을 내리시어 생명을 두단계로 나누셨다. 하나는 역경과 재난과 고난의 단계이며 다른 하나는 승리의 모습이다. 고난의 단계에서 권능이 상실된 높은 덕성이 자주 행동으로 실행되며 승리와 권능의 단계에서는 권능이 상실된 높은 덕성은 설명될 수 없다. 인간이 이러한 두가지 단계와 상태를 거침으로써 이 두가지 유형의 특성들이 평화와 축복이신 선지자의 생애에서 완전히 설명되어 진다. 메카에서 13년 이상이나 시험을 당하시는 동안에 평화와 축복이신 성스러운 선지자는 완전한 의인들이 그러한 경우에 보여주는 모든 높은 덕행들을 실천으로 보여 주셨다. 그것은 알라신을 믿고 고난을 겪으면서도 침착을 잃지 않으며 인내하고 또 의무를 수행하고 두려움 없는 용기를 발휘하는 것이다. 그가 인내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믿음이 없던 많은 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고 또 곳곳하게 고난을 참아내는 자만이 완전하게 알라신을 믿을수 있다고 확신하셨다.

두번째 단계 다시 말해서 승리와 권능과 성공의 단계에서 그분은 인내, 용서, 관용, 용기와 같은 높은 덕성들을 보여주며 믿음이 없던 많은 자들이 그러한 높은 덕행들을 실행하는 것을 보고 그 분을 믿게 되었다. 그는 자신을 박해한 자들을 용서하고 자신을 메카에서 쫓아낸 자들에게는 평안을 내리셨다. 또 재물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커다란 부의 은총을 내려 주셨고 잔인한 적들을 이기는 권능을 가지셨고 그들 모두를 용서하셨다. 그분의 높은 덕행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성질은 알라신이 내려주신 그리고 진정으로 선한자만이 보여줄수 있는 것이라고 확신하셨다. 그리하여 그의 적들은 그에 대한 증오를 한 순간에 그들의 마음에서 씻어내었다. 성전코란의 다음 귀절에서는 그의 위대한 덕성을

말하고 있다.

ARABIC EXPRESSION

그들을 말하길 내 예배도 내 수행도 내 삶도 내 죽음도 모두 만유의 주님이신 알라신께 속한다(6 : 163). 이것은 그의 삶의 목적이 알라신의 영광을 보여주며 창조자이신 알라신께서 위안을 주기 위해 살고 있으며 끊임없는 죽음의 고통을 통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알라신의 이름으로 알라신의 피조물을 위하여 죽겠다고 생각하며 무지하고 미친자들처럼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자신의 죽음이 다른이를 위한 것이라 스스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 그것에 반대하셨다. 성전코란에서는 자신을 파멸시키는 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무거운 응징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신다.

ARABIC EXPRESSION

자살하지 말라 그리고 자신을 파멸로 이끌지 말라(2 : 196). X라는 사람이 위통으로 고생한다고 Y가 X를 동정하여 자기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무익한 일이다. 그것은 덕행이 아니라 단지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쓸데없는 고통일 뿐이다. 그런 경우에는 Y가 의학적 자문을 구한다거나 X를 위해 약을 얻는다거나 하는 적절하고 유용하나 방법으로 X를 보살피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다. 자기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X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은 자기 몸의 중요한 부분에 아무 소용이 없는 고통을 가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귀절에서 의미하는 진정한 뜻은 우리에게 평화와 축복이신 선지자께서는 진정한 동정심에서 인류의 행복을 위한 노력으로 자기 생애를 바치셨으며, 이러한 이유로 간청하고 훈계하시며 박해를 견디셨으며 적절하고 현명한 방법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시고 또 자신의 안락을 희생하셨다는 것이다.

ARABIC EXPRESSION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슬퍼하며 죽으려 하지 말라(26 : 4). 너의 영혼이 그들을 위하여 소모되지 않도록 하라(35 : 9). 사람들을 받들기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현명한 방법은 자애로운 자연의 법칙에 따라 그들을 받들며 고난을 이기며, 끝까지 자신의 목숨을 올바른 목표를 위해 일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다. 그들의 위험한 상황 때문에 자신의 잘못이나 고뇌에서 비롯되었다고 자기 머리를 돌로 쳐서는 안되며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준다고 독약을 마시고 목숨을 버려서는 안된다. 이것은 용감한 방법이 아니라 나약한 감상인 것이다. 자살을 하는 것은 고난을 이겨 낼 수 없는 사람들의 방법으로 되어졌다. 어떤 말로 그것을 옹호한다 해도 그런 행동이 아주 어리석다는 것은 틀림없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복수 할 기회를 갖지 못한자가 역경을 참아내고 적에게 저항하지 않는것은 덕성이라 할 수 없다. 그 사람이 복수할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행동할 지 모르기 때문이다. 고난을 견뎌내고 권능과 행복을 이루어야만 사람의 진실한 성격이 나타날 수 있다. 나약하고 나태하며 무력한 상태에서 고난을 견뎌내고, 권능과 힘과 번영을 얻지 못한자는 용감한지 겁자인지 알 길이 없다. 그가 적들을 이기고 나서 그 적들을 어떻게 대우할지 모르고 부유하게 되어 그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 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이 특성을 가늠하지 못한다. 그 사람은 재산을 혼자 쌓아 둘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인가? 만일 그가 전쟁에 참가했다면 도망가겠는가 아니면 용감히 싸우겠는가? 평화와 축복이신 선지자의 은총과 은혜는 그에게 덕성을 드러내 보일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었다. 그는 그것을 완성할 적절한 경우에 자애로움과 용기와 온화함과 인내와 공평함을 보여 주셨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것은 헛된 수고가 될 것이다. 연약함과 강함, 가난과 부에 놓인 그의 삶의 두 단계에서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덕성을 풍부하게 많이 세상에 보여 주셨다. 전능하신 알라신께서 부여하신 모든 기회를 이용하는 것 이상의 덕성은 없는 것이다. 그의 경우 용기, 관용, 불굴의 의지, 인내, 온유함과 같은 훌륭한 덕성들은 너무나 명백하게 입증되었으므로

그와 동등한 것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극도로 그를 박해하고 이슬람교를 파멸시키려 했던 자들이 알라신께 요서받지 못했음은 사실이다. 그들의 경우에 대해 거직으로 이야기를 구미려는 것은 결국 그 적들의 고통 아래에 있는 정의로운 자들에게 파멸을 가져다 주게 된기도 한다.

성스러운 선지자의 성전의 목적

우리에게 평화와 축복되시는 알라신께서 싸우신 이유는 아무 필요도 없이 피를 흘리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회교도들은 조성 전래의 고향에서 쫓겨나 많은 무고한 남녀 회교도들이 순교 되었고 악을 행한 자들은 자신들을 억제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슬람교의 보급을 방해했다. 이런 상황에서 알라신의 보호법은 박해받는 자들을 완전한 파멸로부터 보호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칼을 뽑은자들은 칼로 대항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러한 싸움은 살인을 자행하는 자들의 악을 뿌리 뽑는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악을 몰아 내려 한 것이다. 악인들이 의인을 파멸시키려 함과 동시에 사움이 발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이슬람교가 자기 방어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수천의 무고한 여인네와 어린이들이 학살되고 이슬람교는 종말을 맞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를 반대하던 자들이 알라신의 말씀에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들에게 저항하지 않고 항상 온화함과 관대함으로 사랑과 관용을 보여 주리라고 생각하는것은 커다란 오산이다. 그러한 사람들은 알라신께서 오로지 관용과 부드러운 성질만을 가지셨단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자들이 크고 분명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수 있다. 알라신의 자연법칙은 분명히 완전한 은혜만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어떤 상황에서나 온화하고 부드럽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다른 경우에는 완전한 은혜의 마음으로 노련한 의사처럼 그것은 어떤대는 달콤한 약을 주기도 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몹시 쓴 약을 처방해 주기도 한

다. 우리가 우리 몸을 부드럽게 대하듯 알라신의 은총은 우리를 그렇게 대한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육체를 사랑하든 의심할 바 없다. 그래서 만약 우리 머리카락 하나라도 뽑으려 한다면 우리는 매우 화를 낼 것이다. 자기 몸에 대한 사랑이 전신에 미치는 것이고 몸의 부분을 사랑하고 어떤때는 부분도 잃거나 다치기를 바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분에 대한 사랑의 정도가 같지 않음은 분명하다. 우리 목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체 주요 기관에 대한 사랑은 감정보다 강한 것이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신체의 전체는 어떠한 특정 부분에 대한 사랑보다 더 소중하다. 하위 기관을 다치고 자르고 부수어서 상위 기관이 안전할 수 있는 경우라면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할 것이다. 우리에게 소중한 기관을 다치게 하고 자름으로 해서 슬프기도 하지만 하위 기관이 잘못되어 상위기관을 망쳐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우리는 할 수 없이 그것을 자르게 된다. 이러한 예로 알라신께서 자신의 의로운 종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의 손에서 위협을 당하고 그래서 커다란 혼란이 생기는 것을 보시면 하늘에서건, 땅에서건 의인을 보호하고 혼란을 멈추기 위해 알라신께서는 적절한 계획을 내놓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기에 그 분은 자애로우시고 또 현명하신 분이다.

만유의 주 알라신께 모든 찬미를 드린다.

아마디야 무슬림 커뮤니티

서울지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2-85번지

Phone / Fax. 02. 373. 5283

대구지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곡동 63-2번지 2층

Phone / Fax. 053. 294. 2234

E-mail. info.ahmadiyya.korea@gmail.com

www.alislam.org / www.mta.tv